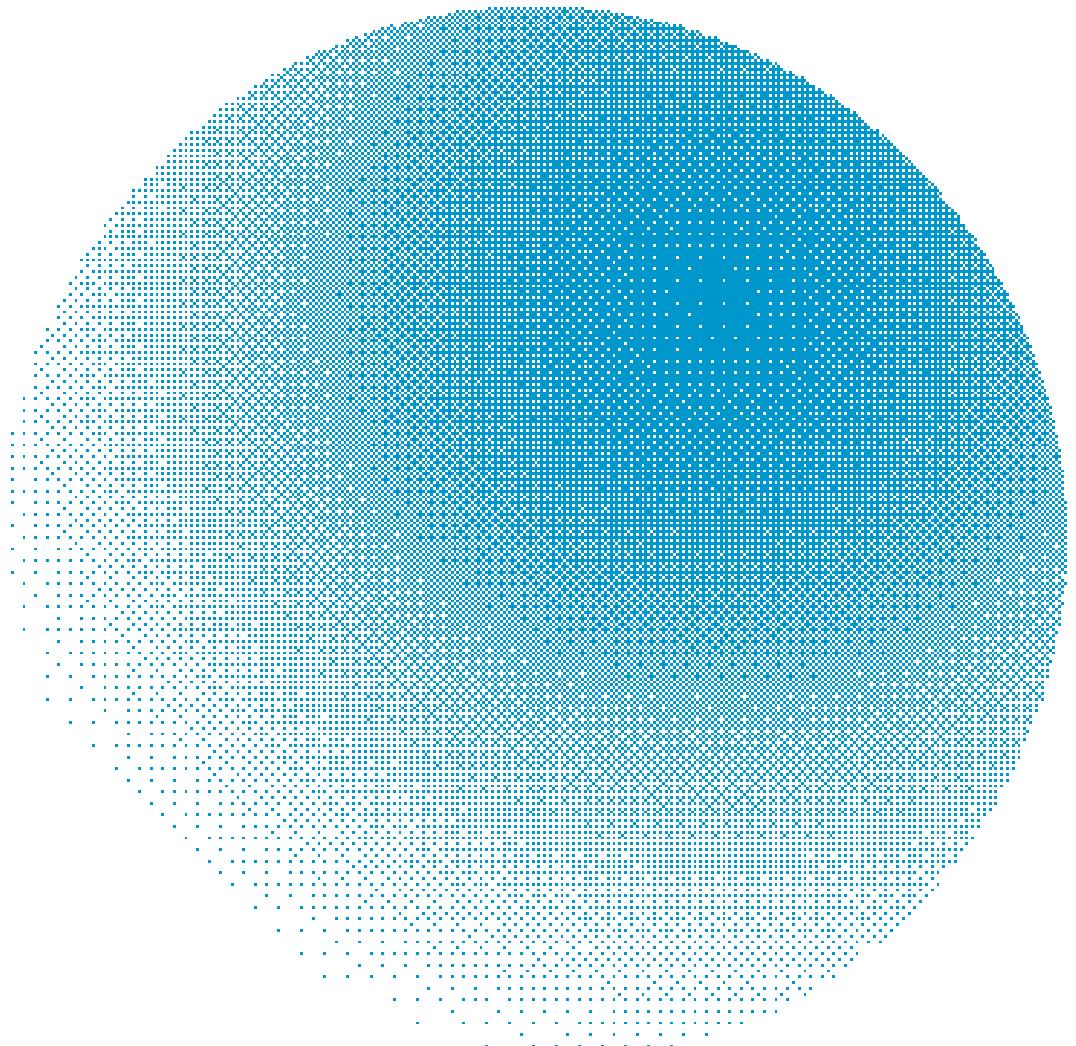


MMCA
RESIDENCY
CHANGDONG 2014

2014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MMCA Changdong Residency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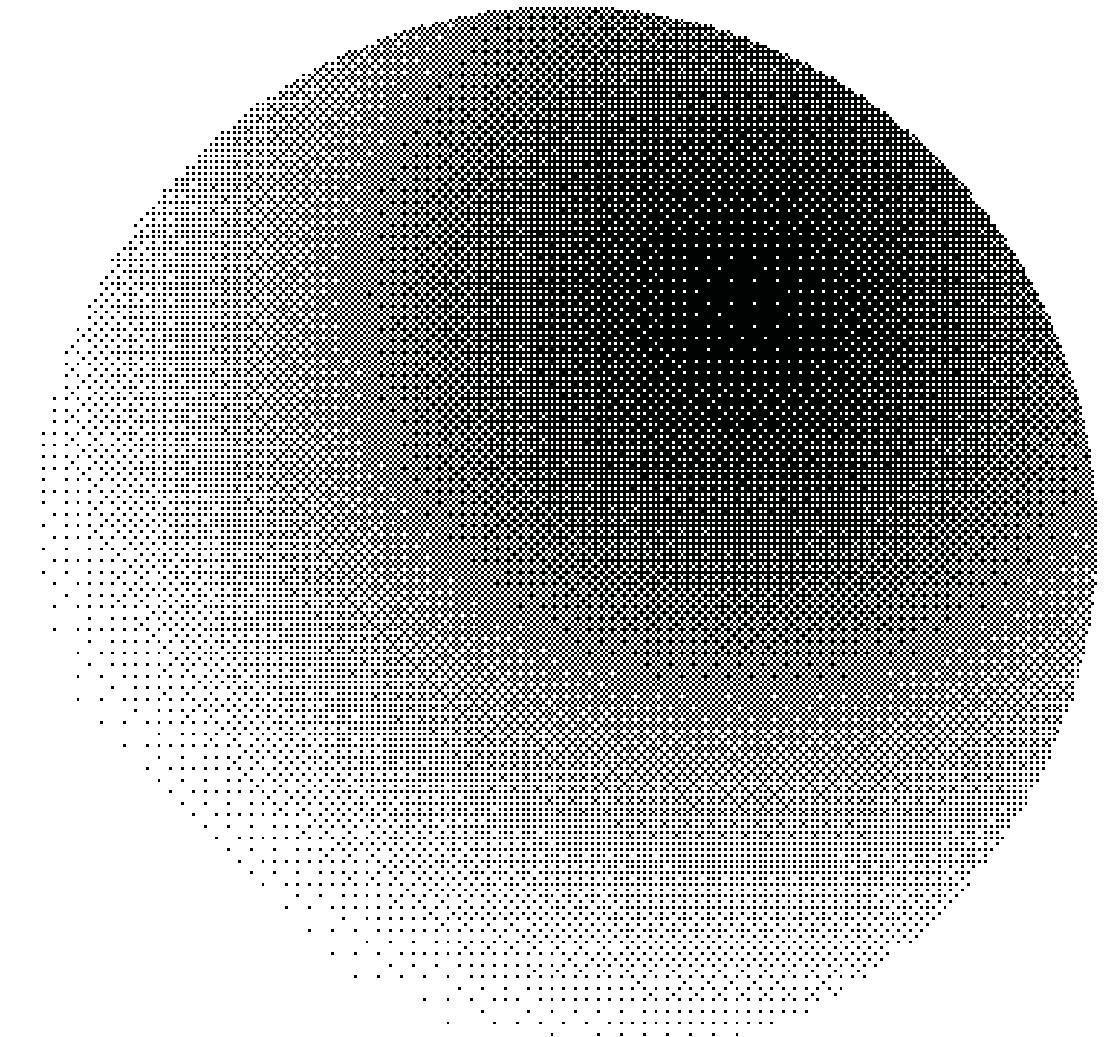


2014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2014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MMCA Changdong Residency 2014

2014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MMCA
RESIDENCY
CHANGDONG 2014



인사말	4	프로젝트	
국내일반입주 프로그램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	108
김범수	10	최영환, 최성수, 서준호	
이귀영	16	<지워진 글>	114
정석희	22	조현아, 김해주, 류한길, 장현준	
국제일반입주 프로그램		<공공선을 위하여>	120
가비 타플리크	30	산업예비군(이완, 김현준, 유화수)	
마사우키 미야지	34		
오토 후덱	38	<voice for the voiceless>	126
이사이 가르바즈	42	장민승 + 정재일	
자히 하크몬	46		
제나 김	50	입주 작가 약력	132
크리스티앙 로흐	54	프로그램 & 활동현황	155
하이데 힌릭스	58	교류 및 협력기관	164
하이람 웅	62	위치 및 연락처	166
유네스코-아쉬버그 장학연수 프로그램			
익 초우	68		
케빈 가프니	72		
탄딜레 즈웰리반지	76		
수교기념초청 프로그램			
네팔			
마니쉬 랄 슈레스타	82		
수잔 치트라카르	86		
덴마크			
안네소피 산달	90		
해설홀트 & 마이방 by 비베케 마이방	94		
이탈리아			
마르게리타 모스카르디니	98		
발레리오 로코 오를란도	102		

Contents

Greetings	4	PROJECT	
RESIDENCY PROGRAM		<Ephemeral Placard>	108
KIM Beom-Soo	10	CHOI Young-Hwan, CHOI Seong-Soo,	
LEE Gui-Young	16	SEO Jun-Ho	
JUNG Seok-Hee	22	<Erased Text>	114
INTERNATIONAL ARTISTS		CHO Hyun A, KIM Haeju, RYU Hankil,	
RESIDENCY PROGRAM		JANG Hyun Joon	
Gaby Taplick	30	<The Common Good>	120
Masayuki Miyaji	34	Industrial Reserve Army (Lee Wan, Kim	
Oto Hudec	38	Hyun Jun, Yoo Hwasoo)	
Yishay Garbasz	42		
Tsahi Hacmon	46	<voice for the voiceless>	126
Jena H. Kim	50	jang minseung + jung jaeil	
Christian Lohre	54		
Heide Hinrichs	58	CV	132
Hiram Wong	62	Programs & Activities	155
UNESCO-ASCHBERG BURSARIES		Acknowledgements	164
FOR ARTISTS PROGRAMME		Information	166
Yik Chow	68		
Kevin Gaffney	72		
Thandile Zwelibanzi	76		
INTERNATIONAL ARTISTS			
FELLOWSHIP PROGRAM			
Nepal			
Manish Lal Shrestha	82		
Sujan Chitrakar	86		
Denmark			
Annesofie Sandal	90		
Hesselholdt & Mejlvang by Vibeke Mejlvang	94		
Italy			
Margherita Moscardini	98		
Valerio Rocco Orlando	102		

인사말

국내외 작가들의 창작역량을 고취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는 올해 공식 명칭을 '창동창작스튜디오(Changdong Art Studio)'에서 '창동레지던시(MMCA Residency Changdong)'로 변경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레지던시로 새롭게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올해 창동레지던시는 「유네스코-아쉬버그 장학연수 프로그램」 및 「국제일반입주 프로그램」, 「수교기념초청 프로그램」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14개국 18명의 해외 작가를 선발하여 국제화에 힘쓰는 한편, 한국의 중견작가를 지원하기 위한 입주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팀 단위 자유주제 프로젝트 작가를 선발하여 작가들 간의 실험적인 협업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처럼 창동레지던시는 현대미술의 경향을 반영하는 다양한 입주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국내외 미술작가들의 작업 활동을 촉진하는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다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창동레지던시와 입주·출신 작가들의 발전을 응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입주기간 동안 창조적 열정을 보여준 창동레지던시 12기 입주 작가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장 직무대리
김정배

Greetings

MMCA Residency Changdong, established in 2002 to facilitate artistic development of artists, changed its official name from "Changdong Art Studio" to "MMCA Residency Changdong" this year, moving forward to become a world-wide resid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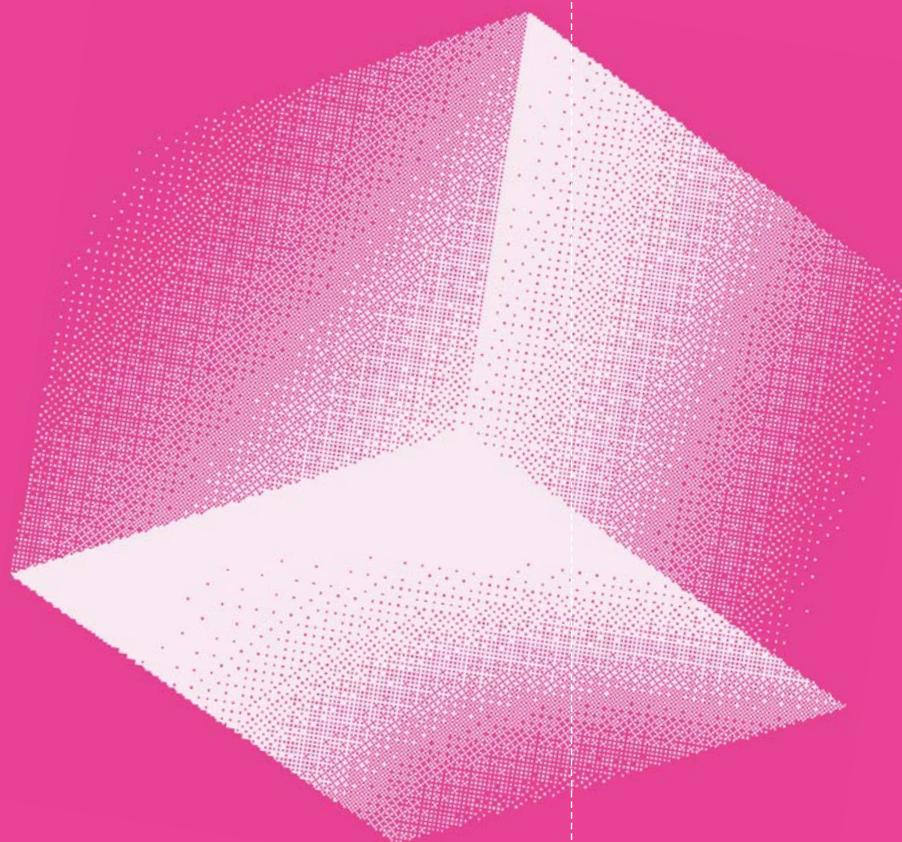
In 2014, MMCA Residency Changdong promoted diversity by providing eighteen international artists from fourteen countries with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our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International Artists Residency Programs," "UNESCO-Aschberg Bursaries for Artists Programmes," and "International Artists Fellowship Programs." On the other hand, we launched new residency programs designed for established Korean artists as well as project teams to foster experimental interactions and collaborations among artists.

Now MMCA Residency Changdong hopes to reaffirm its position as a hub, which is able to read the latest contemporary art scenes, by providing various professional residency programs for the career development of artists. We would like to kindly ask your ongoing support and interest in the future of MMCA Residency Changdong and our artists. Lastly, we send our sincere appreciation to our 2014 artists in residence for their profound passion and efforts for the arts.

KIM Jeongbae
Acting Director,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국내일반입주
프로그램

RESIDENCY
PROGRAM



CLONAGE: 잠재적인 것들

인류는 자연재해와 자연환경의 변화에서 인간은 영원히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죽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근원적인 죽음의 공포에 대처하기 위해 인간은 “나”라는 순수한 존재인 영혼을 만들어 신체와 영혼을 이분시켰다. 그 결과 인간은 정신적 두려움과 신체적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종교와 과학은 불로장생 할 수 있는 대안을 끊임없이 연구하게 되었으며, 철학적 사유를 통해 생명의 비밀을 찾으려 했다. 이런 노력들은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집단화되고 구조화되어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인류는 아직도 인간의 근원적인 죽음에 대한 비밀을 찾지 못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체가 세포분화가 정지되어 죽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클로나쥬(clonage)는 바이오테크놀로지 안에서 인간복제를 하는 과정에 쓰이는 용어로 클론(clone)화 되기 전의 연구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프로이트의 용어인 거세(castration)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클로나쥬는 “현실을 교묘히 굴절시키고 왜곡시켜 우리의 감각을 혼란시키고 불안하게 하니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적 클로나쥬(clonage artistique)의 특성은 과학적 클로나쥬(clonage scientifique)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관계이며 사람을 불안하고 두렵고 불편하게 한다. 예술이 사회현상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처럼 예술적 클로나쥬가 과학적 클로나쥬의 문제도 제기 할 수 있다. 사회학적 클로나쥬는 계급사회에 들어가기 위한 클로나쥬와 자기 이상과 같아지기 위한 클로나쥬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것은 성형수술로 이루어진다. 클로나쥬 현상은 근원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직화된 것을 새롭게 조직화하고, 그것은 재조직화 되는 연속성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같이 현대미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나의 작품을 보면 기괴한 인체의 시각적인 강렬한 끌어당김 속에 불안하고 두려운 공포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특히 몸의 담론들과 연관되어 있어서 이미지들은 의학적 도식들과 삽화 또는 신체 부분 사진으로 조합되어 있다. 크게는 초현실주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막스 에른스트의 <백 개의 얼굴을 가진 여자> 삽화와 드로잉을 들 수 있다. <super-objet> 시리즈의 형태구성은 포토몽타주 기법을 이용하여 입체화 시킨 것이다. 이는 오토마티즘(automatisme)과 형식적 유사성을 갖는다. 내가 차용하는 오토마티즘은 바타이유적 비정형을 조각성에 적용하여 새로운 추상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함이다.

KIM Beom-Soo**Clonage: Virtual th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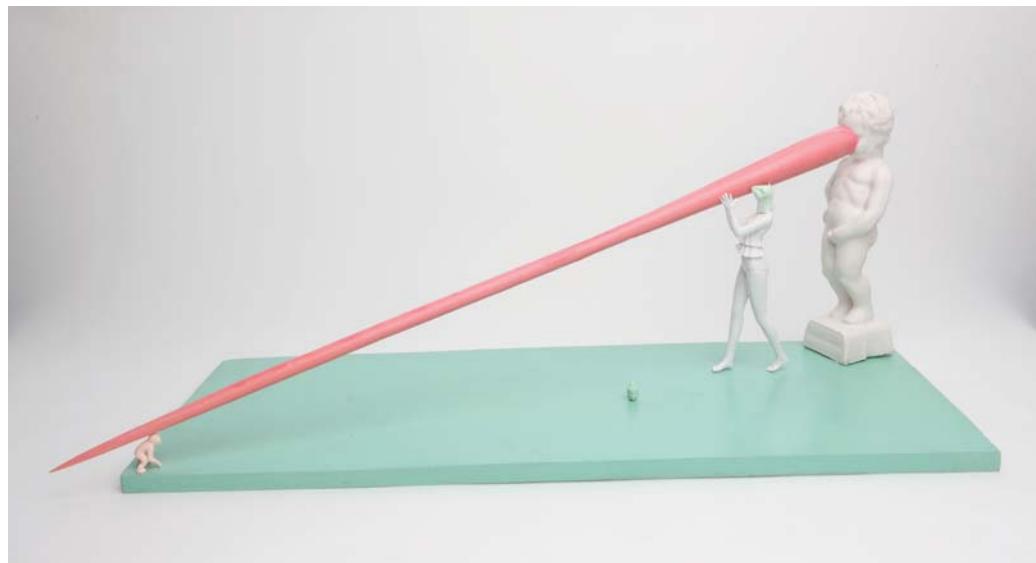
Knowing that humans cannot survive amid natural disasters and environmental change, humanity came to perceive death. In order to cope with their fundamental fear of death, humans created a pure being of spirit called “I” and dichotomized the body and spirit. As a consequence, humans acquired mental fear and physical fear. To conquer death, religion and science ceaselessly studied alternatives of perpetual youth, while philosophical reasoning sought after the secret of life. These efforts became collectivized and structuralized in terms of politics, society, and religion, creating various cultures. Yet humanity still has not found the secret regarding the fundamental death of humans. Where are we going? What happens after our cell differentiation stops and we die?

‘Clonage’ is a term used in biotechnology during the process of human cloning, referring to the research process that takes place before forming a clone. It can also be seen to derive from the Freudian term ‘castration.’ Clonage signifies “that which skillfully deflects and distorts reality, rendering our senses confused and anxious yet allowing for the coexistence of reality and unreality.”

The characteristics of ‘clonage artistique’ bear similar relations to fear over the results of ‘clonage scientifique,’ making people anxious, afraid, and uncomfortable. Just as art poses questions to social phenomena, clonage artistique can pose questions to clonage scientifique. ‘Clonage sociologique’ can be divided into clonage for entering into class society and clonage for becoming like one’s self-ideal, achieved by plastic surgery. In order to overcome fundamental fear of death, the phenomenon of clonage newly structuralizes what is structured; it appears in contemporary

art just as it appears in contemporary society as a continuity of restructuralization that changes constantly.

Looking at my work, one finds a psychological horror of anxiety and fear inherent in the strong visual pull of strange human bodies. Because my work relates particularly to discourses of the body, images are compounded from medical diagrams, illustrations, and photographs of body parts. It is largely influenced by surrealism, especially Max Ernst’s illustrations and drawings in *La femme 100 têtes*. The composition of form in the series Super-objet was dimensionalized using photomontage technique. It bears formal similarity to automatisme. The automatisme that I borrow applies Bataillesque irregularity to sculpture,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a new abstraction.



super-objet31, 2014, 레진, 58x43x24cm
super-objet31, 2014, Resin, 58x43x24cm



두통, 2014, 레진, 300x100x100cm
Migraine, 2014, Resin, 300x100x100cm



두통, 2014, 레진,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216x35x63cm
Migraine, 2014, Resin, steel,
stainless steel, 216x35x63cm

두통, 2014, 레진,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216x35x63cm
Migraine, 2014, Resin, steel,
stainless steel, 216x35x63cm



두통, 2014, 센서, 브론즈, 나무, 모터, 63x15x75cm
Migraine, 2014, Sensor, bronze, wood, motor, 63x15x75cm

이귀영의 작업은 이미지화된 기억의 메시지를 표현한다. 그의 작업에는 공간구조와 자연, 현대인의 모습이 함께 나타나 있다. 작가가 그려내는 드로잉은 치밀한 설계도가 되기도 하며, 그 위에 칠해지는 페인팅은 화면 전체를 구성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창조된다. 구축된 화면을 통해 우리는 해태나 천록과 같은 전통적인 상징과 자연풍경이 공존하는 시각체험을하게 된다.

그는 시간과 공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도시와 인간, 자연, 건축물의 구조를 한 화면 속에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도시와 자연의 공간 속에 시간적 변화와 장소를 점유하는 일상의 감성과 현대인의 모습을 회화와 영상 작업에 포착하면서, 작가는 일상과 예술작업이 함께 호흡하고 살아 숨 쉬는 가상공간을 통해 기억의 시간여행을 표현하고자 한다.

기억의 이미지가 메시지가 되어 구성된 화면은 하나의 완성된 자유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LEE's work is a visual manifestation of memory. It captures space's structures and nature, fused with people today. The drawing that the artist has drawn is become as an elaborate blue print or the painting that is painted over the drawing is created as a new space encompassing most of the picture. In the constructed picture, we can gain own visual experience and join both the traditional symbols as Haitai or Cheonrock and a natural landscape.

She captures city, human, nature and architecture through the feedback of time and space.

The artist wishes to express the time journey of memory through virtual space, in her works of paintings and videos that capture the sensibility of everyday life in the flow of time and space in city and nature.

The composed picture represents an image of memory and becomes a message that is expressed as a complete space of thou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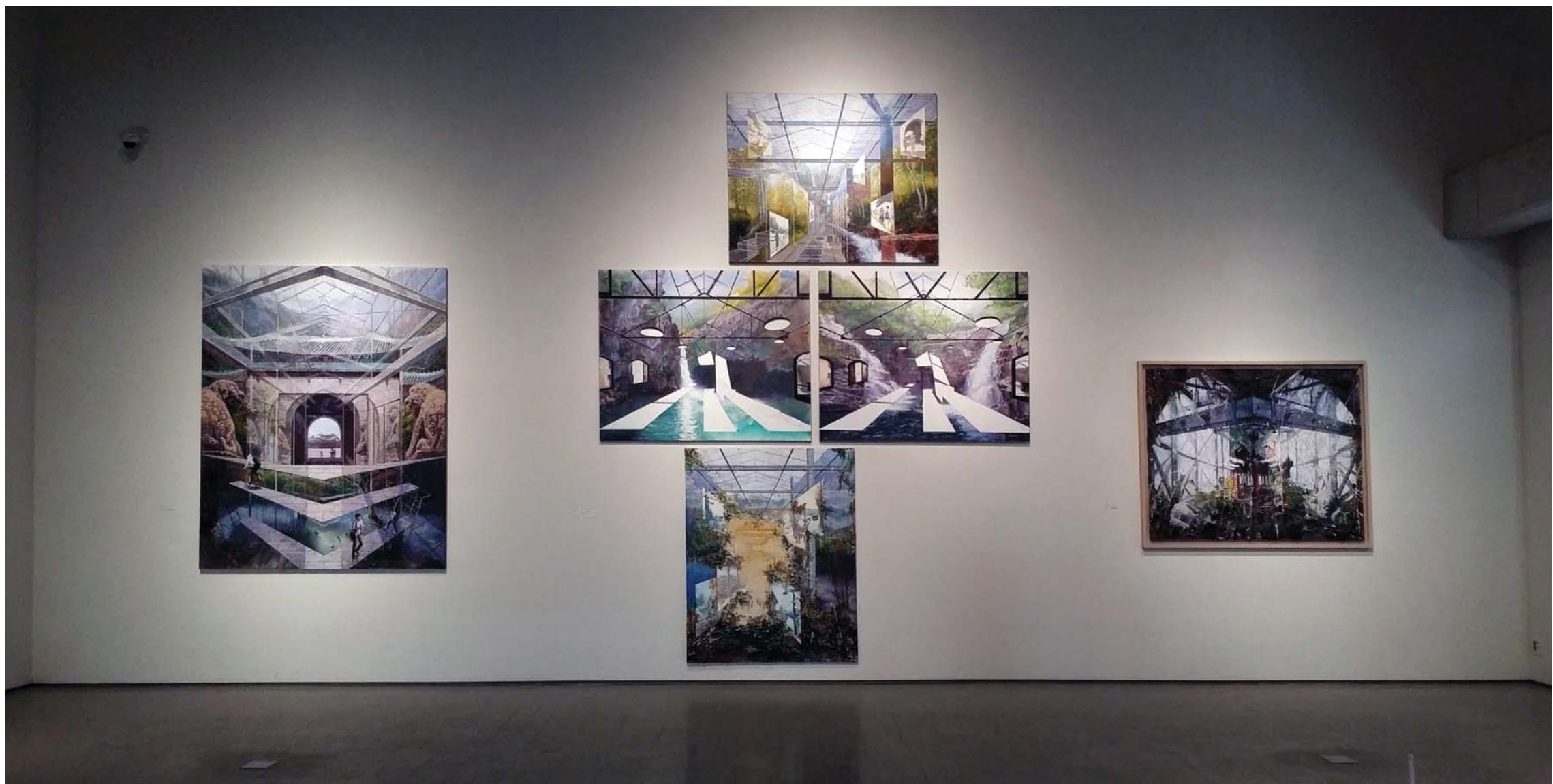
교차된 공간 – 광화문, 2014, 캔버스에 아크릴릭, 228x182cm
Space of Intersection – Gwanghwamun, 2014, Acrylic on canvas, 228x182cm



구조 - 현대인, 2014, 캔버스에 아크릴릭, 182x228cm
Gate - Contemporary Human, 2014, Acrylic on canvas,
182x228cm



사유의 공간, 2014, 캔버스에 아크릴릭, 182x228cm
Space of Thought, 2014, Acrylic on canvas, 182x228cm



교차된 공간, 2014, 캔버스에 아크릴릭, 설치 전경
Space of Intersection, 2014, Acrylic on canvas, Installation view

1월 21일 화요일. 맑음

추운 날씨에 어전 폭설이 내렸다. 길은 꽁꽁 얼었다.
창동레지던시에서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카메라를 설치했고 드로잉과 페인팅 애니메이션을 위한
설치를 끝냈다. 유배지는 한적하다. 나는 서서히 이
유배지를 거닐 것이다.

3월 10일 월요일. 새벽

구럼비의 형상은 해체 되었다. 구럼비의 본질만이
드러난다. 나는 구럼비의 형상을 그리지 않았다.
구럼비는 오리무중이다. 나는 구럼비의 본질에 도달한
것인가.

4월 5일 토. 새벽

어제 새벽에 구럼비 작업은 끝났다. 긴 긴 여정에 나는
드디어 돌아왔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시원하지도
허탈하지도 않다. 그냥 나는 구럼비를 끝냈다. 긴 여행을
끝냈다. 끝나지 않은 다른 여행은 또 시작 되리라. 그래
애초에 시작과 끝은 없었다. 그저 그곳에 구럼비가
있었고 나는 멀고먼 길을 돌아 그곳에 잠시 다녀왔을
뿐이다.

4월 10일 목. 새벽

나의 작업은 매순간 절박해야 한다. 어제 수요일 하루
뻔뻔하게 놀았다. 스튜디오 근처에서 사진 좀 찍고
160호 캔버스에 목탄 칠을 한 것이 전부였다.
봄은 왔다. 싱승생승한 봄이다.

4월 16일 수. 새벽

산 작업을 시작했다. 어떻게 진행되어갈지 지금은
모른다.

4월 18일 금. 새벽

그제 진도 앞 바다에서 대형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다.
무수히 많은 고귀한 생명들이... 참으로 어떻게 말로,
글로 옮길 수 있을 것인가
아!

4월 25일 금. 새벽

내 생애 두 번 다시없을 세월호 침몰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가엾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통한의 분노, 비애는 심장을 도려내는 듯,
아프다. 아프다.

5월 8일 목. 새벽, 비

<에피소드 VII>을 끝냈다. 오래 걸렸다. 세월호 침몰로
한 동안 작업을 할 수 없었다. <에피소드 VII>은 바로 그
이야기다. 비통하게 죽어간 젊고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에피소드 VII>를 바친다. 부디 천상에서 하느님의
자비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기도드린다.

7월 11일 금. 맑음

날씨가 덥다. 올 장마는 늦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산' 그림과 마주 앉았다. 페인팅
애니메이션은 이제 새로운 형상으로 변해 갈 것이다.
나는 새로 입주한 작가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
유배지에 나는 다시 올 것이다.

9월 2일 화. 맑음

이 유배지에서 나는 작업을 위해 매진했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에서 보냈다. 세상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며 늘 소란스러웠다. 유배지 밖의 세상은
아귀다툼이었다. 나는 그 아귀다툼 속에서 벌어지는
정의롭지 않은, 악다구니 같은, 절망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무수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보았다. 나의
작업을 막았으며, 저지시키고, 그 의미를 처절하게
무의미화 시켰던 사건은 세월호의 침몰이었다. 수많은
고귀한 생명이 눈앞에서 사라져갔던, 극한의 고통과
분노와 절규가 들끓어 올랐던, 그리고 그 절절한
비극의 진실이 드러나지 못한 채 왜곡되고 조롱당하며
무시되어가는 이 처절한 현실이 다시금 나의 작업의
동력이 되게 하였다. 많은 날들을 나는 방황 했지만,
많은 날들을 그것에 집중했다. 나는 나의 작업을 통해
조용하고 나지막하게 그러나 통렬하게 세상에 대해,
세상을 향해 외친다.

10월 4일 토. 바람이 봄

작업이 다 끝나고 책도 만들었다. 전시는 10일
시작이다. 가을이다. 오늘 바람이 분다. 시간이 흐른다.

10월 14일 화. 맑음

맑고 서늘한 가을이다.

10월 16일 목. 맑음

여름에, 봄에 김민기의 노래는 끈적끈적했다. 지금
가을에 그의 노래는 서걱서걱하다. 여름에, 봄에 그의
노래는 내 몸에 감겨왔다. 가을에, 지금 가을에 그의
노래는 멀리서 온다.

10월 20일 월. 비

『밀도, 부피, 시간』의 전시가 끝났다. 나는 나의 작업을
작업실로 옮겼다. 비가 서늘하게 내린다.

January 21, Tues. Sunny
Cold weather with a heavy snowfall yesterday. The roads are frozen. I am preparing for my work at MMCA Residency Changdong. I installed the camera, and settings for the drawing and painting animation are complete. The place of exile is quiet. Slowly, I will stroll about this place of exile.

March 10, Mon. Dawn
The Gureombi's form has gone to pieces. Its mere essence is revealed. I did not draw the Gureombi's form. The Gureombi is inscrutably hidden. Will I reach its essence?

April 5, Sat. Dawn
Yesterday at dawn, I finished my work on the Gureombi. After a long, long journey, I have finally returned. I am not happy or sad, relieved or dispirited. I simply finished the Gureombi. I finished the long journey. Other unfinished journeys shall begin. So there was no initial beginning or end. There was just the Gureombi at that place, and I went a long way around to visit it briefly.

April 10, Thurs. Dawn
My work must be desperate at all times. I spent the entire Wednesday yesterday shamelessly at play. All I did was take some pictures around the studio and cover a canvas with charcoal. Spring has arrived. It is a restless spring.

April 16, Wed. Dawn
I began working on a mountain. How it will proceed, I do not yet know.

April 18, Fri. Dawn
The day before yesterday, the large passenger ship Sewol capsized off the coast of Jindo Island. Countless, precious lives... How could one relate it in speech or writing? Ah!

April 25, Fri. Dawn
An incident never to recur in my life, the sinking of the Sewol made me unfit for work. The grief, the rage of sorrow and powerlessness over the inability to help poor, wretched souls. It hurts as if gouging out your heart. It hurts.

May 8, Thurs. Dawn, rain
I completed Episode VII. It took long. For awhile after the sinking of the Sewol, I could not work. Episode VII is that very story. I dedicate Episode VII to those youthful, young souls who perished so grievously. I pray they will live on in God's merciful world of the heavens.

July 11, Fri. Sunny
The weather is hot. This year's monsoon is delayed. It has yet to begin. I am sitting across my painting Mountain. Painting animation will now change into new forms. I begin afresh with the attitude of a new resident artist. I shall return to the place of exile.

September 2, Tues. Sunny
At this place of exile, I strove to work. Almost every single day, I spent here. Many events occurred in the world, which was always a stir. The world outside this exile was full of bickering. I saw within the bickering countless crowds of people who were unjust, brawling, despairing, falling into bottomless pits.

The sinking of the Sewol was the event that blocked, hindered my work, and rendered it meaningless. The horrible reality of the countless, precious lives that vanished before our eyes, the uproar of extreme pain, rage, and outcry, and the wrenching tragedy's truth left unrevealed, distorted, ridiculed, and neglected—the event once again allowed this reality to become the power motivating my work. Many days I wandered, yet many days I concentrated on this. Through my work, I cry out quietly in undertones yet also bitterly about the world, towards the world.

October 4, Sat. Wind
The work is finished and a book is made. The exhibition opens on the 10th. It is fall. Today there is wind. Time goes by.

October 14, Tues. Sunny
It is a clear, chilly fall.

October 16, Thurs. Sunny
In summer and spring, Kim Min-ki's songs felt sticky. Now that it's fall, his songs are crisp. In summer and spring, his songs wrapped themselves around my body. In fall, this fall, his songs come from afar.

October 20, Mon. Rain
The exhibition *Density, Volume, and Time* has ended. I transferred my work to the studio. The rain falls with a chill.



에피소드 VI, 2014, 드로잉 애니메이션, 3분 55초
Episode VI, 2014, Drawing animation, 3'55"

에피소드 VII, 2014, 드로잉 애니메이션, 3분 55초
Episode VII, 2014, Drawing animation, 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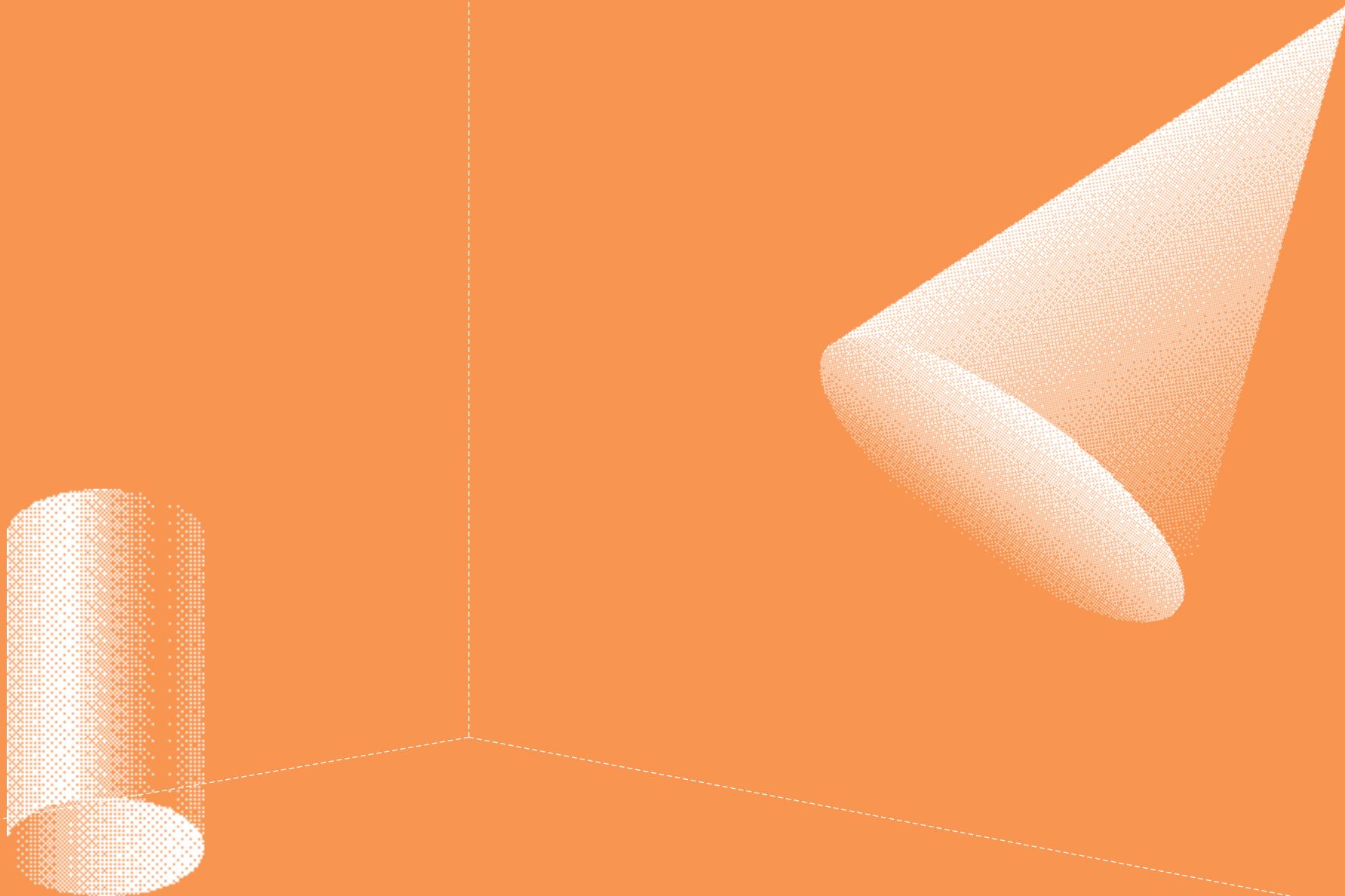


구름비, 2014, 페인팅 애니메이션, 2분 10초
Gureombi, 2014, Painting animation, 2'10"

끌나지 않은 이야기, 2014, 페인팅 애니메이션, 2분 30초
Unfinished Story, 2014, Painting animation, 2'30"

국제일반입주
프로그램

INTERNATIONAL ARTISTS
RESIDENCY PROGRAM



길을 잃다

베를린-헬싱키-서울, 도착해서, 밤아들이고, 이해하고, 버스 안에서, 건물들, 거대한 건물들, 끝없이, 높이 쌓여, 지평선 없이, 간혹 사이에 산을 두고, 산, 산, 산, 그리고 다시 지평선 없이, 모두 쌓여, 짓눌린 듯, 높게 또한 넓게, 70년대 공상 과학 소설처럼, 내 밭은, 낯선 세상을 딛고, 다시 버스 안에서, 사물에 익숙해지고, 도로와 공간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밖으로 달아나고, 내 주변이 익숙해져, 폴리스티렌 상자들을, 도처에서, 모으기 시작했지, 매일 밤 나가지, 모으고, 모으고, 그리고는 쌓아 올려, 상자 위에 상자 위에 상자, 높게 또한 넓게, 사이 공간 없이, 지평선 없이, 늘 잠도 없이, 허다한 상자만큼 잠 못 이룬 밤, 모눈종이에 십자가를 그리기 시작했지, 상자에 상자에 상자, 상자들로 가득 차고, 용지가 가득 차고, 십자가들, 십자가들이 대량으로, 용지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거리에서, 도시에서, 지붕 위에서 의기양양 빛나네, 붉은빛, 초록빛, 노란빛,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리고 아침 이슬, 허다하게 지새운 밤에 지쳐 드디어 잠을 청하네.

Lost

Berlin-Helsinki-Seoul, arrived, absorbing, apprehending, in the bus, buildings, massive buildings, no end, they are piled high, no horizon, and now and then mountains in between, mountains, mountains, mountains, and then again no horizon, all piled up, it seems squashed, in height and also in breadth, science fiction from the 70s I think, find my feet, in an unfamiliar world, back in the bus, things become familiar, paths and places, at night not being able to sleep, escaping outside, my surroundings become familiar, polystyrene boxes, everywhere, I begin to collect them, everynight going out, collecting, collecting, and then piling up, box on box on box, in the height and in the breadth, no space in between, no horizon, always sleepless, so many boxes as sleepless nights, begin drawing crosses on millimeter graph paper, box by box by box, boxes fill up, pages fill up, crosses, crosses en masse, not only on the paper, they are everywhere, in the street, in the city, glowing exalted over the roofs, red, green, yellow, crosses, crosses, crosses, and then the morning dew, exhausted from too many sleepless nights and finally sleep.



“우리 인간이 기껏해야 상상할 수 있는 무한성은 우리의 유한성으로 측정되기에 오직 무한하고-유한할 수 밖에 없다.” — 로마서

“Unendlichkeit, die wir Menschen uns allenfalls zu erdenken vermögen, ist gemessen an unserer Endlichkeit und also selbst nur unendliche — Endlichkeit”

Infinite – Finitude, 2014, 길에서 발견한 교회 의자, 종이 공룡, 프로젝션, 230x400x600cm
Infinite – Finitude, 2014, Found pew, paper dinosaur, projection, 230x400x600cm



Sinking in the middle of hope, 2014, 폴리스티렌 박스,
240x700x700cm
Sinking in the middle of hope, 2014, Polystyrene boxes,
240x700x700cm



Sleepless, 2014, 모눈종이에 연필, 18x26x(3)cm
Sleepless, 2014, Pencil on millimeter graph paper, 18x26x(3)cm
Ship for Ulsan, 2014, 길에서 발견한 가구, 155x85x485cm
Ship for Ulsan, 2014, Found furniture, 155x85x485cm

<프로젝트 T 002> — 소수에 의한 결정 —

적어도 뛰어난 사람은 소수다. 이는 그 사람이 뛰어나다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에 그 사람이 다수라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다 (뛰어나지 않다는 뜻이다).

나는 입주 규정상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에 아무것도 남길 수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레지던지 천장 일부의 문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천장 일부를 수리함으로써 메시지를 남기고자 했다. 창동레지던시와 나는 내가 그 천장 일부를 수리하는데 동의했다. 양쪽 모두 그 천장 일부가 예술작품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창동레지던시는 그 천장을 시설의 일부로 간직한다. 나는 다음 문장과 함께 현재 가장 중요한 한국 예술가의 이름을 천장 반대편에 적었다. "현재 가장 중요한 한국 예술가는 소수에 의해 결정되었다."

나는 창동레지던시에서 6개월간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6개월은 마라톤과도 같았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내게 장거리를 뛰어볼 기회를 주었다. 나는 전력을 다해서 수많은 도로를 즐겼다. 나는 무수한 풍경과 상황을 보고 또 경험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장거리를 뛸 자신감을 얻었고,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project T 002 – decision by minorit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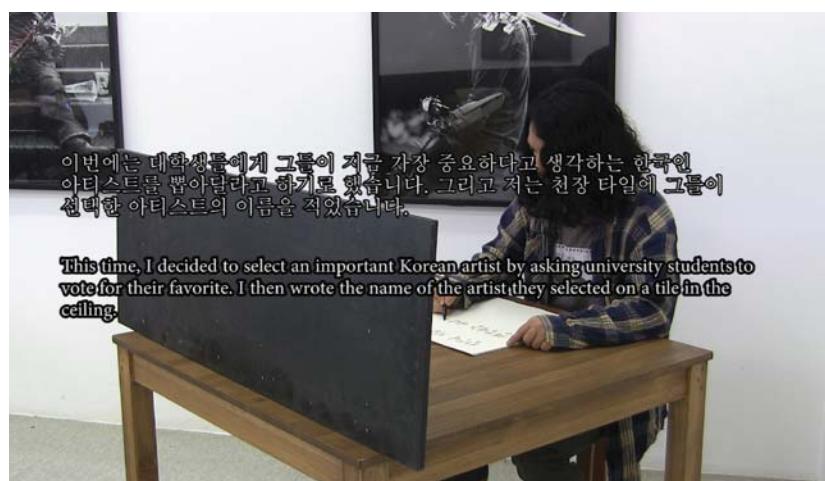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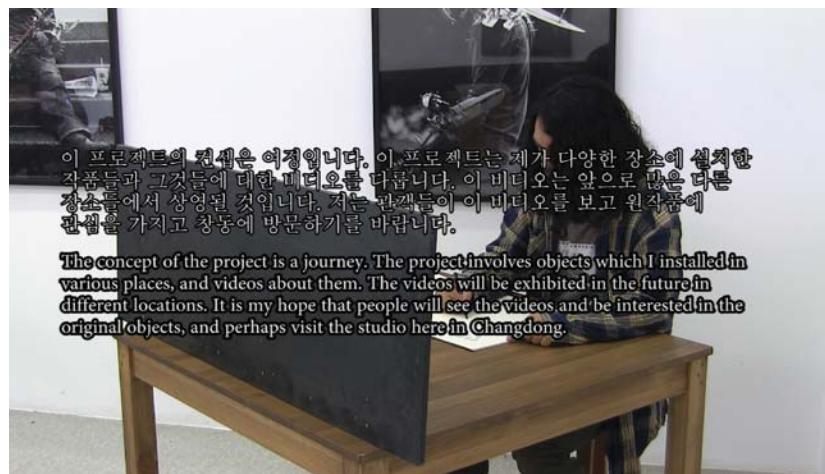
At least, an excellent person is minority. That's why, the person is called excellent. If the person is majority, the person is ordinary person (not excell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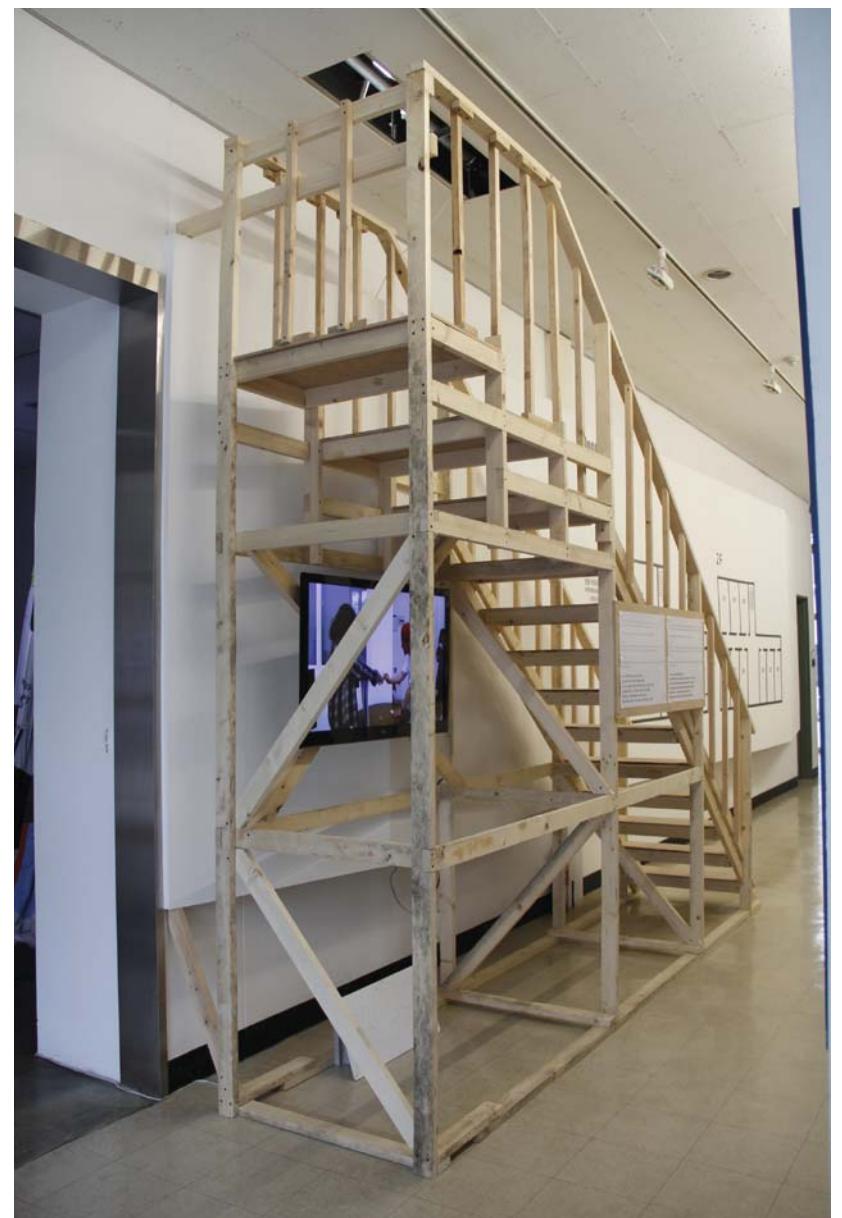
I can't leave anything at MMCA Residency Changdong by residency regulation.

One day, I found the part of ceiling that was different pattern in this residency. So, I tried to leave message by repairing the part of ceiling. I and MMCA Residency Changdong agreed that I repaired the part of ceiling. Both sides don't allow the part of ceiling is an art work. MMCA Residency Changdong keeps the part of ceiling as a part of facility. I wrote the following sentence and the name of most important Korean artist at the moment on the reverse side of ceiling. "The most important Korean artist at the moment was decided by minority."

I participated in 6-month residency program at MMCA Residency Changdong. This 6-month was like a full marathon. And this program gave me chance that I tried to run long distance. I enjoyed many kinds of road with full force. I saw many kinds of scenery and experienced many kinds of situation. I got confidence for running long distance by this program. Also I recognized my issues. I'm able to step forward from now.

Deep gratitude.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도시는 지속적인 변화의 한 가운데 있다. 서울을 걷노라면 이상한 나라의 앤리스가 된 기분이다. 한국의 전통, 수입된 삶의 방식, 고통스러운 역사와 굉장한 문화에서 지각된 현실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본다.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느끼는 순간, 새로운 사건들이 펼쳐지고 나를 더욱 더 미지의 세계로 끌어들인다. 이 도시의 좋은 점이다.

책가방을 메고 도시를 걷는다. 책가방 안에는 다음의 물건들이 들어있다: 1. 아크릴과 유화 물감, 2. 붓 몇 개, 3. 직접 만든 캔버스 하나, 4. 물을 담은 병, 5. 청소용 천, 6. 팔레트, 7. 카메라, 8. 삼각대. 나는 나무를 그린다. 나에게 말을 거는 나무를 찾을 때까지 도시를 걷다가 앉아서 그린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관찰하거나 나에게 말을 건넨다. 또 어떤 때는 간식이나 음료를 권하기도 한다. 또는 내 그림을 보고 나무와 그 주변을 훑깃 본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난 행복하다. 이런 만남이야말로 가장 큰, 완성된 그림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 나는 한 명의 관광객이지만 나의 행위를 통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사진 찍히고, 하나의 관광거리로서 이상한 방식으로 장소와 풍경의 일부가 된다.

마침내 나의 도서관을 나무 그림들로 채웠다. 이 도서관은 지속적인 변화 한 가운데 있는 도시의 임시적 상태를 목격하는, 혹은 그 가운데 있는 “임시 이방인”의 정신 상태를 목격하는 나무들 혹은 그러한 상황들의 도서관으로 개인적 메모의 도서관이자 일기라도 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자료 수집가의 작업과 유사하다. 카메라를 든 사람. 카메라는 모든 것을 목격하지만, 판단하지 않는다. 카메라 뒤 사람은 모든 것-인생의 아름다움 그 자체-을, 조화와 혼란, 섬세함과 허풍, 가볍거나 비극적인 상황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그리는 나무들도 이 모든 것을 비슷한 방법으로 목격할지도 모른다.

Everything changes. This city is in constant change. Walking through Seoul feels for me like Alice discovering Wonderland. Trying to understand the reasons for perceived reality, reasons coming from people's traditions, imported way of life, tormented history and incredible culture. In a moment when I feel I start to understand, new events unravel, they drag me deeper, deeper into the unknown. That's the beauty of it.

I walk through the city with a backpack. Backpack contains: 1. acrylic and oil paint, 2. brushes, 3. one canvas stretched on handmade wooden frame, 4. bottle with water, 5. textile fabric for cleaning, 6. palette, 7. camera, 8. tripod. I paint trees. I walk through the city until I find the tree that speaks to me, then I sit down and paint. Sometimes people observe me, or talk to me. Sometimes they offer me snack or drink. Sometimes, after looking at my painting, they give a glance at the tree and its surroundings. When any of this happens, I am happy. It's these encounters that have biggest value, bigger than a finished painting. I am a tourist, but through my activity I become an object of interest, I am being photographed, therefore I become a tourist attraction and in a strange way I become part of the place and scenery.

At the end there are paintings of trees in a library. A library of trees, or situations, a library of personal notes, a diary, witnessing temporary state of a city in constant change, or witnessing a state of mind of a “temporary stranger” in it.

All this process is similar to the work of a documentarist. Man with a movie camera. The camera witness everything, the camera doesn't judge. The man behind camera passionately embraces everything – the life in its beauty as it is – the harmony and the chaos, the fragile and the pompous, light and tragic situations. The trees I paint might witness it in a similar way.



The Library, 2014, 나무, 천, 조명, 대나무, 커튼, 천 위에 아크릴 및 유화 36점, 250x270x300cm

The Library, 2014, Wood, fabrics, lamp, bamboo, curtain, 36 paintings acrylics and oil on fabrics, 250x270x300cm

회화-책 (각각 약 30x40cm). 각 그림의 뒷면에는 그림이 그려진 시간과 장소와 관련된 짧은 이야기들이 적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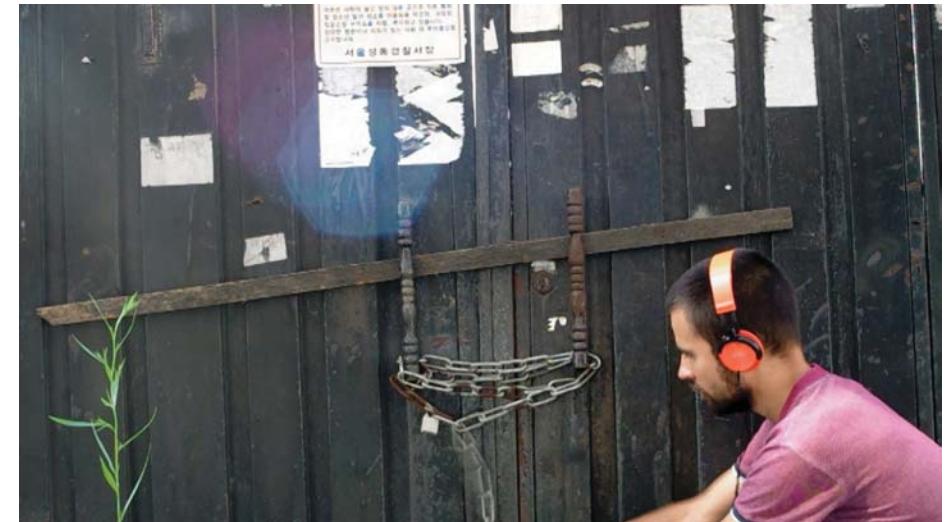
Selection of paintings-books (approx. 30x40cm each). Each one has a little story about time and space when and where it was created written on its back.

금호동을 위한 노래

<금호동을 위한 노래>는 현장에서 장소와 상황에 대한 즉흥적 반응을 녹음하는 즉흥 연주 시리즈 중 하나이다. 마치 온 동네가 커다란 악기인 것처럼, 금호동에서 나는 기타뿐만 아니라 대문, 우편함, 그밖에 다른 물건들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러한 물건들이 잃어버린 기능을 임시적으로 돌려주고, 이 유령 도시에 평범한 소리를 되찾아주려는 시도였다.

the song for geumho dong

Song for Geumho-Dong is one from the series of improvised concerts that are recorded on site as spontaneous reaction towards the place and the situation. In Geumho-Dong, besides playing guitar, I started to play the doors, the post boxes and other objects, as if the whole neighborhood was one large instrument. It was an attempt to temporarily return a lost function to these things and bring the sound of ordinary back to the ghost town.



창동레지던시는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천식 호흡기를 쓰며 창동을 떠올린다. 새로 산 긴급 회복 호흡기를 사용할 때마다 왜 이것을 구입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

레지던시를 위한 계획은 많았다.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프로젝트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해왔고, 그 중 힘겨운 곳도 있었지만 창동에서의 경험은 달랐다. 처음으로 국립 레지던시에 6개월간 머물게 되었을 때 너무나 설레었다.

유감스럽게도 이웃 작가의 실내 레진 작업 냄새로 피해를 보았다. 그는 며칠간의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반면, 나는 이곳에 남아서 잠을 자야 했다. 책임자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상황은 불가피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봤을 때 책임자의 눈을 보며 응급실에 보내달라고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다행이 고려대학병원을 찾아갔지만 냄새에 몇 차례 노출된 결과로 인해 폐에 무리가 간 상태였다.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이야기 할 때 목소리가 변한 것을 느낀다. 폐에 무리가 가서 그렇다.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힘겹다. 창동레지던시에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결과를 매일 감수해야 한다.

MMCA Residency changdong changed my life. Every morning and evening when I user my asthma inhaler I remember changdong. Every time I use my new emergency relief inhaler I know why I got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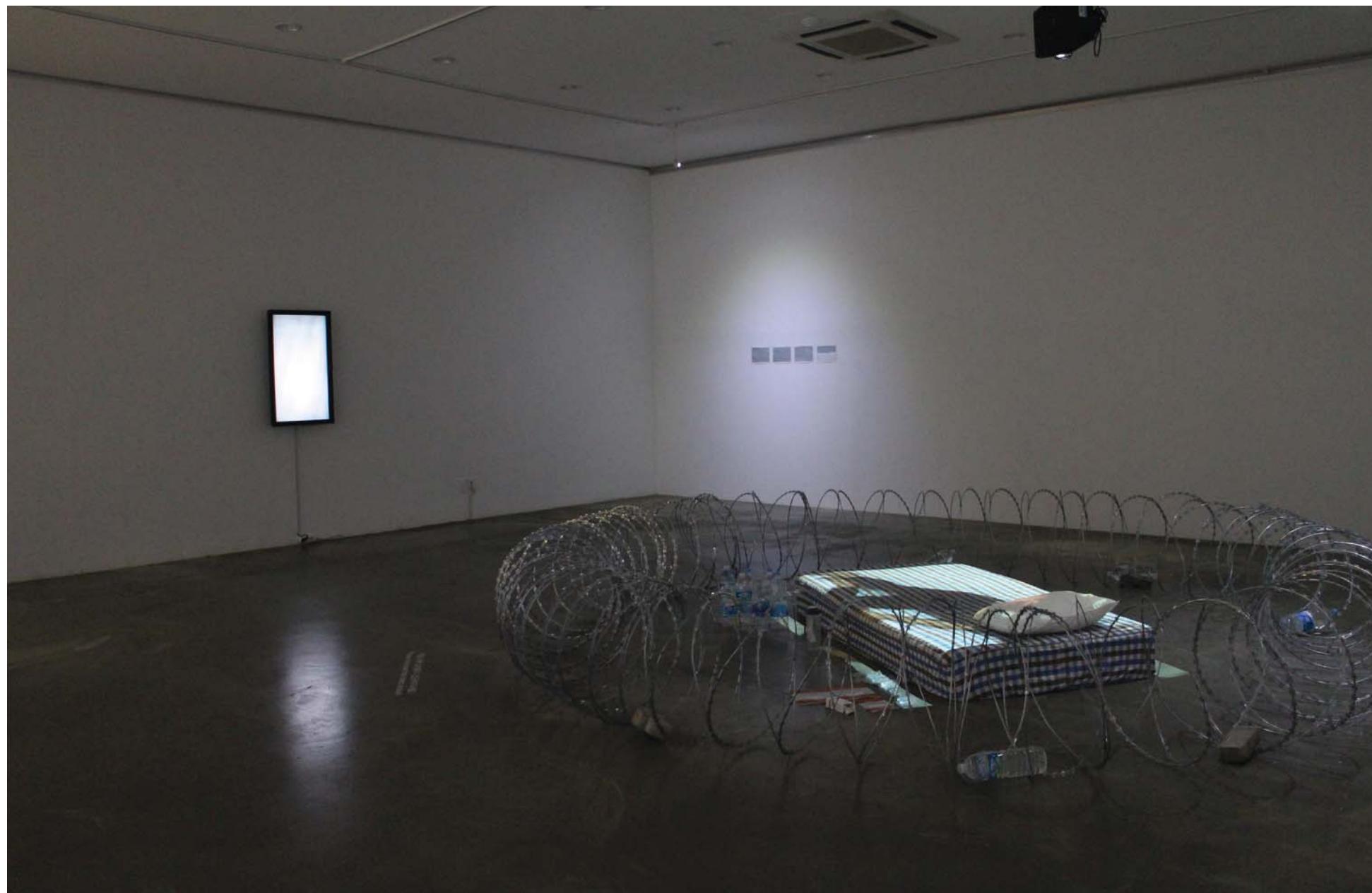
I had so many plans to do during my residency. I have done projects and residencies around the world. Some in very tough places. Yet I have never faced the thing I had to in changdong. First time a 6-month residency in a national residency. I was so excited!

Sadly I was poisoned by a neighboring artist who was using epoxy resin indoors. After he finished the days casting he would go home and I had to stay there and sleep there. No matter how much I begged the director she did nothing to help me.

Last time I was poisoned I looked her in the eye and begged her to help me get to the emergency room. She looked me in the eye and refused to help. I was lucky to find my way to a hospital, Korea university hospital. However sadly it was late as the long multiple exposure has left me with permanent damage to my lu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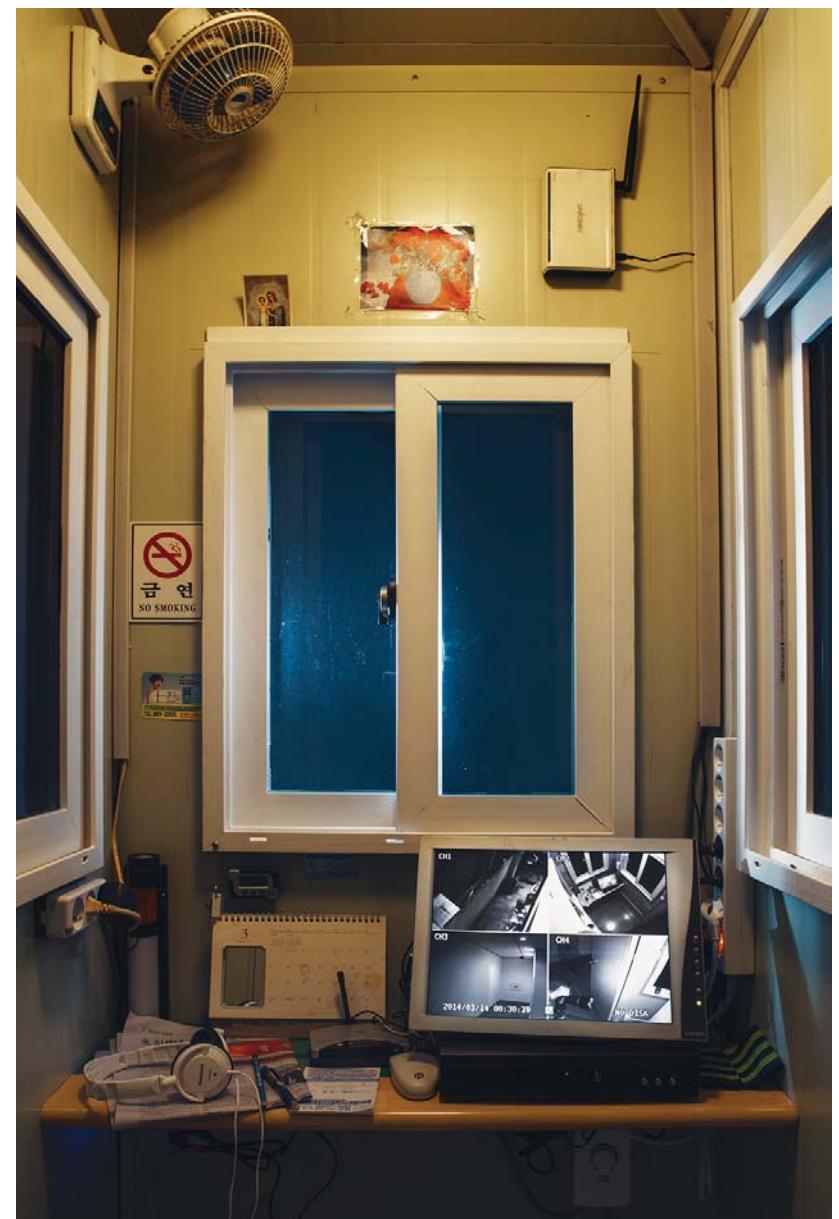
When I talk on the phone or in person my voice now sounds different. It's the damage to the lungs. But not being able to work is the hardest part. I wish MMCA would have done something to help but they did not and I have to live with it every day.





나는 이스라엘의 안보와 위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공적 공간이 점거되어 사적 공간으로 변모하고, 영토의 연결 지점들이 경계를 만들어 정치가 형태와 규칙으로 변형되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주변을 드러나게 하는 작은 자율지대를 만들어 내는 경비초소는 나의 관심을 끌었다. 3개월간의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나로 하여금 이러한 현상을 더 넓은 범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나는 고향에서의 기억을 살리는 한편, 한국 현지 재료를 사용해서 혼종성을 만들어내는 경비초소를 내 스튜디오에 만들기로 결심했다. 이 초소는 곁에서 보면 안정감, 권위, 위압감을 전달하지만 내부는 사적인 공간으로 작동한다. 또한 관람자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I started my research on security and insecurity in Israel, focusing on public space being occupied and becoming private places, connection points of territories forming into borders and politics transforming into shapes and roles. I was very interested in security booths as they created small autonomous zones that project on their surroundings. Coming to Seoul for the three months residency program in MMCA Residency Changdong helped me grasp the bigger scale of the phenomenon. I decided to build a security booth in my studio, based on memories from home and by using local materials, creating hybridization. From the outside, the booth transmits a sense of security, authority and threat, but inside it functions as a private room. The viewer is invited to enter.



T.A.Z - temporary autonomous zone, 2014, 설치,
100x100x200cm

T.A.Z - temporary autonomous zone, 2014,
Installation, 100x100x200cm



나의 작업은 관람이라는 신체적인 경험에 의해 야기된다. 나는 이미지를 경험할 때 어떻게 정신과 육체가 통합되는지에 관심이 있다.

설치물은 2차원의 표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하학적 원근법과 추상적인 형태를 이용해 실재하는 벽 너머로 들어가는 듯한 출입문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2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간을 그리거나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읽어내는지 다루는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설치에서 벽을 이용할 때는 단순한 눈속임을 요구하지 않고 착시를 뛰어 넘어야만 한다. 나는 관람자가 가상의 공간에서의 경험을 체득하길 원한다.

My work resides in rather physical experience of viewing. I'm interested in how mind and body synchronize in experiencing the images.

The installations are on a two dimensional surface but they are not two dimensional in a sense that I use geometric perspective and abstract shapes to create a gate, a portal to enter, to go beyond an existing wall. There are various ways of portraying space, and dealing with how our mind reads the space. With the installations, there has to be a way to use the walls where the eyes are not just asking for simple optical trick and go beyond simple illusion. I want the viewer to take with him/her the experience of an imaginary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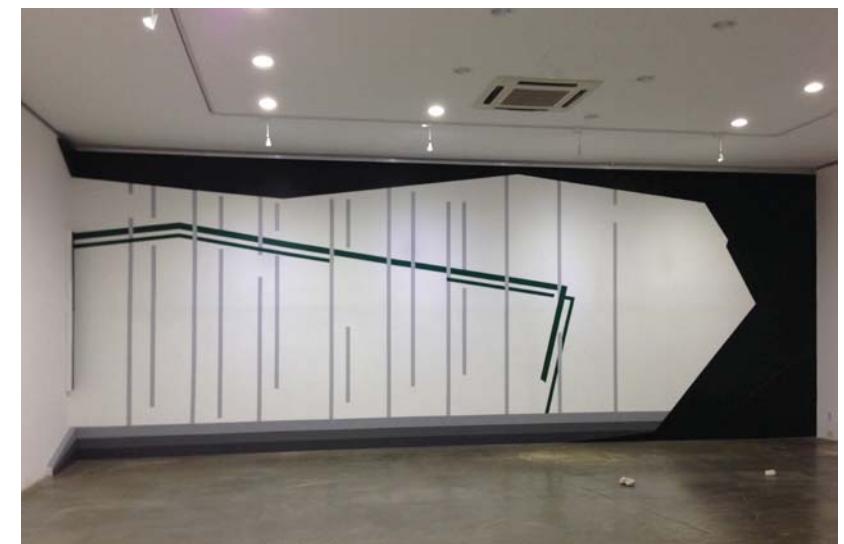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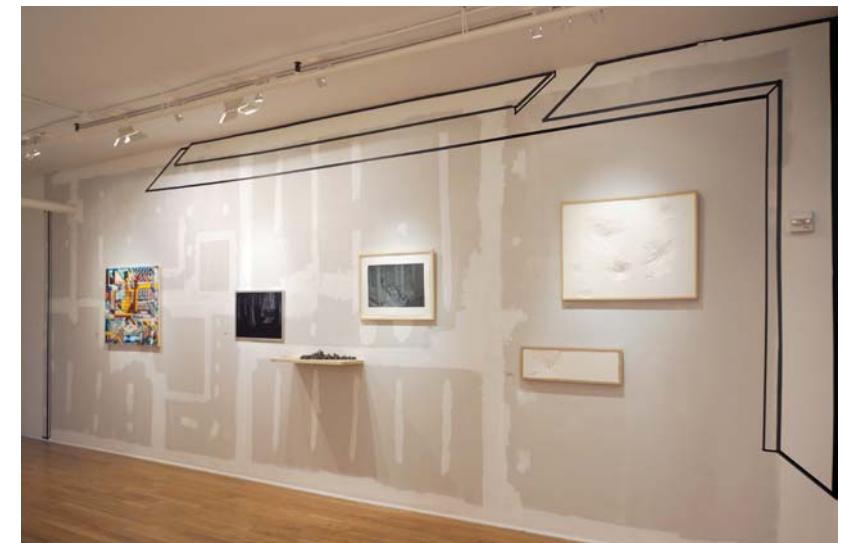


White Frames, 2014, 유리에 시트지, 240x200cm
White Frames, 2014, Vinyl sheet on glass, 240x200cm



Sunken, 2014, 벽에 페인트, 테이프, 캔버스, 335x420cm
Sunken, 2014, Paint, tape, and canvas on wall, 335x420cm

Proscenium (untaped), 벽에 페인트, 368x600cm
Proscenium (untaped), Paint on wall, 368x600cm



Drywall, 2012, 벽에 페인트, 테이프, 304x550cm
Drywall, 2012, Paint and tape on wall, 304x550cm

How Deep Is Your Love, 2014, 벽에 시트지, 370x940cm
How Deep Is Your Love, 2014, Vinyl sheet on wall, 370x940cm

크리스티앙 로흐는 다감각적 전략을 통해 상황을 연출하여 내용의 분열과 결핍으로 수용력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데 관심을 둔다. 그가 작품을 접근하는 방식은 시청각적 작용을 설계하는 개념에 기초하며, 이 중 일부는 기존의 실내 상황을 구체적으로 참조한다. 이러한 방법론 이외에도 로흐는 내부와 외부 공간에 일어나는 소리의 개입을 기반으로 공간적 조건에 대한 해석을 보여준다.

Christian Lohre is interested in staging positions with multi-sensory strategies that allow content fractures / voids to provoke receptive shifts. His work approach is based on ideas in which he designs audiovisual operations, some of them specifically refer to found room situations. Beside this method, he develops interpretations of spatial conditions in terms of acoustic interventions in internal and outside space.



perplexity, 2014, 라면봉투, 비닐봉투, 쓰레기봉투, 담배봉투, 과자봉투, 김치봉투, 긴장, 300x1500cm
perplexity, 2014, Noodle soup bags, plastic bags, trash bags, cigarette bags, chip bags, kimchi bags, dripping soy sauce, 300x1500cm



ume, 2014, 검정테이프, 모터, 15x2x300cm
ume, 2014, Black tape, motor, 15x2x300cm

질문1. 당신의 작업에서 소리가 차지하는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당신의 소리는 그 자체를 나타내거나 조형물과 결합하기 때문에 묘사나 예증과는 다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소리란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또는 창동)에 대한 인상을 소리와 관련해서 더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존 케이지는 “소리는 행동하며 나는 소리의 행동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케이지주의자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생각입니다. 어떤 원칙에 의해 소리에 집중하지 않지요. 그저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에게 서울, 특히 창동시장은 거대한 곳으로 완전히 새로운 놀이터였습니다. 이 지역의 음향 주파수는 마치 고유의 음색과 성격을 지닌 채 끊임없이 변하는 효과 장치 같았습니다.

질문2. 당신에게 소리란 무엇이며 그것이 당신의 소리에 대한 개념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아직 확실치 않고, 영영 확신이 없겠지요!

질문3. 서울(창동)에서 가장 좋았던 소리는 무엇인가요?

창동의 인공 개천에서 마른 잎사귀 하나가 콘크리트에 떨어지는 소리였죠. 불시에 이 자그마한 움직임이 시간상에 완전히 놓였고, 모든 것이 그 하나의 순간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적으로 정적을 확장시켰죠.

질문4. 창동레지던시 입주기간 동안 라면 봉지 묶음, 간장, 고무 대야, 길거리 장난감과 버려진 여행 가방을 포함한 한국 문화의 일상 생활용품을 사용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이러한 물건과 경험에 비추어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 모든 것이 서울에서 느낀 혼란의 일부겠죠. 저는 장난감과 물건들을 무척 좋아해서 그런 물건들이 놀이에 대한 저의 접근을 더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입주 후 처음 몇 주간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치 자폐증 환자처럼 온갖 종류의 라면을 먹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 압축 상태의 아시아의 맛을 향한 저의 유토피아적 욕망의 다양한 잔상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질문5. 창동 지역이나 서울에 대한 인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인가요?

혼란.

Q1. In your practice sound has been quite important part. To me your sound which stands for its own or combined with sculptural piece is neither description nor illustration. Would you tell me more about what is sound to you and your impression of Seoul (or Changdong) in relation to the aspects of sound.

John Cage once said “Sound is acting and I love the activity of sound.” I am not a Cageanian, but i feel the same. I do not follow a principle to primarily be focused on sound, it just happens. To me Seoul and especially Changdong old market was a huge, totally new playground. The sound frequencies around this area had been like a constantly changing effect machine with its specific timbres and characters.

Q2. What is sound to you can it be replaced with what the notion of sound means to you.

I am not sure yet, and i will never be!

Q3. What was your favorite sound in Seoul (Changdong)?

A single withered leaf touching concrete at the artificial stream in Changdong. All of the sudden this tiny motion was released completely out of time and everything felt into this single moment. it amplified silence with silence.

Q4. During your residency in Changdong you used the everydaylife goods in korean culture such as noodle packages, gallons of soy sauce, rubber basin, street toys and abandoned suitcase. Could you explain more about your ideas in relation to these objects and your experiences?

This was all part of being perplexed in Seoul i guess and i really love toys and goods, so therefore those things enriched my approach to play furthermore. During the first weeks of my stay for example i recognised that i was eating all kinds of instant noodles in an autistic behaviour almost every day. so i decided to create a piece that evoked various afterimages of my utopian desire for permanently compressed availability of asian taste.

Q5. If you could condense your impression of Changdong areas or the city of seoul into one word what would it be?

Perplexity

봉선화

울 밑에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 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어언간에 여름가고 가을바람 솔솔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낙화로다 늙어졌다 네 모양이 처량하다

북풍 한설 찬바람에 네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 있으니
화창스런 봄바람에 환생키를 바라노라

touch me not

A touch-me-not under the fence, you look fallen
In the long summer days of beautiful blooms
Pretty maidens delighted in your beauty

Soon summer passes and autumn wind blows
Harsh wind gusts ravaging your tender blooms
Standing violated and wilted you look fallen

Though you may perish in cold wind and snow
Your spirit remains here longing for peace
To come alive again in warm spring breeze



aller / retour: day recedes to dark, 2014,
종이, 나무, 나일론, 점토, 200x800x155cm
aller / retour: day recedes to dark, 2014, Paper,
wood, nylon, clay, 200x800x155cm



aller / retour: touch me not, 2014, 신문, 사운드 레코딩
(음악: 봉선화, 노래: 김천애, 피리: 제이 아프리산도), 3분,
30분에 1회 재생
aller / retour: touch me not, 2014, Newspaper, sound
recording (the song 봉선화 by KIM Cheon-Ae played on a
piri flute by Jay Afrisando), 3' played each 30'

aller / retour : annual white rose pink red dark-red mauve,
2014, 점토, 봉선화씨, 6x10x10cm
aller / retour : annual white rose pink red dark-red mauve,
2014, Clay, impatiens balsa mina seeds, 6x10x10cm



최근 작품들(<Small Bang>, 2014. <0>, 2014)에서 나는 순간, 영원, 공간이라는 개념을 설치 형태로 탐구한다. 빛과 연기를 사용해서 공간을 창조하고 연출하는 이 프로젝트는 인간뿐만 아니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의 움직이는 형체와 빛을 다룬다. 전시장의 받침대나 벽 안에 숨겨진 장치는 연기로 된 조각을 만들어내고,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서로 다른 형태의 조각을 포착하기 위해 전시장에 설치된 다양한 조명과 동시에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전시장을 돌아보는 관람자의 움직임에 의해 센서가 작동하면서 간결한 일련의 사건이 시작한다. 안개 장치부터 시작해서 연기를 밀어내는 작동 장치, 그리고 특정 시간마다 켜졌다가 꺼지면서 연기가 만들어내는 조각 형태를 포착하는 조명이 작동한다. 이 작품은 환경과 인간의 공생 관계를 탐구한다. 인간이 기계를 작동시키면 연기가 공간을 나누고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예를 들어 방의 온도와 습도) 설치를 주변의 움직이는 공기는 연기로 이뤄진 조각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침으로써 결과물을 이전과 조금씩 다르게 만든다. 장치에는 전시 연출이 1000분의 1초까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지만, 결과는 환경의 산물일 수밖에 없고, 만들어지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영원히 제약을 받는다.

나는 이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비슷한 동시에 다른,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은유로서 자연적인 리듬/주파수를 갖는 대상을 창조하기 원한다. 이 작품은 인간의 관점에서 본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환상과 현실의 간극을 이어준다.

My most recent works (*Small Bang*, 2014. 0, 2014) explore notions of transience, ethereality and space in the form of installation. I use light and smoke as material for my work to create and choreograph space. The project deals with light and body in motion, not necessarily that of a human, but of any moving objects in space. Machines hidden inside a gallery plinth or wall generate smoke sculptures, which are electronically synchronized with various spotlights placed in the gallery to freeze the transitory sculptures in its different forms.

The brief sequence of events is set off by motion sensors as the viewer explores the gallery spaces—from the activation of the fog machines, the actuators which push the smoke out, to the spotlights which are switched on and off at specific times to capture the sculptural forms of the smoke. The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 and the human is explored in this work. The human sets off the machine, the smoke in turn dissects the space, which creates the environment; but at the same time, the changing environment (such as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of the room), and the movement of the air surrounding the installation all have a collective effect on the shapes of the smoke sculptures generated, making them slightly different from the last. The choreography of events programmed into the machine is precise to the millisecond, but the results can only be a product of the environment, forever bound to the specific time and space which they were created.

Through the projects, I wish to create things which are simultaneously alike and different, and have a natural rhythm/frequency, as a metaphor for our everyday lives. The work embodies the notion of space and time from the human standpoint, while bridging the gap between fantasy and reality.



Small Bang, 2014, 조명, 스모그, 혼합재료, 가변크기
Small Bang, 2014, Light, smoke and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 2014.03.27 | 오전02:31 ~ 02:42
MMCA Residency Changdong | 2014.03.27 | 02:31 ~ 02:42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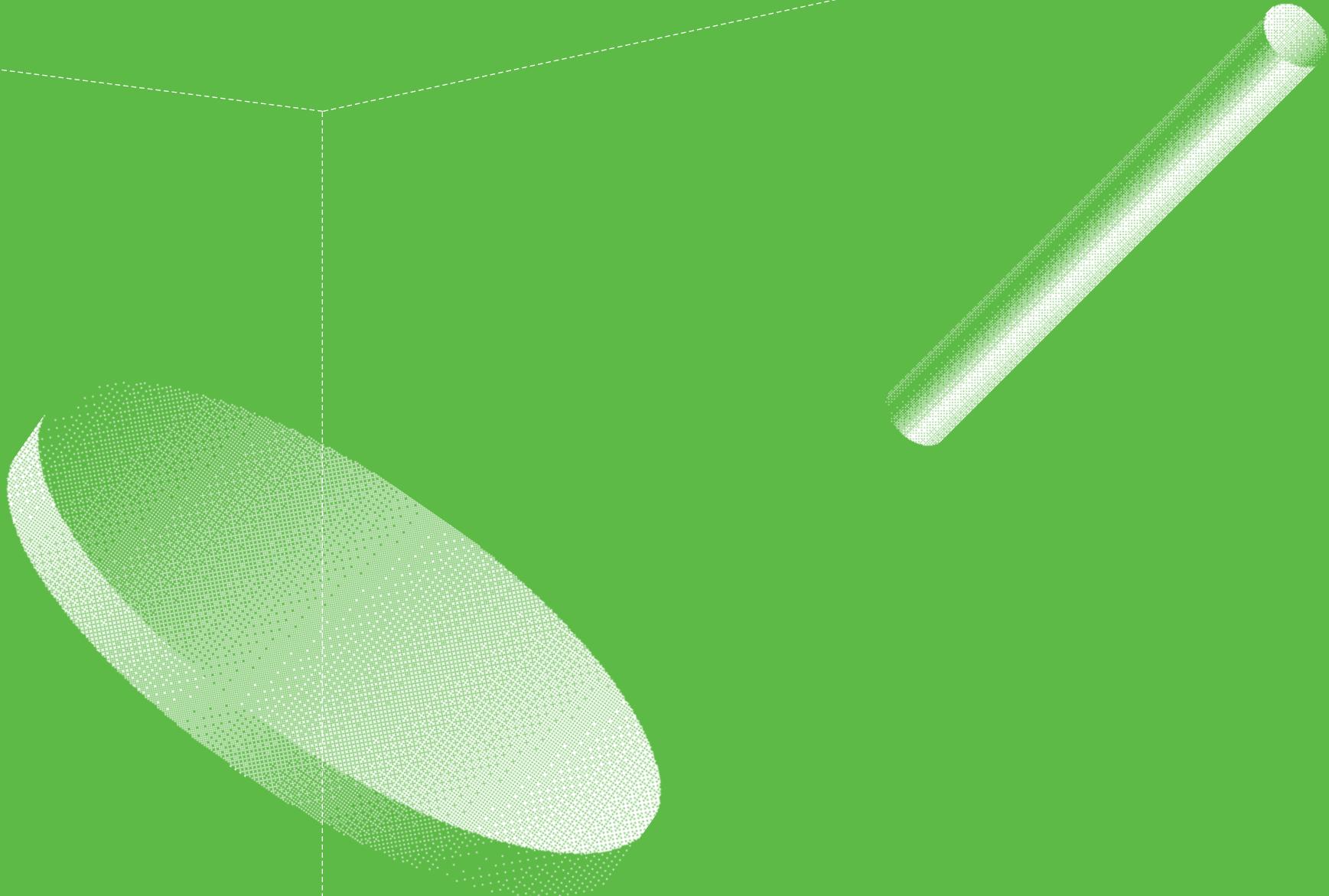


0, 2014, 조명, 스모그, 혼합재료, 가변크기
0, 2014, Light, smoke and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 2014.06.03 |
오전04:36, 오전05:06, 오후11:30
MMCA Residency Changdong | 2014.06.03 |
04:36am, 05:06am, 11:30pm

유네스코-아쉬버그
장학연수 프로그램

UNESCO-ASCHBERG
BURSARIES FOR ARTISTS
PROGRAMME



“딤”은 영어의 “이니, 미니, 마이니, 모”와 비슷한 광동어 동요의 첫 구절이다. <dim dim dim>은 5채널 비디오 설치물로 계속해서 재생되는 전세계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녹음된 동요와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끝나지 않은 여행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다. 어렸을 적에 우리는 무엇 하나를 선택을 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 동요를 사용하곤 했다. 고리 안에서 빙빙 돌고 빠져나가기 어렵다면, 그 다음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익 쵸우는 홍콩에서 자랐으며, 홍콩시립대학교 창작매체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으로 예술적 실험을 하고, 영화제작, 비디오 설치물, 뉴 미디어 아트 등을 자유롭게 활용한다. 핀란드 헬싱키에 소재한 알토 대학교에서 시각문화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동시대 예술 및 사회적 맥락과 환경에서 도구로서의 예술의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있다.

작가는 기존의 환경을 밝혀내고 재맥락화함으로써 새로운 서사적 환경과 접근을 만들어내며, 소유, 존재, 회상을 주제로 작업한다.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면서 거주하고 작업하고 있으며, 베를린 국제영화제와 로마 국제영화제에 초청받은 바 있다. 2014년 유네스코-아쉬버그 장학연수 프로그램 장학생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에 참가하였고, 핀란드 곳곳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전시에 참여하였다.

2014년 입 카이 춘과 함께 협력-전시 집단인 “케이스-오픈-클로스”(c-oc-c)를 시작했으며 홍콩, 핀란드, 프랑스, 오만, 한국 등지에서 신진 예술가들을 초청하고 있다.

“dim” is the beginning of nursery rhyme in Cantonese, like “eeny, meeny, miny, moe” in English, *dim dim dim* was a 5-channel video installation, consisted of nursery rhymes in different languages by recordings and moving images across different countries in a loop, questioned about the never ending journeys. When we were young, we always used the rhyme to pick the one, what a easiest way to make a choice. Whirling in a loop and hard to get out, what could be the next?

Chow Yik grew up in Hong Kong. She has studied her BA in School of Creative Media,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She experimented with different forms of moving images, indulged with filmmaking, video installation, new media art, etc. While studying in Aalto University (Helsinki, Finland), School of Art, Design and Architecture for her MA in Visual Culture, Yik flourished her life long appreciation towards contemporary and emerging artistic practices and understanding of the possibilities of art as a tool in social contexts and environments.

She identifies and re-contextualizes the existing environments, creating a new narrative environment and approaches. Her works revolve around the theatics of belonging, presence and recollection. She had been working and living between Europe and Asia. Her video works were selected in Berlin Talents in Berlinale and Film di Roma, as Laureate of UNESCO-Aschberg Bursaries for Artists Program 2014 at MMCA Residency Changdong. She has participated in different exhibitions across Finland.

Yik initiated a collaborative-curatorial collective “case-open-close (aka c-o-c)” with Yip Kai Chun in 2014 and now lining up emerging artists with their networks in Hong Kong, Finland, France, Oman and Korea, and among others.





먼 땅에 좌초한 우리 친구들

분리선 양쪽 적군에게 가는 전갈을 파괴하기 위한 방침으로 매년 300만 마리 새들이 국경을 넘어 날다가 죽임을 당한다. 이에 대항하는 조류들은 국경 둘레를 피해 멀리 우회한다. 철새 마을의 조류 대변인이 선언하기를, “국가는 사라져도 자연은 남는다.”

Our Stranded Friends in Distant Lands

3 million birds are killed each year, while flying across the border, in a measure aimed at destroying messages from reaching enemies on either side of the divide. To combat this, families of birds have been taking wide detours to avoid the circumference of the border. A spokesman for the families, speaking from the Village of Migratory Birds, declared; “Nations may fade, but nature remains.”



매일 밤 지붕 위에서 망원 렌즈를 북쪽으로 놓았다.
그곳에선 달이 다르게 보인다고 한다. 심지어 꽃조차
회색을 띠는 곳이다. 독립당 화면에서 지붕 위 움직임을
포착한다. 위성이 가까이 간다. 하늘로부터 작은
꾸러미가 배달되어 내 옆에 내려앉는다. 선물을 풀자 내
얼굴에 폭발한다.

On the roof each night, I pointed my telescopic lens to the north. The moon looks different from there, they say. Even the flowers there are grey. A monitor from the independent party clocks a movement on the roof. A satellite moves closer. A small package is delivered from the sky and floats down beside me. I open the present and it detonates in my face. The lens remains as I lay unblinking on the ground. A faint reflection of the moon catches in a mirror and bounces into the lens; series of searching flashes left unseen by my open eyes.



밤에 사색에 잠길 때가 있는가? 때로는 일을 후 해가 내 생각을 서서히 수분시키고 점차 순환하여 내가 감지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공포로 가득한 무언가에 고착된다. 열병이 나고 잠은 불쑥 일어났다 간다. 밤이 무한하게 느껴진다. 비록 내 자신의 일부는 알고 기다리지만, 해가 다시금 떠오를 거란 사실을 기억하기조차 힘들다. 지배하고 사색하고 열병에 시달리는 다른 일부는 당장 고통을 덜기 원한다. 종이로 된 블라인드를 밀어내고 창문을 열어 바람과 빗소리를 듣는다. 경미한 지진으로 방이 진동한다. 열병의 징후로 보기에는 너무 작아 걱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관통하는 떨림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마침내 죽음에 대해 사색할 시간이다. 나를 아기처럼 달래어 잠들게 할 생각들이다. 우리 어머니께서 나지막하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계시는 기분이다. 떠도는 생각이 삼층 위 열린 창문으로 향한다. 이제 이 글을 쓰고, 땀에 젖은 채 철도역 승강장에서 기다리니 정말이지 정상인의 느낌이다. 누군가 들려주어 내가 회상하는 이야기 같지만, 입안에 감도는 금속과도 같은 이상한 맛이 내가 이런 사고방식에서 갓 나왔음을, 이것은 불과 몇 시간 전 나의 이야기임을 일깨워준다.

며칠 지나서 조용한 시골 마을을 걷는데 열차 도착을 알리는 경보가 울린다. 공습 대피소 사이렌을 연상시키는 소리가 철도 건널목에 반짝거리며 줄지은 열차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도착하는 열차 앞에 서있는 상상을 해보며 혼자 미소 짓는다.

Do you ever ruminate in the night? Sometimes, after the sun sets, it begins to slowly pollinate my thoughts, become circular, fixating on something I can't fully perceive, but which I know is full of a sort of terror. A fever takes hold and sleep is only in bursts. The night feels endless. It is hard to remember that the sun will rise again, although part of me knows it will and waits. The other, dominating, ruminating, feverish part of me wants immediate relief. I slide back the paper blinds, open the windows and listen to the wind and rain. The room shakes with small earthquakes. Small enough to worry if they are a symptom of the fever, but you feel them shudder through your body all the same. It is then time to ruminate over death. The thoughts which will begin to lull me to sleep, like a baby. My mind wanders to the open window, three stories up.

Now, that I'm writing this, waiting on the train platform, sticky with sweat, I feel quite normal. It is as if I'm recalling a story someone once told to me, but a strange taste hangs in my mouth- perhaps it tastes of metal- letting me know I have only just stepped out of this mindset, that it is my story from just a few hours ago.

Some days later, as I walk through a quiet countryside town, an alarm sounds for the train's arrival. It recalls a bomb shelter siren, and is quite at odds with the shiny cars lining up at the railroad crossing. I think of standing in front of the train as it arrives, and smile to myself.

무제

이 작업은 한국의 도심과 시골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경험하는지 그 양상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는 작품에서 주체들이 도시의 특정한 공간에 대해 “건강에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사회적, 경제적으로 개발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치적으로 불리한지 아닌지”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양상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다. 평범한 것들을 바라보는 일은 때로 평범함 안에 있는 놀라움을 노출시킨다. 인물의 초상과 환경의 결합은 특정한 맥락에 기반을 둔 서사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관람자는 평범함 속에서 놀라움을 노출시키기 위해 평범한 것을 본다고 할 수 있다.

Untit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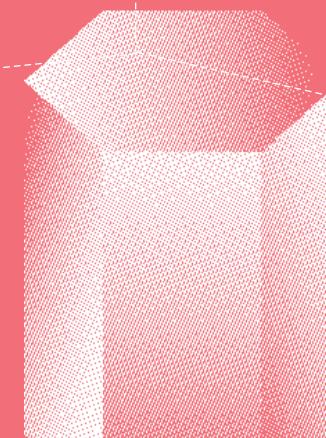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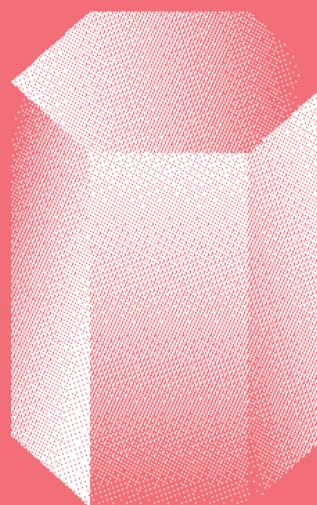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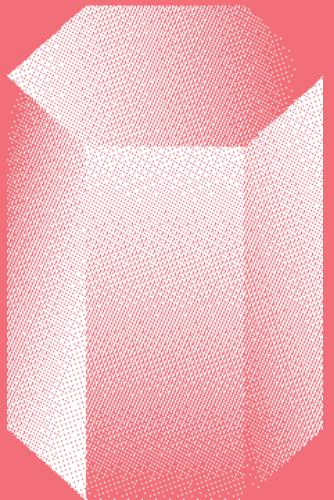
This work intends to gain an intimate knowledge of inner-city and the countryside areas of Korea as they are viewed and experienced by people living in these areas. In the works, I paid particular attention on how the subjects may perceive or represent certain spaces in their cities as “healthy or unhealthy”, “socially and economically developed or underdeveloped”, “political disadvantaged or not”. Looking at the ordinary often exposing the spectacular in the ordinary. The incorporation of portrait and environment is crucial in setting up contextual narratives, so that the viewer looks at the ordinary to expose the spectacular in the ordinary.





수교기념초청
프로그램

INTERNATIONAL ARTISTS
FELLOWSHIP PROGRAM



Drapery Project 2014

한국은 전세계에 기술, 최첨단 기기, 그리고 기계적인 생활로 알려져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 있었고, 내 주머니에 삼성 핸드폰을 넣고 다녔다. 네팔에서는 내면의 기쁨을 찾고 과거를 잊고 용서하는데 노력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예술은 나를 저버리지 않고 나의 가장 충직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 삶의 여정은 곧 과정이고 예술은 기쁨과 환희를 나누며 살아가는 과정이다. 예술은 정신과 인간 본능을 다루기 때문에 인간 없는 예술은 존재할 수 없다. 나의 모든 창조 과정은 이러한 일반적인 기준에 근거한다.

창동레지던시는 국제 예술가 공동체를 위해 세워진 아름답고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곳이었고, 나는 이곳에서 인터랙티브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었다. 이질적인 감정 상태들을 연결하려는 시도였다. <Drapery Project>야말로 나의 감수성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옷을 기증받기로 했다. 한 옷이 지닌 은유적 의미는 개인의 역사와 감정적 환경을 아름답게 연결한다는 데 있다. 지역사회를 예술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가까운 친구 수잔 치트라카르와 함께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친구들을 만나고, 예술가들의 공간과 대학을 방문하면서 의견을 교환하자 감수성이 고조되었다. 레지던시 직원들이 번역한 한글 포스터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얻는데 크게 기여했다. 다른 가능성을 지닌 여러 삶과 맞닿기 위해 필요한 협력이었다. 옷은 우리가 삶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는 제 2의 피부라고도 할 수 있다. 옷은 안전, 편안, 아름다움, 평온의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 나는 옷가지들을 훼매어 이어 붙이고 하나의 거대한 커튼을 제작해서 천장과 바닥, 우주적 공간과 영혼, 하늘과 땅, 하나님의 생명과 여러 생명을 연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얇은 실로 연결하려고 노력했다. 인간의 삶 또한 상호 공경, 사랑, 웃음, 그리고 긍정의 얇은 막으로 연결된다.

<Drapery Project>는 사랑, 증오, 기쁨, 슬픔의 감정 판단을 정의한다. 통일됨의 자유인 것이다. 이는 타인을 만나서 영원토록 사로잡히는 삶의 신비이기도 하다. 또한 영혼의 여정이다. 파란 불이 밝히는 동굴 바닥에 방석을 깔고 사람들에게 앉기를 권하며 개인 공간을 찾아주고자 했다. 내가 가지고, 얻고, 느낀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왔다. 겸손함을 너무 많이 접한 나머지 그것이 하나의 은유를 이루었다.

2014년 5월 28일 오픈 스튜디오 행사에서는 인터랙티브 작품을 공개했다. 벽에 걸린 하회탈에 관람자들이 그림을 그리게 하고, 나에게 댓글을 쓰게 하면서 상호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었다. 나는 천 조각들을 다시 분리해서 원상태로 돌려놓았다. 이 옷가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준비를 마쳤다. 나의 작품은 과정에서 시작하여 과정으로 끝났다. 상호작용하는 모든 과정 자체가 나에게는 예술이었고, 삶의 즐거움이자 존재를 기념하는 행위였다.

창동레지던시 이웃 중에서 나의 어린 친구 김승환 군이 보여준 공감과 우리가 편하게 머물도록 도와준 인턴 윤세영씨의 배려는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한국의 각박한 삶에 대한 편견은 오해였다. 어디를 가나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공기를 마신다. 슬플 때는 눈물이 고이고, 기쁠 때는 미소가 번진다. 아름다운 마음들로 가득한 도시에 참으로 매료되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긍정적인 에너지 때문일지도 모른다.

Manish Lal Shrestha

Drapery Project 2014

Whole world acclimatized South Korea with technology, gadgets and mechanical life. It was true even for me; I used to carry Samsung in my pocket. Back in Nepal I was searching for inner joy trying to forget and forgive the past. In every situation though good or bad Art never left me aside it became my most faithful friend. Journey of life is all about process and art is process of living, sharing happiness and bliss. Art is all about mind and human instinct, if there are no human beings art doesn't exist. My whole process of creativity lies in these norms

I wanted to do interactive community art project in MMCA Residency Changdong, beautifully and professionally stood up venue for international artists community, well disciplined and well organized. I was simply thinking of connecting different emotional states. *Drapery Project* could really fulfill my sensitivity. I thought of collecting used clothes from the people around. Metaphorical aspect of used clothes has beautiful connection with personal history and emotional milieu.

To bring community into art, I started going to community with my good friend Sujan Chitrakar in Seoul. Meeting friends, going to artist's space, universities and exchanging ideas intensified my sensitivity. Poster in Hangul, translated by Yumi and Heejung, enhanced a lot to gather helping hands from community. It was more of collaborative senses to touch lives with different possibilities. Clothes are the most touched things in life and yes, the second skin. It has a value of security, comfort, beauty and serenity. My work was to stitch clothes together and to create a large piece of tapestry to connect ceiling and floor together, connecting cosmic space to soul, sky to earth, and life to lives. I tried to connect them together with thin thread.

Human life is also connected with thin layer of mutual respect, love, laughter and positivity.

Drapery project defines emotional judgment of love, hate, happiness and sadness. It is a freedom of being unified. It is the mystery of Life, where you meet strangers and fall for eternity. Moreover again it was the spiritual journey. Cave with blue light and cushion on the floor where I wanted people to sit and find personal space to each individual. It was more about being grateful to what I had, what I got and what I felt. I received so much of humbleness that itself became a metaphor.

Open studio on 28th May 2014, interactivity was my work. Letting visitors draw on the smiling mask hanged on the wall, letting put down some words as a comment for me and was about creating an interactive space. Bringing back to nature I again dismantled all the pieces of clothes separately. These clothes were again ready to send back to different people. My work started in process and ended up in process. Entire process of interactivity itself was an art for me; it was joy of living and celebration of existence.

I was really touched with the appreciation shown by my little friend Kim Seunghwan neighborhood of MMCA Residency Changdong and intern Se-yeong for making us feel like home there. My perception of South Korea's perfunctory life reduced to rubble. We all speak same language and breathe same air everywhere we go. If there's sadness there tears in eyes, if there's happiness there smiles on the lips. I really got so fascinated with the city which really filled with beautiful hearts. May be it was due to the positive energy we all share together.

마니쉬 라이 쇼레스타



Manish Lal Shrestha



이 작품은 이별의 향수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을 한국의 분단과 이산가족의 문맥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부재하는 존재를 떠올리게 하고 추억을 불러 일으키는 기념품의 의미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장사인 어르신이 한국 전쟁 와중에 헤어진 그의 형 장사국 님에게 보낸 슬픈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이 편지는 고통과 절망의 경험으로 점철된 개인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The work deals with my personal experience of separation and nostalgia but in the context of partition of Corea and its dispersed families. The work also looks into the notion of memorabilia soothing the absence of a person thus invoking his/her fond memory.

This letter is a sorrowful correspondence of Mr. Jang Sa-in to his brother Jang Sa-guk who was separated during the Corean War. The letter unfolds a personal story but is also collective experiences of pain and despair.

Translated from Hangul by Bon Jovencito
Interviewed and text revised by Kim Dajin
Additional support from Yoon Se-yeong

영문 번역 본 조벤치토
인터뷰 및 각색 김다진
추가 지원 윤세영

장사인 어르신과 그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Deepest Gratitude
Mr. Jang Sa-in and his family

Acknowledgements
Kang Hyoseok, Kim Yumi, Kim Manho, Park Heejung, Yoon Sun-won, Kim Minhong, Manish Lal Shrestha, Jin Kyungho and Changdong Studio family and resident artists.

DEDICATED TO ALL WHO WERE COMPELLED
TO GO THROUGH SIMILAR DISCONSOLATE
P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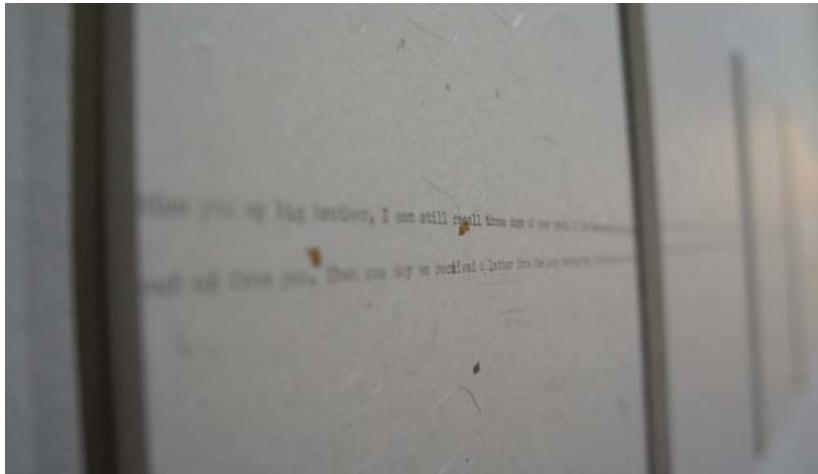


감사한 분들

장효석, 김유미, 김만호, 박희정, 윤성원, 김민홍, 마니쉬 랄 슈레스타, 진경호, 그리고 창동레지던시의 가족과 작가 여러분

비슷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모든 이들에게 바칩니다.

"Who will love my brother?", 2014,
종이 위에 타자, 21X27.9cm (19장)
"Who will love my brother?", 2014,
Typewritten letter on papers, 21X27.9cm (19pcs)



SILENT REVIEW
2014.8.29 - 9.12

관람시간. 월요일-일요일, 10시-18시
오픈. 8월 29일(금) 저녁 6시-9시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작가. 권용주(한국), 프리데리케 하우그(독일),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 밴드(한국), 안네소피
산달(덴마크), 하이데 힌릭스(독일), 아담
톰슨(영국), 제나 김(미국), 박기진(한국),
헤셀홀트 & 마이방(덴마크), 한진수(한국), 탄딜레
즈웰리반지(남아프리카공화국), 제프리 오웬 밀러(미국)

전시 제목인 <Silent Review>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기 직전의 시간을 뜻하는 항공 용어로, 대피가 필요한 비상 상황에서 의식과 본능이 곤두선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신 상태와 유사하지만 훨씬 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발전시켜나고 내적/외적 영역과 경계 사이를 넘나든다. 새로운 도시, 장소 혹은 사회적 구조에 놓인다는 것은 이러한 기분을 더욱 활성화시킨다.

이 전시의 작가들은 관람자를 지리학, 언어 혹은 문화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작품들을 선보일 것이다.

전시기획. 안네소피 산달

SILENT REVIEW
29th of August-12th of September, 2014

Open all days 10.00-18.00
Opening. 29th of August 6-9pm
Venue. MMCA Residency Changdong
Artists. Yong Ju Kwon (KR), Friederike Haug (DE),
Michelangelo Pistoletto Band (KR), Annesofie
Sandal (DK), Heide Hinrichs (DE), Adam
Thompson (GB), Jena H. Kim (US), Park Kijin
(KR), Hesselholdt og Mejlvang (DK), Han Jinsu
(KR), Thandile Zwelibanzi (ZA), Geoffrey Owen
Miller (US)

In aviation, the term *Silent Review* is sometimes used to describe the minutes right before take off and landing, where your awareness and instincts are highly alert towards your surroundings in case of an emergency where evacuation is needed. Similar to this state of mind, but on a much more unconscious level, we constantly process our situation and negotiate between inner and outer territory and boundaries in everyday life. Being in a new city, location, or social structure activates this feeling even more.

The group of artists in the exhibition will all display works that offer the viewer a dimension to the idea of being in flux in terms of geography, language or culture.

Curated by Annesofie Sandal



LOSS OF POWER, 2014, 재활용 종이박스, 미러 포일, 163x80cm
LOSS OF POWER, 2014, Used cardboard and mirror foil, 163x80cm



My Past, My Present, My Future, 2014, 재활용 종이박스,
미러 포일, 54x46x26/101x90x47/115x120x55cm
My Past, My Present, My Future, 2014, Used cardboard and
mirror foil, 54x46x26/101x90x47/115x120x55cm



SANDALEUM, 2014, 재활용 종이박스, 미러 포일,
LED 조명, 카펫, 152x120x153cm
SANDALEUM, 2014, Used cardboard boxes, mirror foil, LED
light, and carpet, 152x120x153cm

창동레지던시 주차장 깃대에 설치한

배너 프로젝트

오각형 별 모양으로 이뤄진 특정한 이미지가 각 깃발의 양쪽 절반을 덮고 있다. 깃대 중앙부에 의해 대칭을 이루는 오각형 별 모양은 마치 만화경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복잡한 모양의 동일한 이미지들은 일곱 개의 현수막 대에서 반복되고 강화된다. 이처럼 반복되는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는 그 자체로 어지럽다. 동시에 깃대들이 깃발을 들로 나눠서 가르는 모습은 마치 분리하거나 침략하는 느낌을 풍경에 더하는 것처럼 보인다.

<Flags of Aggression>은 빨간색, 하얀색, 검은색 색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잘 알려진 강렬한 색상 조합이며 흔히 국가 혹은 국가주의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조합은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정치계에서 계속 인기가 있었다. 독일 나치 정권의 만자기를 비롯한 많은 국가 디자인들은 이러한 조합을 적극 사용했다. 이는 여러 좌우의 조직들과 군사적 맥락에서도 널리 활용된다. 일상에서 이 세 가지 색상은 여러 회사 로고에서 발견되며, 지난 10년 동안 (적어도 서구에서) 인테리어와 패션에서도 또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색상과 마찬가지로 오각형 별 모양 역시 세계 전역의 국가 디자인에 사용된다. 그 예로 미국, 유럽연합, 소련, 중국, 북한이 있다. 별 모양은 패션과 장식 분야에서 인기가 있다. 광고와 로고에서도 별 모양은 주역을 맡고 있다.

역사적으로 별 모양은 마법적인 힘을 갖는다고 여겨졌으며, 심지어 오늘날에도 신비술사들에 의해 사용된다. 별 모양은 사용되는 곳과 방식에 따라 수많은 상징을 포함한다. 기본적으로 별 모양은 선과 악 사이의 이원론을 나타낸다. 꼭지점 하나가 위로 향하면 선의 정령을 묘사하는 한편, 꼭지점 둘이 위로 향하면 지하세계의 악한 정령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Flags of Aggression>은 꼭지점 하나가 위를 향하고 다른 꼭지점 하나가 아래를 향하는 별 모양의 두 가지 기본적인 형태를 포함으로써 상징의 정확한 의미를 모호하게 만든다. 깃발 일곱 개의 이미지 안에서 선과 악은 동시에 존재하며 투쟁한다.

<Flags of Aggression>의 특징은 미적이자 정치적 탐구라는 점이다. 우리는 깃발과 별 모양이라는 강력한 상징뿐만 아니라 애매모호한 레퍼런스와 함께 항상 존재하는 일상적 현상으로서 국가가 갖는 미학적 역사적 측면을 탐구한다.

일곱 개의 깃대는 도시 환경에 설치되어 주유 회사나 여타 회사 앞에 있는 기둥처럼 도시 지역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깃대와 유사하다. 보통 이런 깃대들은 회사의 로고가 그려져 있으며 권력, 영역, 광고, 브랜드의 정체성과 가치를 나타낸다. 이 작품은 군대, 국가주의, 브랜드 정체성과 어두운 상징에 대한 신비주의적 영역에 대한 레퍼런스를 포함하면서 창동의 보도에서 일상적 삶에 끼어들고 이를 어지럽게 만든다.



Flags of Aggression, 2014, 현수막 천, 180x60cm (14장)
Flags of Aggression, 2014, Fabric, 180x60cm (14pcs)

Flag project at the banner poles at the studio parking lot, MMCA Residency Changdong

A singular image consisting of a pentagram pattern is spread over the two halves of each flag. The pentagram image is furthermore mirrored from the centre - formed by the poles - in a kind of kaleidoscopic view; a view that is enhanced by the repeating of the same complex image in each of the seven poles. The visual effect of this iterative doubling is in itself disturbing. But at the same time it seems like the poles are cutting the flags in two halves adding a sense of splitting or aggression to the scen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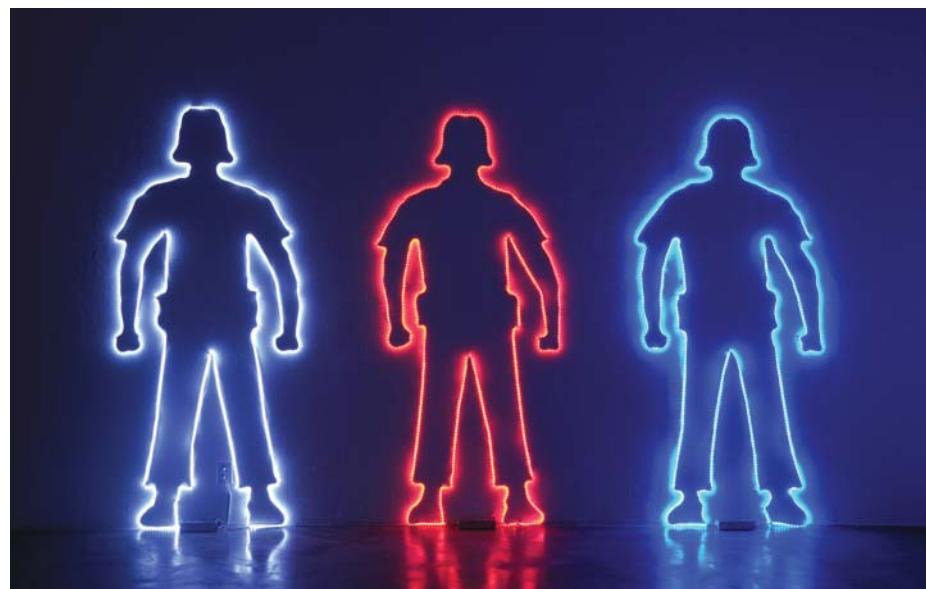
The *Flags of Aggression* are held in red, white and black colours, a well-known and powerful colour combination that often makes one think of states and nationalism. Politically it has been very popular throughout history as well as in present time. It is seen in many flag designs, for example in the Nazi Germany Swastika flag, many left and right wing organisations use it and it is widely used in military contexts. In everyday life we meet the three colours in many company logos and for the last 10 years (at least in the West) they have been used a lot in home decoration and fashion.

Like the three colours the pentagram – the five-pointed star – is used in flag designs around the world, for example USA, EU, Soviet Union, China, North Korea, and the pentagram is also very popular in fashion and decoration. Also in advertising and logos the pentagram is starring. The pentagram has historically been thought to have magical powers and is even today used by occultists and contains a lot of different references according to where and how it is used. Basically it represents a dualism between good and evil. One point up it depicts the spirits of the good, and two points up it is seen to represent the spirits of the evil underworld. The *Flags of Aggression* contain the pentagram in its two basic forms, one point up and one point down, blurring the exact symbolism. The good and the evil coexist and struggle in the image of the seven flags.

The *Flags of Aggression* are characterized by both aesthetic and political investigation. We are using heavy symbols like the flag and the pentagram, with their identifiable but ambiguous references, and at the same time we are exploring the aesthetics and historical aspects of the flag as an ever-present everyday phenomenon.

The seven banner poles are placed in a city environment, resembling a company's row of poles like we know it from the front of a gas company or another firm, popping up everywhere in urban areas. Normally such poles are presenting the company's flags, signalling power, territory, advertising, the brand's identity and values.

It is a work containing references to military, nationalism, brand identity and the occult realm of dark symbolism, here meddling into and disturbing everyday life along the sidewalk of Changdong.



한국 비무장지대의 군인과 아시아의 LED 조명을 혼합했다.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은 남한과 북한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의 국기의 색상들이다.

Soldiers from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DMZ mixed with Asian LED light. Red, blue and white are the colours of various national flags, including the one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금발머리 꼬마 소녀를 묘사하는 일련의 자수 작품은 백인의 징백한 피부색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더 큰 프로젝트의 일부다. 예술 활동과 리서치가 합쳐진 이 프로젝트는 역사적으로 내려온 백인우월주의가 탈식민주의 시대에 일어나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상황과 결과에 어떠한 원인을 제공했는지 그 양상을 연구한다.

This series of four embroideries depicting a little fair-haired girl is part of a larger ongoing project about the Caucasian pale skin colour. The arts and research project investigates the historical, cultural and societal aspects and consequences occurring in the post-colonial era, caused by the historical predominance of the white population.

The Wait, 2014, LED 조명, 높이, 225cm (높이)
The Wait, 2014, LED light, nails, 225cm (H)

Little Blonde Girl meets the Tiger, 2014, 자수, 18x19cm
Little Blonde Girl meets the Tiger, 2014, Embroidery, 18x19cm

The Source List

제14회 베니스건축비엔날레, 『한반도 오감도』; 창동의 아파트 골든뷰(산수머); 세운상가[김수근]; 남산타워 전망대; 자유센터[김수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도코모모, 근대운동에 관한 건물과 환경 형성의 기록 조사 및 보존을 위한 조직, 「제13회 국제회의: 세운아케이드; 서울시 고급주택화 촉진: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 의해, 어떤 결과를?」[경신원, 김광중 교수]; 산은 어디든 있다; 교보문고, 『빌린도시』[모토엘라스티코]; 한국 공간그룹 빌딩[김수근]; <불편한 이방인이 될 때까지>[레나타 루카스], 『터전을 불태우라』, 광주 비엔날레; <네비게이션 아이디>[임민욱]; 금호재개발20구역, 유령도시;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며, 지혜로운 사람은 동적이고 어진 사람은 정적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즐겁게 살고 어진 사람은 인생을 안정적으로 산다.” 논어 6:23[아더웨일리 역]; 서울역사박물관, 『아파트 인생』, 전시와 도록; 꿈의 숲 전망대; 삼성미술관 플라토, 『매스터스티스 건축하기 전/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어반사이언스, 「서울의 자연: 토양도에서 파생된 잠재적 식생」[환경조경학과 비베 촌테르트 교수],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서화관; 교보문고: 『한국의 풍경화』[이성미]; 종로3가역 4번 출구, 철거현장, 에스컬레이터 굉음; 모토엘라스티코 사무실, Room Apart. A Ministory with Two Maxinotes [마르코 브루노 교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메가시티즈3장, 「서울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형태를 찾아서」[김관중, 조상철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서관: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김광중 편찬]; 난지도매립장; 파주출판단지, 미메시스아트뮤지엄[알바로 시자], 오직 자연채광, 미메시스 책과 도록; 창신동지역, 공사현장 주변에 큰 벽; 쉐라톤워커힐호텔, 힐탑바 파빌리온(피자힐)[김수근]; 삼성모델하우스갤러리, 자이갤러리모델하우스; 상도재개발지역; 청정아파트; 아줌마, 안국동; 만약 그들이 산꼭대기를 훔쳤다면, 다시 제자리에 되돌려놓읍시다.

The Source List

Venice, 14. Architecture Biennale, *Crow's Eye View: The Korean Peninsula*; Changdong Apartment Building GoldenView (over the mountain); Sewoon Sangga by Kim Swoo Geun; Namsan Tower Observatory; The Freedom Center by Kim Swoo Geun; MMCA Seoul, Docomomo, International committee for documentation and conservation of buildings, sites and neighborhoods of the modern movement,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Sewoon Arcade; State-facilitated Gentrification in Seoul, South Korea: for Whom, by Whom and with What Result?* paper by Prof. Shinwon Kyung and Prof. Kwang-Joong Kim; the mountain is everywhere; Kyobo bookstore, *The Borrowed City*, MOTOElastico; Space Group of Korea Building by Kim Swoo Geun; *until it becomes an inconvenient stranger* by Renata Lucas, *Burning Down the House*, Gwangju Biennale; *Navigation ID*, Minouk Lim; Geumho 20th Redevelopment Area, ghost town; *the Wise man delights in water, the Good man delights in mountains. For the Wise move; but the Good stay still. The Wise are happy; but the Good secure*, The Analects of Confucius, VI: 23, Arthur Waley trans.; Seoul Museum of History, *The Republic of Apartments*, the show and the book; Dream Forest Park Observatory; Plateau Art Space, *Before/After* by MASSstudie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ciences, *The nature of urban Seoul: potential vegetation derived from the soil map*, Prof. Wybe Kuitert,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Seoul, Department of Calligraphy and Painting; Side A a forest of apartments, Side B the mountain; Kyobo bookstore: *Korean Landscape Painting*, Yi Song-mi; Jongro 3 exit 4, demolition site, the escalator roars; MOTOElastico office,

Room Apart. A Ministory with Two Maxinotes,

by Prof. Marco Bruno; Central Library, Seoul National University: *Megacities, third chapter, In Search of Sustainable Urban Form for Seoul* by Prof. kwang-Joong Kim and Prof. Sang-Chuel Choe; Librar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Twentieth Century: Growth&Change of the Last 100 Years*, edited by Prof. Kwang-Joong Kim; Nanjido Landfill; Paju Book City, Mimesis Art Museum by Alvaro Siza, natural light only; Mimesis Book, the catalogue; Changsin area, the big wall around the construction site; Walkerhill Sheraton Hotel, Hill Top Bar Pavilion by Kim Swoo Geun (Pizza Hill); Samsung Model Home Gallery, Xi Gallery Model House; Songdo redeveloped area; Chungjung Apartments; Ajuma, Anguk-dong; if they have stolen the tops of the mountains, let's try to take them back.

The research period of Margherita Moscardini in Seoul has been supported by nctm e l'arte, a project promoted by NCTM Studio Legale Associato, Milano, Ita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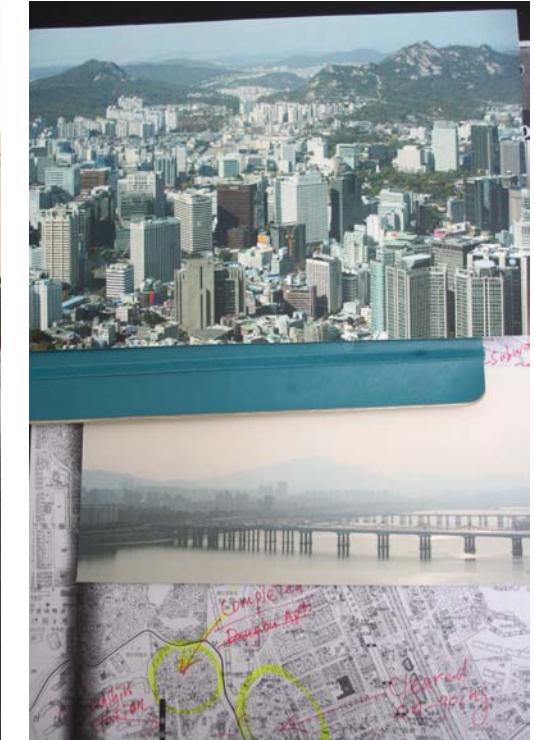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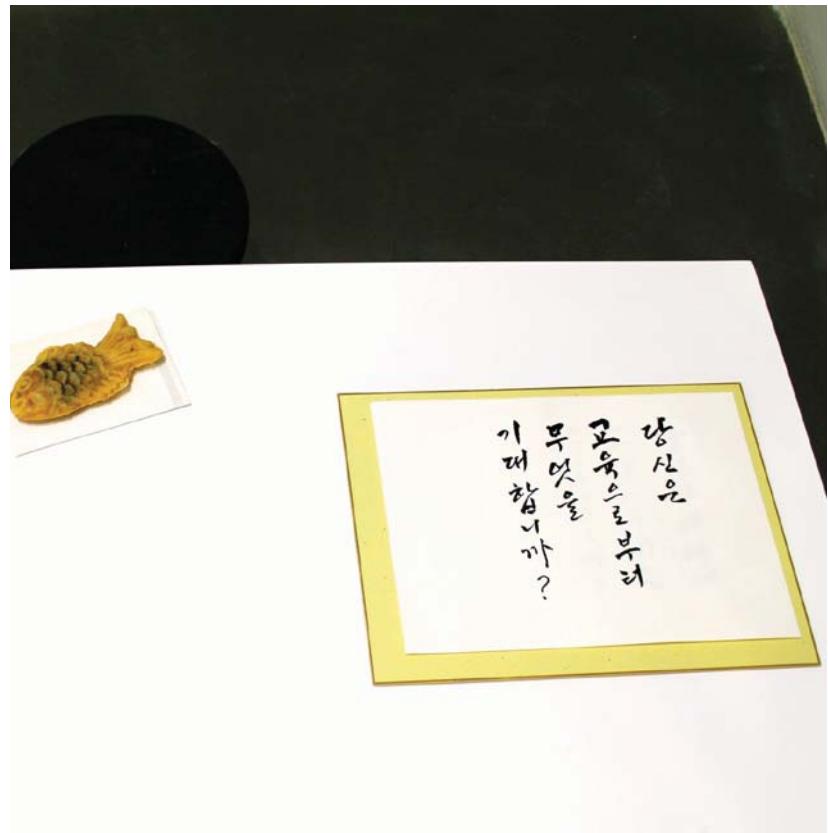
남산타워에서 본 전경, 2014, 프로덕션 스틸
View from Namsan tower, 2014, Production still



국립중앙박물관, 2014, 프로덕션 스틸
National Museum of Korea, 2014, Production st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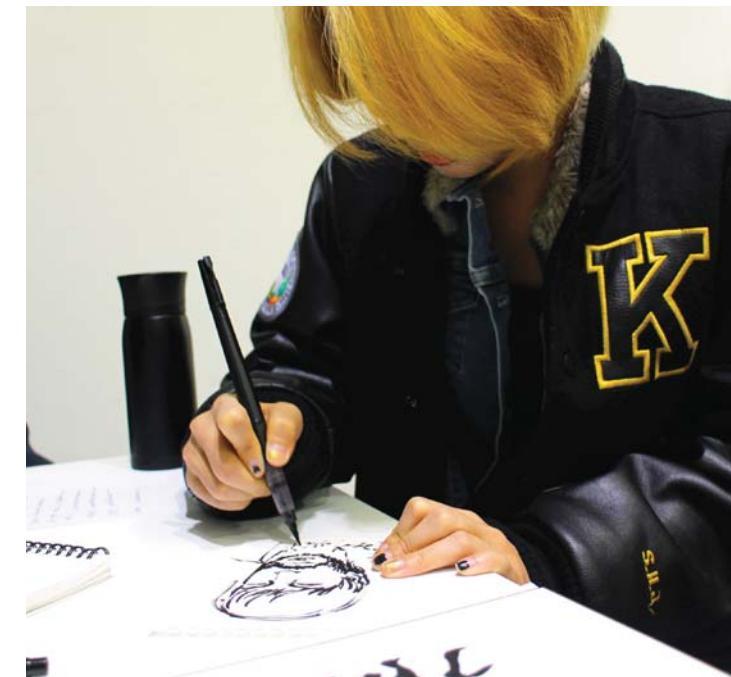
지도, 노트, 사진, 2014, 프로덕션 스틸
Map, notebook and prints, 2014, Production still



당신은 교육으로
부터 무엇을
기대합니까?



당신이 미래에
소망하는 바는
무엇입니다?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

6월 19일 -7월 1일

최영환: 시각예술가, 총괄 기획 및 진행

최성수: 문학가, 기획 및 주민대상 강좌

서준호: 전시기획, 프로젝트 홍보, 조형물 설치 및 자문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 프로젝트는 2년 전 재개발과 관련해 지역의 주민들이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던 시기 최초 기획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일터와 집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주민들이 예술을 매개로 자신의 삶을 조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최근 들어 동네 곳곳에서 벌어졌던 주민들 간의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은 찾아들었지만 성북동 주민들은 그 현수막을 거둘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들에게 이 작은 천 조각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 이로 말미암은 무력감을 잠시나마 잊고,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도구인 것이다.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 프로젝트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자기표현 수단을 제안한다. 원색조의 현수막은 건축물의 일부처럼 설치된 조형물로 대체된다. 작은 거울 조각들로 이루어진 이 조형물은 태양빛을 반사해 만들어 내는 빛의 조합을 통해 주민 각자가 생각하는 '내 공간의 의미'가 담긴 짧은 문구를 주변 도로 위나 담벼락에 드리게 된다. 그 '빛의 현수막'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며 그 존재를 드러내고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주민이 직접 쓴 이 글들은 거창한 개발의 역사에서 너무도 쉽게 지워져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사적 공간'에 관한 자기 기록이다. 마치 태양빛의 반사를 통해 잠시 동안 주변에 머물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고 마는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름과 동시에 다시 쓰일 것이다. — 최영환

Ephemeral Placard

June 19-July 1

CHOI Young-Hwan: Visual Artist,

Project Director and Manager

CHOI Seong-Soo: Writer, Planner,

Public lecturer

SEO Jun-Ho: Exhibition Curator, Project PR,
Installation and Consultant

<Ephemeral Placard> was first planned two years ago during a time when local residents were in harsh conflict over redevelopment. However, it was no easy task for them to view their lives through a medium of art while living in a state of extreme crisis, as their workplaces and homes could vanish any day. Recently, the fierce disputes over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held among residents in several parts of the neighborhood have waned, but the Seongbuk-dong locals appear unwilling to remove the placards. To them, these small pieces of cloth serve as tools by which they prove their existence to the world, forgetting for a time their anxiety and agitation over a future they cannot determine for themselves and forgetting as well the ensuing sense of helplessness. <Ephemeral Placard> proposes the means of a new form of self-expression to these residents. The placards in primary colors are replaced with artwork installed as a part of buildings. Consisting of small pieces of mirrors, the artwork produces combinations of light by reflecting sunlight, casting onto nearby streets and walls short phrases that express the residents' different thoughts regarding "the meaning of my space." These "placards of light" change their form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revealing their existence and fading by turns.

These texts written by the residents themselves constitute self-records regarding the "private space" that was too easily erased from the grandiose history of development and may vanish any time. The "private space" resembles the results of this project, which stay for awhile by reflecting the sunlight yet vanish away with the passing of time. Nevertheless, the record shall be written anew with the rising sun of tomorrow. — CHOI Young-Hwan



A close-up view of a modern building's exterior. The upper portion features a perforated metal screen with a grid pattern, through which bright sunlight is visible. Above the screen is a red brick wall. To the right, a window with dark frames is partially visible. The lower portion of the image shows a red wall with some weathering and a faint circular logo.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 태양 빛을 반사해 만들어진 텍스트
Ephemeral Placard. The text created by reflection of the sunlight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 2014, 유리거울, 전선, 포맥스, 100×400cm (부분)
Ephemeral Placard, 2014, Glass mirror, steel wire, foamax,
100×400cm (Detail)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 2014, 유리거울, 전선, 포맥스, 26x289cm
Ephemeral Placard, 2014, Glass mirror, steel wire, foamax,
26x28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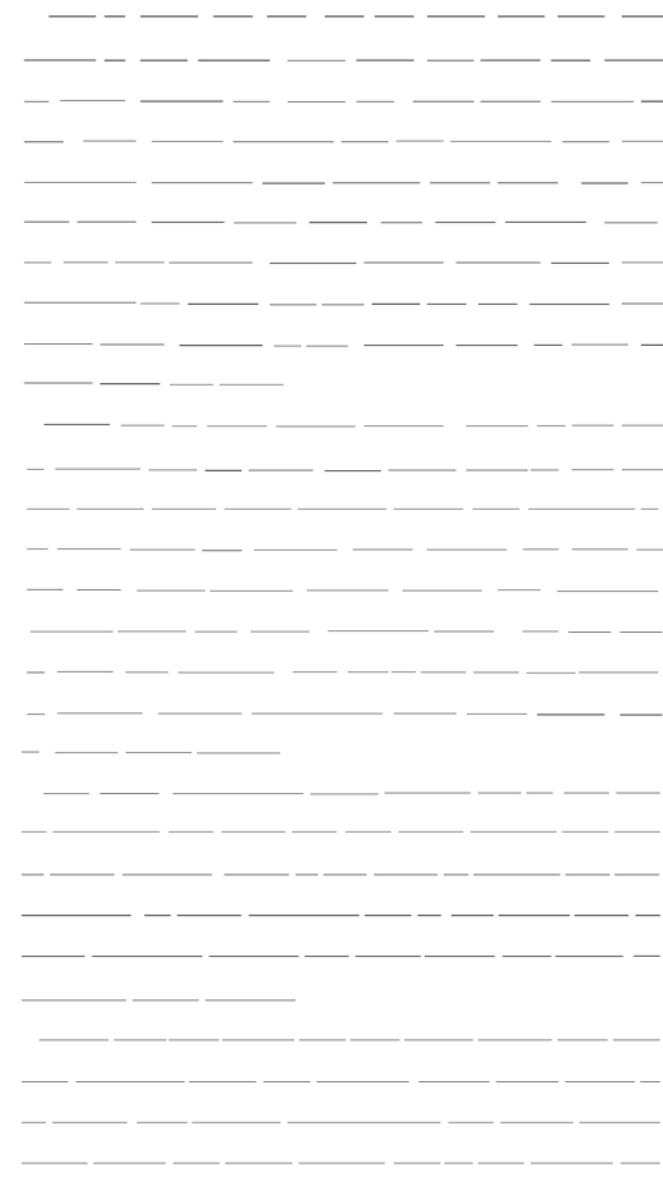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 2014, 유리거울, 전선, 포맥스, 100×400cm
Ephemeral Placard, Glass mirror, steel wire, foamax, 100×400cm

조현아: 시각예술가, 프로듀서
 김해주: 독립큐레이터, 드라마트루기
 류한길: 뮤지션, 사운드디자인
 장현준: 안무가, 퍼포먼스

프로젝트 <지워진 글>은 텍스트가 도달하지 않는
 잔여물에 관한 실험으로 3인의 예술가와 1인의
 큐레이터가 모여 협업으로 진행하였다. 각자가 가졌던
 익숙한 방법 대신 낯선 방법론을 함께 고민하며 관념이
 아닌 “경험”으로서의 협업의 과정과 의미에 대한
 실험들을 함께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
 6월 27일, 28일 이틀간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에서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CHO Hyun A: Artist, Producer
KIM Haeju: Independent Curator, Dramaturgy
RYU Hankil: Musician, Sound Design
JANG Hyun Joon: Choreographer, Performance

<Erased Text> was produced in collaboration with three artists and one curator: Hyun A, Haeju, Hankil and Hyun Joon. This project functioned as a laboratory as well as an open text concerned with the act of “erasing” and the residues, which were undetermined and paradoxical, oscillating themselves between the twofold, the grey area. While questioning the meaning of collaboration we considered rather unfamiliar methodology and transformed the effectiveness of collaboration into an “embodied experience”. The performance was taken place in the Box Theatre at Seoul Art Space _Mullae between the 27th and 28th of June in 2014.
 (Translated by Mr. Toby)



조현아, 지워진 글, 2013-2014
 CHO Hyun A, Erased Text, 2013-2014

지워진 글
 대상을 지우는 것으로 완벽한 소멸을 만들 수는 없다.
 지우기는 때로 대상에 어떤 흠도 가하지 못하고,
 지우기라는 반복적인 행위만을 축적시킨다. 하지만
 지우기는 어떤 한 시점에서 완결된 하나의 세계의
 형태를 바꾸어 놓을 수는 있다. 창작은 무에서 발생하는
 새로움이 아니라, 있는 세계를 변형하여 매 번 적응할
 만한 곳으로 간신히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하나의 책을 출발점으로 하여, 텍스트로
 묶여진 어떤 절대적이고, 이상적인 상에 구멍을 내기로
 했다. 지하에 굴을 파고 들어가 높은 담장을 서서히
 무너트리는 작은 동물들처럼, 견고한 문자의 성을
 허물어 그 서서히 던져지고 쌓여진 잔해들의 우연적
 풍경을 목격하기로 했다. 이것은 텍스트가 제시하는
 서사 대신 서사가 결코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경험
 가능한 다양한 방식들로 번역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균열과 해체의 과정은 정반합의 창작
 메소드 혹은 장르간의 다원적 경험을 추종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시도에서 행해지는 협업은 결코 하나로
 정리될 수 없는 고집스런 주체들이 서로간의 역할과
 관점으로 각자의 공간을 야금야금 지워가는 불협의
 행위들의 축적물이다. 그래서 때로 지우기는 서로의
 지워진 영역을 침범하여 공백의 교집합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사라진 부분은 남아 있는 것의 의미를 탈각시킨다.
 텍스트의 빈 공백은 주어나 동사보다 줄여진 말의
 부분을, 도려낸 시각들은 그 외곽선을, 정지된 음악은
 완벽한 침묵의 불가능을 부각시킨다. 텍스트의 지워진
 부분은 때로 다른 물질과 행위들로 대체되기도 한다.
 읽기 대신 쓰기, 말하기 대신 듣기, 극장 대신 몸이
 관객대신 사물이 서로 자리를 바꾸어 본다. 음악과
 남겨진 텍스트의 운율은 이처럼 전복된 관계와 위계의
 도표가 되어 흐른다.

지우기는 미리 약속된 행위들을 넘어선다.
 책이라는 종이와 글자의 조합을
 극장이라는 검은 구조물을
 대본이라는 서사의 매개를
 객석이라는 안락함을

빛을
 소리를
 물질을
 교각과
 문장부호와
 유연한 골격의
 연결점을 지운다.

소각된 곳에서 발생하는 말 더듬고, 귀 막히는 장애는
 때로 무기가 된다. 정상적 신체와 감각은 꼭 보고 들어야
 할 것들을 습관적으로 제외하곤 한다. 어쩌면 지우기는
 결코 잊혀지지 말았어야 할 세계의 실수들을 망각하는
 명청함에서 우리를 지켜줄는지도 모른다.

김해주, 지워진 글, 2014
 KIM Haeju, Erased Text, 2014

Erased Text

By erasing a subject or an object it might be impossible to make an absolute extinction. Sometimes the act of erasing can't put any blemish on a subject or an object, and it accumulates a repetitive action. However erasure might be possible to change a complete world at a certain moment. A creative activity is rather a process which renews and moves towards a place by transforming the existent world than a novelty creating something new out of nothing.

We took one book as the departure point of our experimentation, and agreed to puncture a hole in some kind of the absolute and the ideal image. Likewise small animals burrowing their ways into the basement of the high wall and gradually pulling down a substantial fortress comprised of words, we aimed to witness coincidental landscapes of these thrown and remained fragments. Instead of the narratives suggested by the text, it may suggest a process of translation that transforms some parts of not being able to speak into different forms opened to our experience at different levels.

This type of crevice and the process of deconstruction are not necessary follow either the logic of thesis-antithesis-synthesis in terms of creative methodology or interdisciplinary experiences occurring between different and crossover genres. This collaborative activity resulted from our numerous attempts and failures could be seen as an accumulation of dissonant actions or attitudes through one's own roles or perspectives involved in this project by deducting one's own time and space little by little. Certainly these obstinate four individuals are unable to be defined or classified as being 'one'. Therefore sometimes the act of erasing might be able to make an intersection of the blank by intruding each other's deducted areas.

The remained parts have become another departure from the remained. The blank space in the text highlights some parts of the reduced

words. The removed certain forms of visibility reveal their outlines, as well as the paused music echoes the impossibility of complete silence. The erased part of the text, from time to time, can be replaced as different forms of materiality or action. By substituting the act of writing for the act of reading, the act of listening for the act of speaking, the body for the theatre, the objects for audiences, our activities play with this absurd condition of being dissonant. The music and the remained rhymes of the text, thus, have become the overturned relations and hierarchies and they fly away and continue.

The act of erasing goes beyond the pre-arranged code of activities. A bundle of papers and the combination of the letters so-called a book
 A black structure so-called a theatre
 The medium or the mediator in narratives so-called a script
 Comfortable seats guaranteeing of a sense of comfort

The lights
 The sounds
 The material

Erasing
 Subtraction
 Punctuation marks
 Flexible framework
 Connecting points.

An obstacle such as stuttering or becoming deaf occurred in the place once burnt has become a weapon every now and then. A normal body and its senses customarily exclude certain must-see and must-hear things. Perhaps the act of erasing may prevent us from being stupid by forgetting so many mistakes of the world which are not supposed to be forgotten.

(Translated by Mr. Toby)

채워진 빈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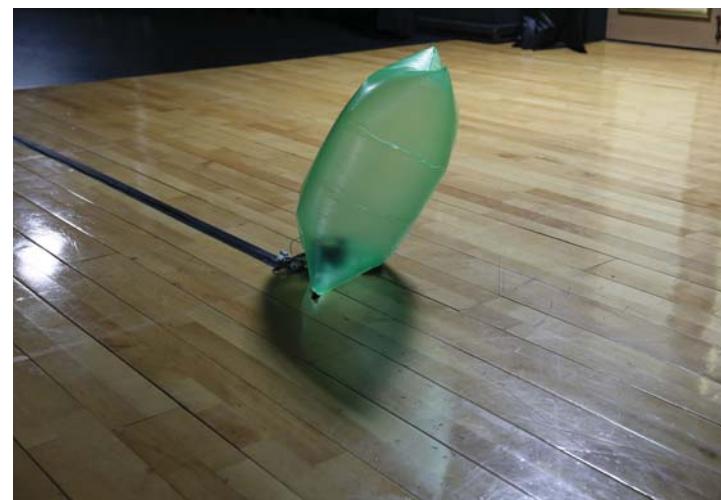
어떤 조그마한 방이 있다. 이 방은 어떤 건물의 한 구석에 있다. 그리고 방 안에 가득 차 있는 물건들의 종류에 따라 어떤 목적과 용도를 지닌 방이 되어 있다.

이제 나는 빈 방에 있다. 모든 물건들은 치워졌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이제 이 빈 방에서 가만히 숨을 쉰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공기가 있다는 뜻이다. 목적과 용도에 상관 없이 공기는 언제나 그 안에 있었다. 빈 방에서 나는 내 숨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빈 방의 공기는 내 숨소리를 더 잘 전달하고 장애물 없는 방의 벽은 내 숨소리를 더 잘 반사해 준다. 빈 방의 풍부한 소리의 전달과 반사는 내 귀의 해상도를 높여준다. 아니다. 해상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의 힘이 더 강해진 것이다. 빈 방의 풍경을 인지한 상황에서 나는 눈을 감고 계속 숨을 쉰다.

동일한 속도로 숨을 들이키고 내쉴 것이다

이제 나는 나의 감긴 눈 안에서 빈 방에 대한 인상만 가지고 있다. 이제 내가 내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과 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나는 미동 없이 한자리에서 계속 숨을 쉰다. 빈 방은 그렇게 용도와 관계 없이 나와 다른 것으로 채워졌다.



류한길, 지워진 글, 2014
BYU Hankil, Erased Text, 2014

An empty and full room

There is a certain room which is small. This room is located in the corner of a certain building.

And there is a room designed for a certain kind of purpose and use, depending on the type of stuff filled in the entire room.

Now I am in the empty room. All stuff is removed. And there is no certainty that I know about this building.

Now I am breathing calmly in this empty room. To breathe means that there is air. The air has always been there regardless of purpose and use. I begin to enable myself to listen to my own breathing. The air in this empty room conducts the sound waves of my breathing better, and the wall of the room without any obstacles reflects it better. The abundant levels of conduction and reflection in this empty room raise the resolution of my listening. Not. Perhaps it is not about the resolution which was raised but some kind of power which has become much more stronger. While being aware of the landscape of this empty room I close my eyes and continue breathing.

I will inhale and exhale at an equal speed.

Now I only have an impression of the empty room existing only within my closed eyes. At this moment having a thought of being able to sense my existence that is perceived by myself is, in fact, true that I can breathe right now and I can hear my own breathing. I continue breathing calmly in one place. This empty room has filled up with myself and other things regardless of their use.

(Translated by Mr. Toby)

卷之三

산업예비군(이완, 김현준, 유화수)

생산수단을 소유한 고용주가 도입한 자동화 생산수단(기계시설)의 효율성보다 상대적으로 생산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즉 기계식 생산시스템에 일자리를 내주고 해고된 백수들(산업 인력시장에서 임여의 노동자들)을 마르크스는 '산업예비군'이라고 불렀다. 이는 상황에 따라 언젠가 다시 재고용이 가능한 가능성을 지녔기 때문에 예비군이라고 명명한 것 같다.

한국은 자영업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소기업이 부재한 빈자리를 치킨 집 같은 자영업들이 채우고 있다. 모두 일자리가 없는 '산업예비군들'에 의해 만들어진 독특한 산업 구조다. 이러한 한국적 특수성에 의해 만들어진 경제구조 안에서의 공공성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그룹 '산업예비군'은 공공성에 대해 연구한다. 여러 가지 경제학적 원칙들을 실험해 보거나 실제 새로운 모델 등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한다. 산업예비군은 이완, 김현준, 유화수 3인의 예술가가 역할을 분담해 활동하고 있으며 매달 통계학자, 경제학자, 철학자, 사회학자 교육자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을 초대해 공공성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공에 필요한 미술적 방법론들을 연구하고 있다.

Industrial Reserve Army

(Lee Wan, Kim Hyun Jun, Yoo Hwasoo)

Marx used the term 'industrial reserve army' to describe workers whose relative productivity falls short of the newly created mechanical facilities' efficiency. In other words, they are the unemployed (surplus workers in the industrial labor market) who lose their jobs to new, mechanical means of production. Perhaps they are called a reserve army due to their potential for reemployment depending on situation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Korea is a country of self-employment, since private businesses such as fried chicken stores fill the vacancy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It is an unusual industrial structure created by the unemployed 'industrial reserve army.'

The group Industrial Reserve Army studies 'structure' and 'capital.' It is a meeting that experiments various economic principles and conducts sociological research of new existing models. I wish to call these research activities design activities. The Industrial Reserve Army, which plans to establish a manufacturing company to simulate structural phenomena, consists of the three artists Lee Wan, Kim Hyun Jun and Yoo Hwasoo, each working in our respective positions. Every month we invite statisticians, economists, philosophers, sociologists, educators, and other scholars of various fields to create a space for open conversation and hold guest lectures. The Industrial Reserve Army plans to expand its team with specialists, covering public and private spheres. The research materials accumulated each year will be distributed to those who require them.





컬러바, 2014, 설치, 가변크기 (제주도 강정마을)
Color bar, 2014,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Gangjeong village, Jeju Island)



유연한 긴장, 2012, 설치, 가변크기 (금호미술관)
Flexible tension, 2012,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Kumho Museum)



핑크빛 커튼, 2014, 천, 네온사인, LED 조명, 풍선, 가변크기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부산 고려제강 수영공장)
Pink Curtain, 2014, Fabric, neon Sign, LED Light, balloon,
Dimensions variable (Busan Biennale 2014 Special Exhibition,
KISWIRE Sooyoung Factory)

장민승+정재일

‘장민승+정재일’은 조형예술가인 장민승과 작곡가인 정재일로 이루어진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으로, 현대미술과 대중음악 분야에서 전달하지 못했던 감각적인 경험을 실험하고 있다. 10대부터 시작한 밴드활동과 영화음악 작업을 함께 해온 장민승, 정재일은 소리의 시각화에 대한 감상적인 기록에서 벗어나 특정 장소와 기억, 미디어 장치를 통해 공감각적인 관객 경험을 구현해왔다.

장민승과 정재일의 작업은 미술, 음악, 연극, 영화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특정 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찰나적 감상을 끌어낸다. 두 사람 공동의 기억은 작업의 토대이자 연대 가능한 힘으로 이를 바탕으로 공적이며 지속적으로 정제된 결과물을 보여왔다. 2011년 GPS와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장소와 기억에 대한 서정극과도 같은 <스피어스-문래 spheres-mullae>를 발표한 이후, 2012년 감각을 증폭시키는 극적인 상황을 재현한 <더 모먼트 the moments>, 일시적이고 온전히 비물질적인 요소만으로 제작되어 공공미술 분야의 큰 전환점을 만들었던 <상림 sanglim> 등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

4월 16일에 접한 뉴스 속보가 수많은 생명들이 소리 없이 수장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라디오를 틀어 놓고 뉴스에 귀 기울이면서 추가 생존자를 기다리는 긴긴 나날들이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개인과 단체들이 앞다투어 내놓은 애도의 목소리 속에서 깨달은 것은 우리에게 조곡(組曲)은 있었지만, 조곡(弔哭)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자기만의 고유한 슬픔을 지시할 수 있는 기호는
없다¹는 롤랑 바르트의 말처럼, 장민승+정재일은
음악이라는 매체가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속에 다채로운
풍경을 펼칠 수 있는 지점을 이번 작업 <voice for the
voiceless>에 차용한다. 형상화된 문자나 시각적인
영상 또는 오브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는(voiceless) 이들에게 소리(voice)인 음악으로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삼십의 외상을 아물기를

희망하고, 망각하지 않고 뚜렷이 기억하며, 슬픔을 공감하고 애도하고자 했다.

<voice for the voiceless>는 다섯 테마로
이뤄져 있으며, 모두 새롭게 창작된 표제음악이다.
각각의 개별 테마는 솔로 연주곡에서부터, 협약 4중주,
그리고 협약 14중주 오케스트라 편성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이뤄져 있으며 스튜디오에서 실연되고
녹음되었다. 전체적으로 극음악적 특징을 지닌
곡들이며,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감정의 연결선을
이어간다.

voice for the voiceless

thema I	00:59
thema II	02:01
thema III-1	01:32
thema III-2	00:35
thema III-3	00:31
thema IV	01:02
thema V	01:24

directed by 장민승 Jang Minseung
music by 정재일 Jung Jaeil
composition and arrangement
conducted by 정재일 Jung Jaeil

1st violin 이수 Lee Soo,
노현주 Noh Hyeonju,
변현수 Byun Hyonsu,

cello 임이랑 Lim Irang,
정혜림 Jung Hyerim

2nd violin 양승빈 Yang Seungbin,
고혜선 Koh Hyeseon, recording engineer 김희재 Kim Huijae
at CS MUSIC & STUDIO

viola
박용은 Park Yongeun,
김민정 Kim Minjung,
김희준 Kim Huijun

jang minseung + jung jaeil

‘jang minseung + jung jaeil’ is a media artist group consisting of the sculpture artist Jang Minseung and the composer Jung Jaeil. The group experiments with sensory experiences that contemporary art and popular music have been unable to deliver. Jang Minseung and Jung Jaeil collaborated on band and film music since their teenage years, creating empathetic viewer experiences through specific places, memories, and media devices that go beyond sentimentally recorded visualizations of sound.

Although the work of Jang Minseung and Jung Jaeil includes elements of art, music, drama, and cinema, it draws forth instant impressions without belonging to a certain domain. The two artists' common memories provide a foundation and powerful source of solidarity for their work; upon this basis, they have produced continuously refined, public creations. In 2011, they presented a work similar to a lyric play titled *Spheres-Mullae*, which explores places and memory based on GPS and application software. In 2012, their diverse examinations centering on contemporary art continued with works such as *The Moments*, which represents dramatic situations that amplify the senses, and *Sanglim*, which provides a significant turning point for public art in consisting entirely of transient, immaterial elements.

Watching the breaking news on April 16th, it was an actual moment of witnessing countless lives being drowned, voicelessly. Days followed closely listening to the radio, in hopes of hearing news about further survivors. Amongst the news and voices of condolence hastily given by individuals and governments, the artists became

aware that we knew of orchestral suites but lacked orchestrated wail of mou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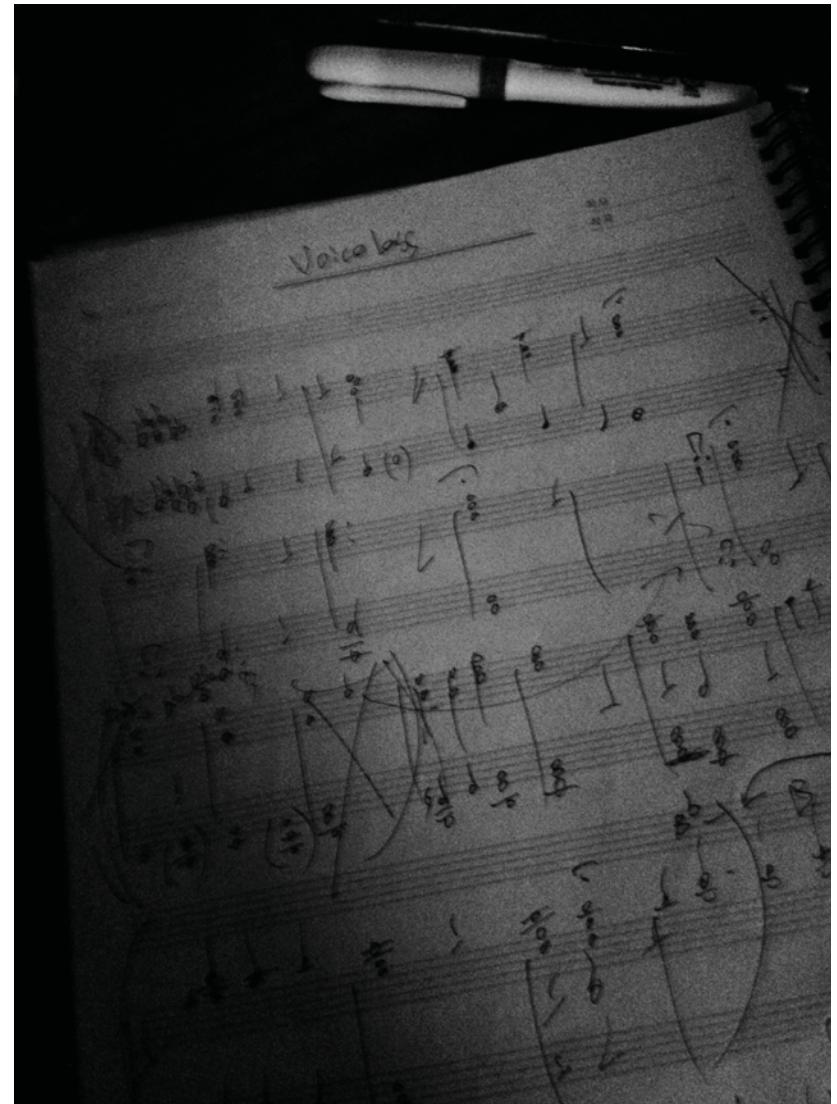
As Roland Barthes once said, “There is virtually no sign of an internalized mourning¹”, Jang Minseung and Jung Jaeil adopts music as a medium for their work *voice for the voiceless* where they encourage listeners to imagine various scenery within their minds. The group wished us to empathize and grieve for the sorrow, clearly remember and not let the them fade into oblivion, hoping their wound of loss will heal and to exist as a voice through music for the those voiceless, not as a mere figurative text, a visual video nor an objet.

voice for the voiceless comprises 5 themes, all of which are new compositions of programme music. Each theme consists of various musical arrangements, ranging from solo piece, string quartet to 14 string chamber orchestra compilation; all recorded live in a studio. These compositions have overall dramatic musical features, connecting lines of emotions through repetitive contraction and relaxation.

1 롤랑 바르트, 『애도일기』, 이순, 2012, p.165

¹ Roland Barthes, *Mourning Diary*, Macmillan, 2012, p.153





김범수

1965 서울 출생
 2009 파리 1대학 조형예술학 박사 논문 수료
 1999 파리 1대학 조형예술학 박사 준비과정 이수
 1992 흥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석사
 1988 흥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학사

개인전

2014 tête, 갤러리 스페이스선+, 서울
 2013 CLONAGE: 잠재적인 것들과 카타스로프 점들, 한전아트센터 갤러리, 서울
 2012 clonage/super-objects, 쿤스트독 갤러리, 서울
 2007 FLASH, 오스트로브스키 국립미술관, 모스크바, 러시아
 2004 La chair, 크로스-보자르-파리갤러리, 파리, 프랑스
 2003 double, 아ним마떼고 MJC, 쇼, 프랑스
 2002 Narcisse parle, 라갤러리 갤러리, 파리, 프랑스
 2000 분신, SK 포토갤러리, 서울
 1999 Heimlich & Unheimlich, 베르나노스 갤러리, 파리, 프랑스
 1992 Human Race –prologue-, 바탕골 갤러리, 서울

주요 단체전

2014 밀도, 부피, 시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Poétique, 정석희, 김범수 2인전,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Intro,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The Only Time Is Now,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2013 상수&이와쿠라, 교토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하우스, 일본
 두 개의 유토피아, GS칼텍스 예술마루, 여수
 서울국제조각페스티벌2013,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2012 개에게 먹힌 뇌, CSP111 갤러리, 서울
 20th ANNIVERSARY 소나무, 파리-서울, 아라아트
 미술관, 서울
 2011 ALLOPLASTIC, 갤러리인, 서울
 하이쿠 조각 2011, 타이페이국립예술대학, 대만
 2010 SCULPTURE 2010, 트리엔날레 밀라노, 인천특별전시관
 2009 쿤스트독 공모작가전, 쿤스트독 갤러리, 서울
 2008 KIAF2008, 코엑스인디안홀, 서울
 부산비엔날레:EXPENDITURE, 부산시립미술관
 2007 크리스마스 숲을 거닐다, 두산아트센터, 서울
 생각하는 I, 성곡미술관, 서울
 상상공작소-동물이야기,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2004 시제 비엔날레, 에스파스시제, 시제, 프랑스
 暗-示 Umbra, 성곡미술관-국민아트갤러리-
 유아트스페이스갤러리, 서울
 2000 제45회 살롱 드 몽후쥬, 몽후쥬문화원, 몽후쥬, 프랑스
 1999 TEC/TECE 1999, 메종 데 아쏘시아시옹 아를르,
 아를르, 프랑스

레지던시

2012- 장흥조각아뜰리에
 2013

KIM Beom-Soo

1965 born in Seoul
 2009 Doctorat d'Arts Plastiques, Université Paris I, France
 1999 DEA d'Arts Plastiques, Université Paris I, France
 1992 MFA in department of sculpture, College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Seoul
 1988 BFA in department of sculpture, College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Seoul

Solo Exhibitions

2014 tête, gallery space sun+, Seoul
 2013 CLONAGE: virtual things & catastrophe points, kepco gallery, Seoul
 2012 clonage/super-objects, KunstDoc gallery, Seoul
 2007 FLESH, The Ostrovsky State Museum, Moscow, Russia
 2004 La chair, Gallery Crous-Beaux-Art, Paris, France
 2003 double, L'Animathèque MJC, Sceaux, France
 2002 Narcisse parle, Gallery lagalerie, Paris, France
 2000 Le Double, Gallery SK, Seoul
 1999 Heimlich / Unheimlich, Gallery BERNANOS, Paris, France
 1992 Human Race –prologue-, BatangGol gallery,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4 Density, Volume, and Time, MMCA Seoul
 Poétique, Jung Seok-Hee, Kim Beom-Soo
 Two Persons Show, MMCA Residency
 Changdong, Seoul
 Intro, MMCA Seoul
 The Only Time Is Now, MMCA Residency
 Changdong, Seoul
 2013 International Sculpture Festa 2013, Hangaram Art Musem, Seoul Arts Center
 SANG SU & IWAKURA, Kyoto International Community House, Kyoto, Japan
 UTOPIA/2, GS Caltex Yeulmaru, Yeosu
 2012 Brain Was Eaten by the Dog, CSP111 gallery, Seoul
 20th ANNIVERSARY SONAMOU, Paris-Seoul, Museum of ARAart, Seoul
 2011 ALLOPLASTIC, Gallery IHN, Seoul
 Haiku-Sculpture, 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Taiwan
 2010 SCULPTURE 2010, Triennale di Milano, Incheon Special Musem

2009 2009 Kunst Doc art competition, Kunst Doc gallery, Seoul
 2008 KIAF2008, Coex Indian Hall, Seoul

BUSAN BINNALE 2008:EXPENDITURE, Busan Museum of Modern Art

2007 Working through forest on Christmas, DOOSAN ART CENTER, Seoul

think I , SungKok Art Museum, Seoul
 image-animal factory, Museum of KYUNGNAM, Changweun

2004 Umbra, SungKok Art Museum-Galerie Kookmin Art-Yoo Artspace, Seoul

2000 45ème Salon de Montrouge, Montrouge, France

1999 TEC/TECE 1999, Maison des Associations d'ARLES, Arles, France

Residency

2012- Jangheung Sculpture Atelier
 2013

이귀영

1965 서울 출생
 1991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원 서양화과 석사
 1989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학사

개인전

2010 Seoul Modern Art Show-이귀영전, 서울aT센터, 서울
 2006 가상공간-도시, 자연, 인간, 아트링크갤러리, 서울
 MANIF12!06, 서울국제아트페어전, 예술의전당, 서울
 2005 근대건축을 통해 본 가상적 공간체험, 두아트갤러리, 서울
 2002 Virtual Architecture 혹은 공간체험의 가상적 방식, 인사아트센터, 서울
 1992 이귀영 개인전, 바탕골미술관, 서울

주요 단체전

2014 밀도, 부피, 시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INTRO,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한민국미술대전2013 수상작가(구상부문) 초대전, 강릉시립미술관
 2013 제33회 채림전-거울 사이: 무한 가역성, 이화여자대학교이화아트센터, 서울
 리필전, 서울미술관
 2012- 채림전, 관훈갤러리, 서울
 2005
 2010 제38회 한국여류화가협회전,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2009 Passage 2009, 유니버설큐브, 라이프치히, 독일

2008 관훈갤러리 개관 30주년 기념전: 지각과 총동, 관훈갤러리, 서울

2007 Paris 2007-현대미술한불교류전, 에스파스보르페르, 파리, 프랑스

NEW YORK ART EXPO 2007, 재빗컨벤션센터, 뉴욕, 미국

2006 제2회 부산롯데아트페어, 롯데백화점, 부산
 조선화랑35주년 기념초대전, 조선화랑, 서울
 2005 요코하마 국제미술대제전, 요코하마시립미술관, 일본
 제1회 서울청년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2004 동아미술제 미술동우회원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수상

2013 서울미술대전 서울미협이사장상, 서울시립미술관
 대한민국 미술대전 비구상부문, 구상부문 특선, 서울시립미술관
 2012 대한민국 미술대전 구상부문 특선, 서울시립미술관
 전국 메트로미술대전 우수상
 2011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공모 선정
 2006-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 예술지원사업 선정
 2005
 2002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2000 동아미술제 특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1997 MBC미술대전 특선, 서울아트센터

LEE Gui-Young

1965 Born in Seoul
 1991 MFA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1989 BFA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Solo Exhibitions

2010 Solo Exhibition, aT Center, Seoul
 2006 Virtual Space-City, Nature, Human, Artlink Gallery, Seoul
 MANIF12!06 Seoul International Art Fair, Seoul Arts Center, Seoul

2005 Experiencing Virtual Space through the Modern Architecture, DoArt gallery, Seoul
 2002 Virtual Architecture or Virtual Mode of Space Experience, In-Sa Art Center, Seoul

1992 Solo Exhibition, BatangGol Gallery,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4 Density, Volume, and Time, MMCA Seoul
 Intro, MMCA Seoul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2013, Gangneung Museum

2013 ChaiRim Exhibition: Between Mirrors-Infinite Reversibility,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Refill Exhibitions, Seoul Museum of Art
2012- ChaiRim Exhibition, KwanHoon Gallery, Seoul
2005
2010 The 38th Korea Woman Fine Artists Association, Gallery Chosun, Seoul
2009 Passage2009, Universal Cube/Halle 14, Leipzig, Germany
2008 Perception and Impulse, The 30th Anniversary Exhibition, Kwanhoon Gallery, Seoul
2007 Paris 2007, Exposition D' Echange Coree-France Art Contemporain, Espace Beaurepaire, Paris, France
NEW YORK ART EXPO 2007, Javit Convention Center, New York, USA
2006 The 2nd Busan Lotte Art Fair, Lotte Department store Busan Main store
The 35th Invited Exhibition, Gallery Chosun, Seoul
2005 Yokohama Triennale 2005: International Triennale of Contemporary Art, Yokohama Museum of Art, Yokohama, Japan
The 1st Seoul Young Artist Biennial, Seoul Museum of Art
2004 Dong-A Art Festival: Art Fellow Association Exhibition, MMCA Gwacheon

Awards

2013 The 11th Seoul Fine Arts Competition, Seoul fine arts association Director Prize
The 32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Special Prize (Division: Representational Painting), Seoul Museum of Art
The 32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Special Prize (Division: Non-Representational Painting), Seoul Museum of Art
2012 The 31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Special Prize (Division: Representational Painting), Seoul Museum of Art
Seoul Metro Fine Arts Awards 2012 Excellence Prize, Seoul Metropolitan Subway Corporation
2011 Seoul Museum of Art director offering selected works
2006-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5
2002 Dong-A Art Festival Dong-A Art Prize, MMCA Gwacheon
2000 The 12th Dong-A Art Festival 'Special Prize', MMCA Gwacheon
1997 MBC Art Grand Exhibition 'Special Prize', Seoul Art Center

정석희

1964 서울 출생, 서울에서 거주 및 작업
1999 뉴욕공대 대학원 커뮤니케이션아트전공 석사
1995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
1992 한성대학교 서양화전공 학사
개인전
2012 가벼운 변화들, 아트센터 나비, 서울
2009 강을 건너는 법, 갤러리루트, 서울
2008 금호동 산7번지, 아트포럼뉴게이트, 서울
2007 Sofa, 뉴게이트이스트갤러리, 서울
주요 단체전
2014 Open Sailing, 아트센터 나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밀도, 부피, 시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Poiétique, 정석희, 김범수 2인전,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Intro,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The Only Time Is Now,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2013 광주 국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구 전남도청 미디어 파사드, 광주 광주 국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서울 스퀘어미디어 아트센터, 서울 평창스페셜올림픽, 알펜시아컨벤션센터, 평창 Digital Furniture, 아트센터 나비, 서울
2012 The Last Wall Begins, 아르코대극장, 서울

수상

2005 AHL파운데이션현대미술경연, 그랜드프라이즈, 뉴욕, 미국
2004 한용진 미술상, 뉴욕, 미국
2000 뉴저지 시각예술센터 국제공모전 선정작가 전, 써밋, 미국

JUNG Seok-Hee

1964 born in Seoul, lives and works in Seoul
1999 MA Communication Art, New York Institute of Technology, New York, USA
1995 MA Art Education, Kyung Hee Univ., Seoul
1992 BFA Fine Art, Han Sung Univ., Seoul
Solo Exhibitions
2012 Light Variations, Art Center Nabi, Seoul
2009 How to Cross a River, Gallery Root, Seoul
2008 The Mountain 7th of Keum Ho Dong, Artforum Newgate Gallery, Seoul
2007 Sofa, Newgate East Gallery,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4 Open Sailing, Art Center Nabi, JeJu ICC Density, Volume, and Time, MMCA Seoul Poiétique, Jung Seok-Hee, Kim Beom-Soo Two Persons Show, MMCA Residency Changdong, Seoul Intro, MMCA Seoul The Only Time Is Now, MMCA Residency Changdong, Seoul
2013 Gwang Ju International Media Art Festival, Old Jeollanamdo Province Media-Facade, Gwang Ju Gwang Ju International Media Art Festival, Seoul Square Media Art Center, Seoul PyeongChang Special Olympic, Alpensia CC, PyeongChang Digital Furniture, Art Center Nabi, Seoul
2012 The Last Wall Begins, Arko Grand Theater, Seoul
Awards
2005 AHL Foundation Annual Contemporary Art Competition, Grand Prize, New York, USA
2004 Han Yong Jin Art Award, Excellent Video Artist, New York, USA
2000 International Juried Show 2000, New Jersey Visual Art Center, Summit, USA

가비 타풀리크

1972 독일 멜브뤼크 출생, 베를린에서 거주 및 작업
2007 갈버트 교수 수학 마이스터쉴러 과정 졸업
2006 독일 하노버 응용과학예술대학 순수예술학사

주요 단체전

2014 In den Raum geflüstert, 갤러리 임 잘바우, 베를린, 독일 Utopisten & Weltenbauer, 퀸스틀러하우스 도르트문트, 독일 다리, 연결된 미래,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 울산
2013 Friends of the Institute, 암다일룸 푸르 알레스 안데레, 베를린, 독일 ortung VIII, 슈타트 수바바흐, 독일 C.A.R.-컨템포러리 아트 루르, 줄베레인 탄광산업단지, 에센, 독일
2012 Raum ermessen, 포르초하임 갤러리, 포르초하임, 독일 Rita, sagen Sie jetzt nichts! 골드러시 2012, 큐스트페어라인 티어가르텐, 베를린, 독일 schwein gehabt, 일타 실락토프, 카를스루에, 독일
2011 Konstruktion Dekonstruktion, 프로젝트라움, 알트 포이어흐, 베를린, 독일 Die Familie als Wurzel allen Übels, 풀바, 펠트카르하, 오스트리아 Flug der Wandelsterne, 갤러리ARTAe, 라이프치히, 독일

2010 Project Jardin, 벨레브-살, 비스바덴, 독일 Handgepäck hoch drei, 큐스트페어라인 에베르베르그, 마인츠, 독일
24. Mainzer Kunstpreis Eisenturm 2010, 큐스트페어라인 에베르베르그, 마인츠, 독일

2009 0X/01 FRISE-Kunstammer, 프리즈 퀸스틀러하우스, 함부르크, 독일 Boondocks, 퍼블릭스페이스 앤 쿠부스, 하노버, 독일 48 Stunden Neukölln, NoNY, 베를린, 독일
2008 Utopie des Raums, 국립미술관, 비슈케크, 키르기즈스탄 Geteiltes Doppel, 쿠투름, 라이프치히, 독일 Stelzenbunker, 북해안, 네스메어지일, 독일

수상

2012 카린 압트-슈트라우빙 재단상 베를린 골드러쉬 여성예술가프로젝트예술IT
2009 니더작센주 문화과학부 연간기금
2008 독일재단예술기금
2007 리델 데 하엔 재단상
술로스파크상
2004 기포호른 예술상
레지던시
2014 아덴도너 컬쳐스티펜디움, 독일

Gaby Taplick

1972 born in Delbrück, lives and works in Berlin, Germany
2007 Meisterschüler under Prof. Bernhard Garbert
2006 MF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and Arts, Hannover, Germany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4 In den Raum geflüstert, Galerie im Saalbau, Berlin, Germany
Utopisten & Weltenbauer, Künstlerhaus Dortmund, Germany
Bridge to the Future, Taehwa River Eco Art Festival, Ulsan
2013 Friends of the Institute, Abteilung für Alles Andere, Berlin, Germany
ortung VIII, Stadt Schwabach, Germany
C.A.R.-Contemporary Art Ruhr, Welterbe Zollverein, Essen, Germany
2012 Raum ermessen, Pforzheim Galerie, Pforzheim, Germany
Rita, sagen Sie jetzt nichts! Goldrausch 2012, Kunstverein Tiergarten, Berlin, Germany
schwein gehabt, Alter Schlachthof, Karlsruhe, Germany

2011 Konstruktion Dekonstruktion, Projektraum Alte Feuerwache, Berlin, Germany
Die Familie als Wurzel allen Übels, Poolbar, Feldkirch, Austria
Flug der Wandelsterne, Galerie ARTAe, Leipzig, Germany

2010 Project Jardin, Bellevue-Saal, Wiesbaden, Germany
Handgepäck hoch drei, Kunstverein Ebersberg, Germany
24. Mainzer Kunstpreis Eisenturm 2010, Kunstverein Eisenturm, Mainz, Germany

2009 0X/01 FRISE-Kunstammer, Frise Künstlerhaus, Hamburg, Germany
Boondocks, Public Space und Kubus, Hannover, Germany
48 Stunden Neukölln, NoNY, Berlin, Germany

2008 Utopie des Raums, Nationales Museum fuer Bildende Künste, Bischkek, Kyrgyzstan
Geteiltes Doppel, Kuhturm, Leipzig, Germany
Stelzenbunker, Nordseeküste, Nessmersiel, Germany

Awards

2012 Projectgrant Karin Abt-Straubinger Stiftung Goldrausch Künstlerinnenprojekt art IT Berlin
2009 Annual working grant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Science of Lower Saxony
2008 Projectgrant Stiftung Kunstfonds
2007 Award Riedel de Haen Stiftung
Award Schlosspark
2004 Award Kunstpreis

Residency

2014 Attendorner Kulturstipendium, Germany

마사유기 미야지

1985 일본 미에현 출생, 미에현 거주 및 작업
2011 국립도쿄예술대학 대학원 회화과 석사
2009 일본 타마미술대학 조소과 학사

주요 단체전

2014 KINGDOM, 방콕, 태국
2013 상호대화, 가창창작스튜디오, 대구
2012 트랜스아트 도쿄 2012, 일본

레지던시
2013 가창창작스튜디오, 대구
2012 흄습, 베이징, 중국
오노베카, 사포로, 일본
2008 제로데이트, 오다테, 일본

Masayuki Miyaji

1985 born in Mie prefecture, lives and works in Mie prefecture, Japan
2011 MFA Painting,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Tokyo, Japan
2009 BFA Sculpture, Tama Art University, Tokyo, Japa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4 KINGDOM, Bangkok, Thailand
2013 INTER-DIALOGUE, Gachang Art Studio, Daegu
2012 TRANS ARTS TOKYO 2012, Tokyo, Japan

Residencies
2013 Gachang Art Studio, Daegu
2012 HomeShop, Beijing, China
Onobeka, Sapporo, Japan
2008 ZERODATE, Odate, Japan

오토 후덱

1981 슬로바키아 코시체 출생, 슬로바키아 거주
2007 슬로바키아 예술디자인아카데미 순수예술석사
2005 슬로바키아 예술디자인아카데미 순수예술학사

주요 개인전
2013 Nomadia, 무투우 이스바수 데 아르떼, 바르셀로나, 스페인
2012 Nomadia, 간디갤러리, 브라티슬라바, 슬로바키아
Corn Song/Kukuri ná piešte, 니트라갤러리, 니트라, 슬로바키아
Tales from the Other Seas, 이스파수 제스튜, 포르토, 포르투갈
2011 Traffic Jam, 미셀라네아스페이스, 바르셀로나, 스페인

주요 단체전

2014 Committed to Change, 트란지트, 브라티슬라바, 슬로바키아
Dve krajin, 슬로바크국립미술관, 브라티슬라바, 슬로바키아
#underthestars, 크놀갤러리, 비엔나, 오스트리아
2013 Projekt Karavan, SPOTs, 코시체, 슬로바키아
Instrument for Listening, Make Art with Purpose triennial, 달拉斯, 미국
2012 Cena Oskára Čepana, 젊은시각예술가상, 갤러리 우멜카, 브라티슬라바, 슬로바키아
2011 Voices from the Center, 쓰리월스갤러리, 시카고, 미국
2009 Bienal Mercosul, 산단데르문화원, 포르투 알레그레, 브라질

수상

2011 오스카 세판상 파이널리스트

레지던시
2014 페리페르네 센터, 반스카비스트리, 슬로바키아
2013 센트럴 트락, 달拉斯, 미국
2011 쓰리월스갤러리, 시카고, 미국

Oto Hudec

1981 born in Košice, lives and works in Slovakia
2007 MFA Academy of Fine Arts and Design, Bratislava, Slovakia
2005 BFA Academy of Fine Arts and Design, Bratislava, Slovaki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3 Nomadia, Mutuo Espacio de Arte, Barcelona
2012 Nomadia, Gandy Gallery, Bratislava, Slovakia
Corn Song/Kukuri ná piešte, Nitrianska Galéria, Nitra, Slovakia
Tales from the Other Seas, Espaço Gesto, Porto, Portugal
2011 Traffic Jam, Miscelanea space, Barcelona, Spai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4 Committed to Change, Tranzit, Bratislava, Slovakia
Dve krajin, Slovak National Gallery, Bratislava, Slovakia
#underthestars, Knoll Gallerie, Vienna, Austria
2013 Projekt Karavan, SPOTs, Košice, Slovakia
Instrument for Listening, Make Art with Purpose Triennial, Dallas, USA
2012 Cena Oskára Čepana, Young Visual Artist Award, Galéria Umeľka, Bratislava, Slovakia
2011 Voices from the Center, Threewalls Gallery, Chicago, USA
2009 Bienal Mercosul, Santander Cultural, Porto Alegre, Brazil

Award

2011 Finalist of Oskár Čepan Prize for Young Slovak Artists

Residencies

2014 Periférne centrá, Dúbravica, Slovakia
2013 Central Trak, Dallas, USA
2011 Threewalls Gallery, Chicago, USA

이샤이 가르바즈

2004 미국 바드대학교 사진학 학사
2000 미국 트램퍼산 선산승원 입소 및 트레이닝
1996 미국 랜드마크대학 수학

주요 개인전
2014 Ritual & Reality, 로날드펠드만파인아트, 뉴욕, 미국
2013 Coming Home, Pictures of Jewish women, 니즈닉갤러리, 월섬, 미국
2009 In My Mothers Footsteps, 도쿄원더사이트, 일본
In My Mothers Footsteps, 와코웍스오브아트, 도쿄, 일본
2008 In My Mothers Footsteps, 치앙마이미술관, 태국
2007 In The Same House: Where a family lived for four or more generations, 자동향, 대만
In The Same House: Where a family lived for four or more generations, 메이농하카문화박물관, 가오슝, 대만
2006- The Fence, 키케로폴리티컬갤러리, 베를린, 독일
2007
2005 Traces & Omens, 누데리하사진페스티벌, 호로닝언, 네덜란드
2004 Israel in More Than One Dimension, 베르텔스만캠퍼스센터, 바드대학교, 뉴욕, 미국
Being Seen, 우즈스튜디오, 바드대학교, 뉴욕, 미국

주요 단체전

2012 Have We Met Before, 로날드펠드만파인아트, 뉴욕, 미국
2010 진화 속의 삶, 부산비엔날레, 부산
Resurrectine, 로날드펠드만파인아트, 뉴욕, 미국
Print & Bound, 와코웍스오브아트, 도쿄, 일본
2007 In The Same House: Where a family lived for four or more generations, 키오-아-타우, 가오슝, 대만
The gift of tongues, 컨퍼런스오브버드, 방콕, 태국
2004 Israel in More Than One Dimension, 힐렐파운데이션, 워싱턴D.C, 미국

레지던시

2013 백령도평화예술레지던시프로젝트, 인천
도쿄원더사이트 입주교환작가프로그램, 일본
하다사-브랜다이스연구소, 월섬, 미국
2009 도쿄원더사이트 국제초청작가프로그램, 일본
2007 키오-아-타우 제당공장 아티스트빌리지, 가오슝, 대만
2008
2007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도쿄, 일본

출판물

2010 Becoming: a Gender Flipbook, 마크베티출판사
2009 In My Mothers Footsteps, 핫체칸츠

Yishay Garbasz

2004 BA Photography, Bard College, Annandale-on-Hudson, New York, USA

2000 Residential monastic Zen training, Zen Mountain Monastery, Mt. Tremper, New York, USA

1996 Landmark College, Putney, US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4 Ritual & Realty, Ronald Feldman Fine Art, New York, USA

2013 Coming Home, Pictures of Jewish women, Kniznick Gallery at the Women's Studies Research Center (WSRC) at Brandeis University, Waltham, USA

2009 In My Mothers Footsteps, Tokyo Wonder Site, Japan
In My Mothers Footsteps, Wako Works of Art, Tokyo, Japan

2008 In My Mothers Footsteps, Chaing Mai museum of art, Thailand

2007 In The Same House: Where a family lived for four or more generations, Jia-dong, Taiwan
In The Same House: Where a family lived for four or more generations, Meinong Hakka Culture Museum, Kaohsiung, Taiwan

2007- The Fence, Cicero political gallery, Berlin, Germany

2006

2005 Norderlicht Fotofestival, Groningen, Holland

2004 Israel in More Than One Dimension, Bertelsmann Campus Center, Bard College, New York, USA
Being Seen, Woods Studio, Bard College, New York, US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2 Have We Met Before, Ronald Feldman Fine Arts, New York, USA

2010 Living in Evolution, Busan Biennale, Busan Resurrectine, Ronald Feldman Fine Art, New York, USA

Print & Bound, Wako Works of Art, Tokyo, Japan

2007 In The Same House: Where a family lived for four or more generations, Kio-A-Thau, Taiwan
The gift of tongues, Conference of birds, Bangkok, Thailand

2004 Israel in More Than One Dimension, Hillel Foundation, Washington D.C, USA

Residencies

2013 IAP Baengnyeong-do Peace Arts Residency Project, Incheon
Tokyo Wonder Site, Exchange Program, Japan
Hadassah-Brandeis Institute, Boston Mass, Artist in Residency, Waltham, USA

2009 Tokyo Wonder Site Creator-in-Residence – International Nomination Program, Japan

2008- Kio-A-Thau Sugar Refinery Artist Village Artist-in-Residence Program, Kaohsiung, Taiwan

2007 Artist-in-Residence Tokyo (A.R.T.), Japan

Publications

2010 Becoming: a Gender Flipbook, Mark Batty Publisher

2009 In My Mother's Footsteps, Hatje Cantz

자히 하크몬

1981 이스라엘 출생, 남텔아비브 거주
2012 이스라엘 브자렐 예술아카데미 예술학사
영국 슬레이드 예술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2008 이스라엘 하타하나미술학교 수학
이스라엘 훌론공과대학 산업디자인과 수학

주요 단체전

2014 A Room of His Own, 아트선재센터, 서울
Waterscapes, 금호미술관, 서울
MAC International, 더맥, 벨파스트, 아일랜드
Aliyah Market, STA갤러리, 텔아비브, 이스라엘
Spot Connection,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No Man's Land, 예루살렘 예술가집, 예루살렘, 이스라엘
The Only Time Is Now,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2013 Hard to Get, 올드 센트럴 버스 스테이션, 텔아비브, 이스라엘
Goods, 바트암미술관, 바트암, 이스라엘
Spacious, 민사르갤러리, 텔아비브, 이스라엘
The Readymade Centennial, 하이파미술관, 하이파, 이스라엘
Port of Exit, 야파 항구, 행거 2, 야파, 이스라엘
Mother's Garden, 헥트하우스, 하이파, 이스라엘
2012 MuezzIn, 카이마갤러리, 야파, 이스라엘
Breathing Concrete, KG 45, 텔아비브, 이스라엘

장학금

2012 예루살렘재단 브자렐 예술아카데미 우수장학생
2009 브자렐 예술아카데미 장학생
예루살렘재단 브자렐 예술아카데미 우수장학생

Tsahi Hacmon

1981 born in Israel, lives in South Tel Aviv, Israel
2012 BFA, School of Fine Arts, Graduate Department of Art Bezalel, Jerusalem, Israel
Slade School of Fine Arts, UCL, London (Exchange Student), UK

2008 Hatahana, School for Figurative Drawing and Painting, Tel Aviv, Israel
Industrial Design, H.I.T (Holon Institute of Technology), Holon, Israe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4 A Room of His Own, Artsonje Center, Seoul
Waterscapes, Kumho Museum of Art, Seoul
MAC International, The MAC, Belfast, Ireland
Aliyah Market, STA Gallery, Tel Aviv, Israel
Spot Connection, MMCA Residency
Changdong, Seoul
No Man's Land, Jerusalem Artist House, Jerusalem, Israel
The Only Time Is Now, MMCA Residency
Changdong, Seoul

2013 Hard to Get, Old Central Bus Station, Tel Aviv, Israel
Goods, Bat-Yam Museum, Bat-Yam, Israel
Spacious, Minshar Gallery, Tel Aviv, Israel
The Readymade Centennial, Haifa Museum of Art, Haifa, Israel
Port of Exit, Jaffa Port, Hanger 2, Jaffa, Israel
Mother's Garden, Hecht House, Haifa, Israel

2012 MuezzIn, Kayma Gallery, Jaffa, Israel
Breathing Concrete, KG 45, Tel Aviv, Israel

Scholarships

2012 Stipend for outstanding students at Bezalel School of Fine Arts, awarded by The Jerusalem Foundation
2009 Bezalel School of Fine Arts scholarship
Stipend for outstanding students at Bezalel School of Fine Arts, awarded by The Jerusalem Foundation

제나 김

1973 부산 출생
2000 미국 예일대학교 미술대학 회화·판화 석사
1998 미국 쿠퍼유니언대학교 회화·드로잉 학사

주요 개인전

2012 Unaccompanied, 갤러리호, 뉴욕, 미국
2011 The Last Stag, 옆집갤러리, 서울
2009 Notion of Framing, 보이드갤러리 이니시에이티브, 서울
2005 Boxes, 한국문화원, 로스엔젤레스, 미국

주요 단체전

2014 Other Forms of Relations,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TEN, 신디 러커 갤러리, 뉴욕, 미국
2012 Operating System, 월드 앤 킴 갤러리, 뉴욕, 미국
2010 Illusive Dimensions, 텐리갤러리, 뉴욕, 미국
2009 Three Persons Exhibition, 백해영갤러리, 서울
For Excellence: The 11 KAFA Awarded Artists,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2008 Flight of the Mechanical Bumble Bee, WCO센터, 뉴욕, 미국
2006 Starting at the Edge, 머쉬룸아츠, 뉴욕, 미국
2005 The Riddle of Style-The Young Overseas Artist Exhibition, 서울아트센터
2002 Queens International, Queens Museum of Art, 퀸즈미술관, 미국

레지던시

2013 산타 페 아트 인스티튜트 입주작가 프로그램, 뉴멕시코, 미국
2009 엘리자베스 문화재단 스튜디오 펠로우쉽, 뉴욕, 미국
2007 스마크 멜론 입주작가 프로그램, 뉴욕, 미국

수상

2004 제8회 KAFA상

Jena H. Kim

1973 born in Busan
2000 MFA Painting and Printmaking, Yale School of Art, New Haven, USA
1998 BFA Painting and Drawing, Cooper Union School of Art and Science, New York, US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2 Unaccompanied, Gallery Ho, New York, USA
2011 The Last Stage, Next Door Gallery, Seoul
2009 Notion of Framing, Void Gallery Initiative, Seoul
2005 Boxes,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US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4 Other Forms of Relations, MMCA Residency
Changdong, Seoul
TEN, Cindy Rucker Gallery, New York, USA
2012 Operating System, Sylvia Wald and Po Kim Gallery, New York, USA
2010 Illusive Dimensions, Tenri Gallery, New York, USA
2009 Three Persons Exhibition, Paik Hae Young Gallery, Seoul
For Excellence: The 11th KAFA Awarded Artists, Museum of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8	Flight of the Mechanical Bumble Bee, WCO Center, New York, USA
2006	Starting at the Edge, Mushroom Arts, New York, USA
2005	The Riddle of Style-The Young Overseas Artist Exhibition, Seoul Arts Center
2002	Queens International, Queens Museum of Art, Queens, USA
	<u>Residencies</u>
2013	Santa Fe Art Institute Artist Residency Program
2009	Studio Fellowship from The Elizabeth Foundation for the Arts
2007	Smack Mellon Artist Studio Program
	<u>Award</u>
2004	8th KAFA(Korea Arts Foundation of America) Award

크리스티안 로흐	
1978	독일 파더보른 출생, 브라운슈바이크, 하노버에서 거주 및 작업
2014	독일 HBK대학 순수미술분야 마이스터슐러 과정 이수
2013	독일 HBK대학 순수미술분야 명예졸업
2008	스페인과 브라운슈바이크에서 미술 공부
	<u>주요 개인전</u>
2014	Grundsätzliches, Galerie auf Zeit, Brunswick, Germany
2012	EinRaumKlang, RFK, Paderborn, Germany
	<u>Selected Group Exhibitions</u>
2015	JIPPI JAA JAA JIPPIE JIPPIE JAAY!, Villa Arson, Nice, France
2014	The only Time is Now, MMCA Residency Changdong, Seoul
	Espacio Enter Canarias, Tenerife, Spain
	The Statement: Sound-Installation, Brunswick, Germany
	All artists are either cowboys or indians, Hermanshof, Germany
2013	Nominierten, Kunsthalle, Wilhelmshafen, Germany
	RFK Wintersalon, Paderborn, Germany
	European Media Art Festival, Osnabrück, Germany
	Artgeschoss, Wolfenbüttel, Germany
	Mystique, Magdeburg, Germany
	Hörkunstfestival, Erlangen, Germany
2012	Postcards, Goethe Institut, Lyon, France
	Koordinatenfestival, Kiel, Germany
2010	Ikas-Art, Bilbao, Spain
2009	Bienale OFF, Santa Cruz de Tenerife, Canarias, Spain
	<u>Award</u>
2013	German Federal Foundation for the Reappraisal of the SED Dictatorship "history codes 2013" Design of a monument for the victims of the communist dictatorship in the Soviet Zone and GDR

2009	비엔날레OFF, 산타크루스 데 테네리페, 카나리아, 스페인
	<u>수상</u>
2013	소비에트 지역과 베를린 GDR에 공산주의 독재정권의 희생자들을 위한 기념비 설립 공모전
	Christian Lohre
1978	born in Paderborn, lives and works in Brunswick and Hannover, Germany
2014	Meisterschüler, Fine Art, HBK University, Brunswick, Germany
2013	Diploma with Honor, Fine Art, HBK University, Brunswick, Germany
2008	Art Studies in Spain and Brunswick
	<u>Selected Solo Exhibitions</u>
2014	Grundsätzliches, Galerie auf Zeit, Brunswick, Germany
2012	EinRaumKlang, RFK, Paderborn, Germany
	<u>Selected Group Exhibitions</u>
2015	JIPPI JAA JAA JIPPIE JIPPIE JAAY!, Villa Arson, Nice, France
2014	The only Time is Now, MMCA Residency Changdong, Seoul
	Espacio Enter Canarias, Tenerife, Spain
	The Statement: Sound-Installation, Brunswick, Germany
	All artists are either cowboys or indians, Hermanshof, Germany
2013	Nominierten, Kunsthalle, Wilhelmshafen, Germany
	RFK Wintersalon, Paderborn, Germany
	European Media Art Festival, Osnabrück, Germany
	Artgeschoss, Wolfenbüttel, Germany
	Mystique, Magdeburg, Germany
	Hörkunstfestival, Erlangen, Germany
2012	Postcards, Goethe Institut, Lyon, France
	Koordinatenfestival, Kiel, Germany
2010	Ikas-Art, Bilbao, Spain
2009	Bienale OFF, Santa Cruz de Tenerife, Canarias, Spain
	<u>Award</u>
2013	German Federal Foundation for the Reappraisal of the SED Dictatorship "history codes 2013" Design of a monument for the victims of the communist dictatorship in the Soviet Zone and GDR

하이데 히너히스	
1976	올덴부르크 출생, 벨기에 브뤼셀, 독일 올덴부르크 거주
2006	벨기에 앤트워프 H.I.S.K.에서 수학
2004	독일 드레스덴 국립조형예술대 율리케 그로사스 교수 수학
2002	마이스터슐러 과정 이수
2000	독일 카셀대학교 수학
	<u>주요 개인전</u>
2014	Demisenses, 티헨보쉬판프레덴,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2013	my shiver, your suspense(purple breathing), 갤러리타티아나피테르, 겐트, 벨기에
2012	Echoes, 하이델베르크 콘스트베아인, 하이델베르크, 독일
	Rose belongs to lotus, 2, Circulations, 워터사이드컨템포러리, 런던, 영국
2010	Librarian left, 갤러리타티아나피테르, 겐트, 벨기에
2009	Borrowed tails, Sam Next, 시애틀미술관, 시애틀, 미국
	Rose belongs to lotus / Rikki's, 하워드하우스, 시애틀, 미국
2006	I AM STILL IN THE WOODS, 쿤스트페어라인알렌, 알렌, 독일
	<u>주요 단체전</u>
2014	Paper Works, 갤러리타티아나피테르, 겐트, 벨기에
	Silent Review,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2013	Villa Romana 1905-2013, The Artists' House in Florence, 분데스쿤스트활레본, 독일
	Süden, 쿤스트활레DB, 베를린, 독일
	Villa Romana fellowship: Shannon Bool, Mariechen Danz, Heide Hinrichs, Daniel Maier-Reimer, 빌라모나, 피렌체, 이탈리아
2012	NEW, 티헨보쉬판프레덴,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2011	change of address, 갤러리 타티아나 피테르, 겐트, 벨기에
	Heide Hinrichs, Tatiana Macedo, Aldwin van de Ven, 티헨보쉬판프레덴,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2010	2010 Rafa The Magician, 네트워크현대미술센터, 알스터, 벨기에
	S(l)umm(er)ing on Madison Avenue, 더노터리퍼블릭, 뉴욕, 미국
2009	The atlas of gifted ideas, 기프트샵, 헨리아트갤러리, 시애틀, 미국
	Knast sind immer die anderen, ngbk 베를린, 베를린, 독일
	Zwei Erzählungen von Etwas, SAMSA, 베를린, 독일
	Second People, Helm Gallery, 타코마, 미국
2008	Principle Hope, 마니페스타7, 로베레토, 이탈리아
2006	Barrack Final Show HISK, 앤트워프, 벨기에
2001-	project ,the horse, 카셀,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울란바토르
1998	Villa Romana fellowship: Shannon Bool, Mariechen Danz, Heide Hinrichs, Daniel Maier-Reimer, Villa Romana, Florence, Italy
	<u>Selected Group Exhibitions</u>
2014	Paper Works, Galerie Tatjana Pieters, Ghent, Belgium
	Silent Review, MMCA Changdong Residency, Seoul
2013	Villa Romana 1905-2013, The Artists' House in Florence, Bundeskunsthalle, Bonn, Germany
	Süden, KunsthalleDB, Berlin, Germany
	Villa Romana fellowship: Shannon Bool, Mariechen Danz, Heide Hinrichs, Daniel Maier-Reimer, Villa Romana, Florence, Italy

2012 NEW, tegenboschvanvreden, Amsterdam, Netherlands
 2011 change of address, Galerie Tatjana Pieters, Ghent, Belgium
 Heide Hinrichs, Tatiana Macedo, Aldwin van de Ven, tegenboschvanvreden, Amsterdam, Netherlands
 2010 Rafa The Magician, Netwerk, Center for Contemporary Art, Aalst, Belgium
 S(l)umm(er)ing on Madison Avenue - The Notary Public, New York, USA
 2009 The atlas of gifted ideas, The Gift Shop, Henry Art Gallery, Seattle, USA
 Knast sind immer die anderen, ngbk Berlin, Berlin, Germany
 Zwei Erzählungen von Etwas, Ausstellungsraum Samsa, Berlin, Germany
 Second People, Helm Gallery, Tacoma, USA
 2008 Principle Hope, Manifesta7, Rovereto, Italy
 2006 Barrack Final Show HISK, Antwerp, Belgium
 2001- project, the horse, Kassel - St.Petersburg - Irkutsk - Ulan - Bator

Awards

2013 Villa Romana fellowship, Florence, Italy
 2010 Sommerakademie, Zentrum Paul Klee, Berne, Switzerland
 2004 Robert - Sterl - Preis, Sammelstiftungen, Dresden, Germany
 Publications
 2014 Silent Signs, Villa Romana, argo books, Berlin
 2012 Echoes, hemel press, Brussels
 2009 Younger than Jesus: The Artist Directory, New Museum, Phaidon press
 2006 I Am Still in the Woods, Roma Publications Nr. 85-1, Kunstverein Ahlen e.V.

하이람 월

1982 홍콩 출생
 2011 영국 센트럴세인트마틴스예술대학 석사
 2005 미국 코넬대학교 건축학사
 주요 단체전
 2014 Breathless, 아워몬스터, 서울
 아시아미술페스티벌 2014, 안산
 Spot Connection,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The Only Time Is Now,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2013 Glasstress 2013, 제55회 베니스비엔날레 연계행사, 베렌고 유리 및 현대미술 센터, 베니스, 이탈리아
 2012 Lights In The Dusk, Part 2, 프레임리스갤러리, 런던, 영국
 Lights In The Dusk, Part 1, 프레임리스갤러리, 런던, 영국
 BOW ARTS Open Exhibition, 버몬지 프로젝트스페이스, 런던, 영국
 2011 M.A. Fine Art Degree Show, 센트럴세인트마틴스예술대학, 런던, 영국
 The New Pretenders, 더 바지하우스, 런던, 영국
 2010 Body Sessions, 자키클럽 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홍콩
 레지던시
 2014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마스, 안산
 수상
 2013 베렌고 예술상

Hiram Wong

1982 born in Hong Kong
 2011 MA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 & Design, London, UK
 2005 B.Arch Cornell University, College of Architecture, Art and Planning, Ithaca, US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4 Breathless, our MONSTER, Seoul
 Asia Art Festival 2014, Ansan
 Spot Connection, MMCA Residency Changdong, Seoul
 The Only Time Is Now, MMCA Residency Changdong, Seoul
 Glasstress, Collateral Event of the 55th Venice Biennale, Berengo Centre for Contemporary Art and Glass, Venice, Italy
 2012 Lights In The Dusk, Part 2, Frameless Gallery, London, UK
 Lights In The Dusk, Part 1, Frameless Gallery, London, UK
 BOW ARTS Open Exhibition, Bermondsey Project Space, London, UK
 2011 M.A. Fine Art Degree Show,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 & Design, London, UK
 The New Pretenders, The Bargehouse, London, UK
 2010 Body Sessions, Jockey Club Creative Arts Centre, Hong Kong
 Residency
 2014 Asia Art Residency, Community Space Litmus, Ansan

Award

2013 Berengo Art Prize (Juried by James Putnam, Charlotte Hodes) Berengo Centre for Contemporary Art and Glass, Venice, Italy

의 초우

1983 홍콩 출생, 세계 각지에서 거주 및 작업
 2014 핀란드 알토대학교 시각문화 석사
 2007 홍콩시립대학교 크리에이티브미디어대학 학사

주요 개인전

2014 The Burning and The Romance, 서드스페이스, 헬싱키, 핀란드
 Chow Yik and her things, 아라비아도서관, 헬싱키, 핀란드
 Chow Yik and her things, 루메갤러리, 헬싱키, 핀란드
 주요 단체전
 2014 포리비엔날레, 포리, 핀란드
 Space Invaders II, 포리, 핀란드
 2011 론스트롬미술관, 라우마, 핀란드
 2010 갤러리 아카데미, 빌뉴스, 리투아니아
 2006 베를린 탈렌츠, 독일

Yik Chow

1983 born in Hong Kong, lives and works in different places in the world
 2014 MA Visual Culture, Aalto University School of Arts, Design and Architecture, Helsinki, Finland
 2007 BA Creative Media,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School of Creative Media, Hong Kong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4 The Burning and The Romance, Third Space, Helsinki, Finland
 Chow Yik and her things, Arabia Kirjasto, Helsinki, Finland
 Chow Yik and her things, Lume Galleria, Helsinki, Finland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4 Pori Biennial, Pori, Finland
 Space Invaders II, Pori, Finland
 2011 Lönnström Art Museum, Rauma, Finland
 2010 Gallery Akademija, Vilnius, Lithuania
 2006 Berlinale Talents, Germany

케빈 가프니

1987 더블린 출생, 더블린에서 거주 및 작업
 2011 영국 왕립예술학교 사진 영상 석사
 2008 아일랜드 더블린공과대학 순수예술학사(수석졸업)

주요 개인전

2015 얼스터대학교 갤러리, 벨파스트, 북아일랜드
 2014 CAI02현대예술연구소, 삿포로국제예술제, 삿포로, 일본
 2012 The Observer & I, 골웨이아트센터, 골웨이, 아일랜드
 2011 The Unnameable, RUA RED, 사우스더블린아트센터, 더블린, 아일랜드

주요 단체전

2014 Other Forms of Relations,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Sorachi Coal Mine Exhibition, 삿포로국제예술제, 삿포로, 일본
 2013 The Poetry Project, 왕립아일랜드아카데미, 더블린, 아일랜드
 2012 We, 캐탈리스트아츠 갤러리, 벨파스트, 북아일랜드
 Abandon Normal Devices, 코너하우스, 맨체스터, 영국
 Startpoint Prize for Emerging Artists, NTK갤러리, 프라하, 체코
 The London Short Film Festival, 현대미술연구소(ICA), 런던, 영국
 레지던시

2015 드레이오토아트센터, 더블린, 아일랜드
 2014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 타이페이, 대만
 2012 스타포인트 프라이즈 레지던시, 프라하, 체코

수상

2014 아일랜드 예술진흥원 필름프로젝트상
 2012 제9회 런던단편영화제 리틀화이트라이즈상 수상
 2011 스타포인트 프라이즈 신진 작가 부문 특별상

Kevin Gaffney

1987 born in Dublin, lives and works in Dublin, Ireland
 2011 MA Photography & Moving Image, Royal College of Art, London, UK
 2008 BFA (1st Class Honors), Dublin Institute of Technology, Ireland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5 University of Ulster Gallery, Belfast, Northern Ireland
 2014 CAI02 Contemporary Art Institute, Sapporo International Arts Festival, Japan
 2012 Galway Arts Centre, Ireland
 2011 RUA RED, South Dublin Arts Centre, Ireland

<u>Selected Group Exhibitions</u>	
2014	Other Forms of Relations, MMCA Residency Changdong, Seoul
	Sorachi Coal Mine Exhibition, Sapporo International Art Festival, Japan
2013	The Poetry Project, Royal Hibernian Academy, Dublin, Ireland
2012	We, Catalyst Arts, Belfast, Northern Ireland Abandon Normal Devices, Cornerhouse, Manchester, UK Startpoint Prize for Emerging Artists, NTK Gallery, Prague, Czech Republic The London Short Film Festival, ICA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London, UK
<u>Residencies</u>	
2015	Draíocht Arts Centre, Dublin, Ireland
2014	Taipei Artist Village, Taipei, Taiwan
2012	Startpoint Prize for Emerging Artists Residency, Prague, Czech Republic
<u>Awards</u>	
2014	Film Project Award, Arts Council of Ireland
2012	Little White Lies Award from 9th London Short Film Festival, UK
2011	Honorary Mention from Startpoint Prize for Emerging Artists, Czech Republic

탄딜레 즈웰리반지

1987	이스턴 케이프 출생, 요하네스버그 거주
2010	마켓포토워크샵 고급과정 이수
2009	마켓포토워크샵 중급과정 이수
<u>주요 개인전</u>	
2012	Still Existence, 배일리세이펠 갤러리,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공화국
2011	Still Existence, 마켓포토워크샵 갤러리,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공화국
<u>주요 단체전</u>	
2014	새로운 필요-지역사회와 영토, 제5회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여수 독일노르트아트 국제전시회, 쿤스트워크 칼스하우스, 뷔델스도르프, 독일
2013	베일리세이펠 갤러리,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공화국
2012	Adaptation, 그레이트모어 스튜디오,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공화국
2011	For A Sustainable World: Rencontres de Bamako, 제9회 랑콩트르 드 바마코 아프리칸포토그래피 비엔날레, 바마코, 말리,

2010	Intaba/Mountains, 배일리세이펠 갤러리,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공화국
2010	Diversity: the Culture Factor, GTZ, 베를린, 독일
2009	Considering Documentary, 마켓포토워크샵 갤러리,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공화국
2009	Borders, 괴테온메인 갤러리,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공화국
<u>레지던시</u>	
2012	그레이트모어 스튜디오 레지던시,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공화국
2010	잘츠부르크 국제여름미술아카데미 레지던시, 잘츠부르크, 오스트리아
<u>수상</u>	
2010	제6회 에드워드루이즈 멘토십, 마켓포토워크샵

Thandile Zwelibanzi

1987	born in Eastern Cape, lives in Johannesburg, Republic of South Africa
2010	Advanced Programme in Photography Intervention with the Market Photo Workshop
2009	Intermediate Course, the Market Photo Workshop
<u>Selected Solo Exhibitions</u>	
2012	Still Existence, Bailey Seippel Gallery, Johannesburg, Republic of South Africa
2011	Still Existence, Market Photo Workshop Gallery, Johannesburg, Republic of South Afric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4	A new necessity-community & Territory, 5th Yeosu International Art Festival, Yeosu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NordArt, Kunstwerk Carlshütte, Büdelsdorf, Germany
2013	Bailey Seippel Gallery, Johannesburg, Republic of South Africa
2012	Adaptation, Greatmore studios, Cape Town, Republic of South Africa
2011	For a Sustainable World: Rencontres de Bamako, 9th Rencontres de Bamako African Photography Biennial, Bamako, Mali
	Intaba/Mountains, Bailey Seippel Gallery, Johannesburg, Republic of South Africa
2010	Diversity: the Culture Factor, GTZ, Berlin, Germany
	Considering Documentary, Market Photo Workshop Gallery, Johannesburg, Republic of South Africa
2009	Borders, Goethe on Main Gallery, Johannesburg, Republic of South Africa

<u>Residencies</u>	
2012	Greatmore Studios Residency, Cape Town, Republic of South Africa
2010	Salzburg Residency, the International Summer Academy of Fine Arts, Austria
<u>Award</u>	
2010	6th Recipient of Edward Ruiz Mentorship, the Market Photo Workshop

마니쉬 랄 슈레스타

1979	네팔 출생
2001	인도 Sir J.J. 예술학교 순수예술학사
1995	네팔 리틀엔젤스학교 졸업
<u>주요 개인전</u>	
2011	From 2007 to 2011, 쉬탈가든갤러리, 카트만두, 네팔
2008	Interactive Site Specific Art Exhibition, 인더스밸리예술건축학교, 카라치, 파키스탄
2007	Sound of Nostalgia, Interactive solo art show, 네와첸, 랄릿푸르, 네팔
2006	Sound of Wisdom, 초타라아트갤러리, 알메라, 네덜란드
2006-	프라이빗컬렉션 전시, 프랑스
2003	Vibes I, 레즈에세, 쿠쥐, 스위스
2005	Vibes, 갤러리지오바네티, 로잔, 스위스
	Collective reverberation, 갤러리나인, 카트만두, 네팔
2004	Sound of existence, 카페미트라, 카트만두, 네팔
	Sound of existence, 미틸라아트갤러리, 카트만두, 네팔
	Sound of Hope, 갤러리나인, 카트만두, 네팔
	Sound of Intimacy II, 하얏트리젠시, 카트만두, 네팔
2003	Sound of Intimacy, 시다스아트갤러리, 카트만두, 네팔
2002	Sound of Silence, 스리자나컨템포러리아트갤러리, 카트만두, 네팔

주요 단체전

2014	Global Village (Abcoude/Landshut/Brondby Strand "Rebirth", Performing Art, 비칼파아트센터, 네팔
2013	I'm almost in Depression due to Load Shedding, God Please Rescue Nepal, 사르와남극장, 카트만두, 네팔
2012	Arts of Nepal, 아트센터하이랜드파크, 일리노이, 미국
2011	Future of History, 파크갤러리, 랄릿푸르, 네팔
2010	Two Men Show, 제랑스퍼블리아츠, 흐닝, 스위스
	방글라데시 비엔날레, 다카, 방글라데시
	Two Men Show, 제랑스퍼블리아츠, 흐닝, 스위스
	Propagation, 싯다르타아트갤러리, 카트만두, 네팔
2009	International Art Festival, 파탄박물관, 네팔

<u>Four Men Grand Art Exhibition - The Mystical Odysseys</u> , 자항기르아트갤러리, 뮤바이, 인도	
2008	Operation Heartbeat, Embassy of Japan, 마하라즈군, 카트만두, 네팔
2007	Friends of Bagmati, 래디슨호텔, 카트만두, 네팔
	Bells -Silence and sounds, Three Men Show, 갤러리32@ 덴트인, 카트만두, 네팔
2006	Two men Show, 초타라아트갤러리, 알메라, 네덜란드
2004	Group Exhibition 갤러리지오바네티, 로잔, 스위스
2000	Two men Show "Situation", 타임즈뱅크홀, 뮤바이, 인도

레지던시

2008	VASL아티스트레지던시, 카라치, 파키스탄 신진작가를 위한 나야 아와자루 레지던시, 카트만두, 네팔
2006	카라바르트국제아트페스티벌 아티스트캠프, 우자인, 인도 래잇칼라 록탄트릭 아비안, 구루쿨, 네팔
2005	Uttishtha, the new beginning- 수트라, 오쇼타포반, 네팔
2003	콕싱더네이처 – 수트라, 오쇼타포반, 네팔
2002	비찰릿 바르타만, 바산타푸르, 네팔
<u>수상</u>	
2011	네팔 예술아카데미 국가예술상
2005	제35회 네팔국립전람회 2등상
2004	제34회 네팔국립전람회 3등상
2000	뮤바이 Sir J.J. 예술학교 풍경화부문 2등상

Manish Lal Shrestha

1979	born in Nepal
2001	BFA Sir J.J School of Art, Bombay University, Mumbai, India
1995	School Leaving Certificate level, Little Angles School, Kathmandu, Nepal
<u>Selected Solo Exhibitions</u>	
2011	From 2007 to 2011, Sheetal Garden Gallery, Kathmandu, Nepal
2008	Interactive Site Specific Art Exhibition, Indus Valley School of Art and Architecture premise, Karachi, Pakistan
2007	Sound of Nostalgia, Interactive solo art show, Newa Chhen, Lalitpur, Nepal
2006	Sound of Wisdom, Chautara Art Gallery, Almere, Holland
2006-	Private Collection Shows, France
2003	Vibes I, Les Esserts, Cugy, Switzerland
2005	Vibes Gallerie Giovanetti, Lausanne, Switzerland Collective reverberation Gallery 9, Kathmandu, Nepal

2004	Sound of existence, Café Mitra, Kathmandu Nepal Sound of existence, Mithila Art Gallery, Kathmandu, Nepal Sound of Hope, Gallery 9, Kathmandu, Nepal Sound of Intimacy II, Hyatt Regency, Kathmandu, Nepal	Residencies 2008 VASL Artist Residency, Karachi, Pakistan Organized Naya Awazharu, Two Months Local Residency Program for young upcoming Artist, Kathmandu, Nepal
2003	Sound of Intimacy, Siddhartha Art Gallery, Kathmandu, Nepal	2006 Kalavart International Art festival and Artists camp, Ujjain, India Lalitkala Loktantrik Aviyan, Gurukul, Nepal
2002	Sound of Silence, Sirjana contemporary art Gallery, Kathmandu, Nepal	Theertha International Artists Collective, Kandy, Srilanka
	<u>Selected Group Exhibitions</u>	2005 Uttishta, the new beginning- Sutra, Osho Tapoban, Nepal 2003 Coaxing the Nature- Sutra, Osho Tapoban, Nepal 2002 Bichalit Bartaman, Basantapur, Nepal
2014	Global Village (Abcoude/Landshut/Brondby Strand) "Rebirth", Performing Art, Bikalpa Art Center, Nepal	<u>Awards</u> 2011 National Fine Art Award, Nepal Academy of Fine Art, Nepal
2013	I'm almost in Depression due to Load Shedding, God Please Rescue Nepal, Performance Art at Sarwanam Theatre, Kathmandu, Nepal	2005 2nd Prize, 35th National Exhibition, NAFA, Nepal 2004 3rd Prize, 34th National Exhibition, NAFA, Nepal
2012	Arts of Nepal, the Art Center Highland Park, Illinois, USA	2000 2nd Prize, Landscape competition, Sir J.J. School of Art, Mumbai, India
2011	Future of History, Park Gallery, Lalitpur, Nepal Two Men Show, Gerance Publiaz, Renens, Switzerland
2010	Asian Art Biennale Bangladesh, Dhaka, Bangladesh Two Men show, Gerance Publiaz, Renen, Switzerland Propagation, Siddhartha Art Gallery, Kathmandu, Nepal	수잔 치트라카르 1974 네팔 카트만두 출생 2001 인도 델리대학교 미술대학 순수예술석사 1999 인도 베나레스힌두대학교 순수예술학사 1994 네팔 트리부완대학교 상업학과 중급과정 이수 1993 네팔 트리부완대학교 순수예술학과 중급과정 이수 <u>주요 개인전</u> 2011- let's talk about ART baby, 싯다르타아트갤러리, 카트만두, 네팔 2010 Masticated Faces, ChapaayekaAnuhaarharu, 갤러리나인, 카트만두, 네팔 2004 Utopian Introspection - Random Expressions Within Defined Periphery, 싯다르타아트갤러리, 카트만두, 네팔 <u>주요 단체전</u> 2014 Spot Connection,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2013 Viewmasters, 토마스에이킨스하우스, 필라델피아, 미국 2012 Becoming, 콜롬보아트비엔날레, 스리랑카 2010 Planet Nepal, 카투만두프랑스문화원, 네팔 Separating Myths from Reality, 싯다르타아트갤러리, 카트만두, 네팔 2009 KhullaDhoka, 로열 오버-시즈 리그, 런던, 영국 2008 카투만두 세계페스티벌, 나파갤러리, 카투만두, 네팔 2008- Amalgam, 싯다르타아트갤러리, 카트만두, 네팔 2007 Cow, 갤러리나인, 카트만두, 네팔 2006 Parallel Realities, 블랙번미술관, 영국

2005	후쿠오카 트리엔날레,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일본	<u>Selected Solo Exhibitions</u>
2004	Old Masters Young Voices, 알함라아트센터, 라호르, 파키스탄 Uneven Fragments, 갤러리나인, 카트만두, 네팔 누가미카, 국제예술가워크숍소, 박타푸르, 네팔	2014 Spot Connection, MMCA Residency Changdong, Seoul
2003	록싱더네이처, 오쇼타포반, 카투만두, 네팔	2013 Viewmasters, Muralarts, Thomas Eakins House, Philadelphia, USA
2002	단체전, 라이오넬 웹트 아트갤러리, 콜롬보; 알리앙스프랑세즈, 캔디, 스리랑카 국전, 국립미술아카데미, 카트만두, 네팔 졸업전, 인도조형예술협회갤러리, 뉴델리, 인도	2012 Becoming, Colombo Art Biennale, Colombo, Sri Lanka
2001	Journey, 러크나우, 인도	2010 Planet Nepal, Alliance Française of Kathmandu, Nepal
2000	Confluence, 네팔예술협회, 카트만두, 네팔	2009 KhullaDhoka, The Royal Over-Seas League In St James, UK
1999	Saransh, 베나레스힌두대학교, 바라나시, 인도 Holi Nostalgia 2, 베나레스힌두대학교, 바라나시, 인도	2008 World Festival 2008, Kathmandu, World Arts Forum, Nafa Galleries, Kathmandu, Nepal
	Bangdel Memorial Exhibition, 네팔예술협회, 카트만두, 네팔	2007 Amalgam, Siddhartha Art Gallery, Baber Mahal Revisited, Kathmandu, Nepal
1998	International Student Art Show, 베나레스힌두대학교, 바라나시, 인도 Holi Nostalgia, 팩컬리오브비쥬얼아트, 바라나시, 인도	2006 Parallel Realities, Blackburn Museum And Art Gallery, Blackburn, UK
1997	Impression Rajasthan, 베나레스힌두대학교, 바라나시, 인도 The Heritage Of Chitrakars, 네팔예술협회, 카트만두, 네팔	2005 Fukuoka Triennale, Faam, Fukuoka, Japan
	2004 Old Masters Young Voices, Alhamra Art Center, Lahore, Pakistan
2012	티타아티스트레지던시, 콜롬보, 스리랑카	Uneven Fragments, Gallery Nine, Kathmandu, Nepal
	레지던시	NugaMika, International Artist Workshop Show, Bhaktapur, Nepal
	장학금	2003 Coaxing The Nature, OshoTapoban, Kathmandu, Nepal
2014-	풀브라이트 리서치 장학금, 뮤럴아트프로그램, 필라델피아, 미국	2002 Group Show, Lionel Wendt Art Gallery, Colombo / Alliance française, Kandy, Sri Lanka
2013		National Exhibition, Nafa, Kathmandu, Nepal
		Graduation Show, Aifacs, New Delhi
		2001 Journey, Lucknow, India
		2000 Confluence, Nepal Art Council, Baber Mahal, Kathmandu, Nepal
		1999 Saransh, Benaras Hindu University, Varanasi, India
		Holi Nostalgia 2, B.H.U., Varanasi, India
		Bangdel Memorial Exhibition, Nepal Art Council
		Baber Mahal, Kathmandu, Nepal
		1998 International Student Art Show, B.H.U., Varanasi, India
		Holi Nostalgia, Faculty Of Visual Arts, Varanasi, India
		Impression Rajasthan, B.H.U., Varanasi, India
		1997 The Heritage Of Chitrakars, Nepal Art Council, Baber Mahal, Kathmandu, Nepal

Residency	
2012	Theertha Artist Residency, Colombo, Sri Lanka
Scholarship	
2014-	Fulbright Research Scholar, Mural Arts Program, Philadelphia, USA
2013	Philadelphia, USA

안네소피 산달

1977	서울 출생. 코펜하겐 거주 및 작업
2005	덴마크 왕립예술학교 순수예술석사

주요 개인전

2014	Loss Of Memory, Loss Of Power, 루스터갤러리, 뉴욕, 미국
	Everything Fades, 포맷아트스페이스, 코펜하겐, 덴마크
	KBH Kunsthall, 크라베스홀름, 스키네, 덴마크
2013	Dying Slowly Inside Out, 에이스아트갤러리, 위니펙, 캐나다
	Open Studios, ISCP, 뉴욕, 미국
2012	Every Body is an Island, 모르스쿤스트포레닝, 모르스, 덴마크
2011	Even in my Dreams it's a Battlefield, WAS, 코펜하겐, 덴마크
2009	Digging for Diamonds, 아트웍스, 코펜하겐, 덴마크
2008	Safari, 라카, 코펜하겐, 덴마크

주요 단체전

2014	Jonas' Julekort, 아틀리에셉템버, 코펜하겐, 덴마크
	Silent Review,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Still Waters Run Deep, 오덴세조각트리엔날레, 오덴세, 덴마크
	Virgin Production, 우덴가드 프로젝트, 오르후스, 덴마크
	Paper, 풍크갤러리, 뉴욕, 미국
2013	BetroetTvivl, 베엔미술관, 베엔, 덴마크
	Jonas' Julekort, 아틀리에셉템버, 코펜하겐, 덴마크
	Fall Salon, 밸레리갈너, 코펜하겐, 덴마크
	The Time Ils Now, 뮤지엄바이흐로닝언, 코펜하겐, 덴마크
	Beers 4, 비엔스크로, 코펜하겐, 덴마크
	Miss Baltazar's Laboratory, 사이언스프릭션, 코펜하겐, 덴마크
	Tunnel Vision, 포탈렌스갤러리, 그레베, 덴마크
2012	Exquisite Corpse, 모스팅스하우스, 코펜하겐, 덴마크
2011	Callous Hands, Ufo프로젝트, 베를린, 독일
	3rd Party, 비버프로젝트, 코펜하겐, 덴마크
	Absolut Bar, 로스킬데 페스티벌, 로스킬데, 덴마크
2010	Orgy, Traneudstillingen, 켄토프테, 덴마크
	Those who fold loose, 백아드갤러리, 코펜하겐, 덴마크

2009	A Flag For Every Occasion, WAS, 코펜하겐, 덴마크
	Bland Selv!, 갤러리볼프슨, 올보르, 덴마크
	Blind Caravan, 라운드타워, 코펜하겐, 덴마크
	Rialto, 원더랜드아트스페이스, 코펜하겐, 덴마크
	In a Basement Black as Coal, 티에터파302, 코펜하겐, 덴마크
	Settlers, 코펜하겐비즈니스스쿨, 코펜하겐, 덴마크
	Welcome to the Garage, 둉크, 발비, 덴마크
2008	Darkness Exhibited, 원더랜드아트스페이스, 코펜하겐, 덴마크
	Political Theater - Give to the rich, take from the poor, 라카, 코펜하겐, 덴마크
	Blink, 갤러리우데가드, 오르후스, 덴마크
	Echo Park, 툴카마한, 헬싱외르, 덴마크
	Funk, 살롯포그갤러리, 오르후스, 덴마크
	Sideshow, 실케보르바드아트센터, 실케보르, 덴마크
2007	Salon #1, 라우리츠쿤스트랄, 코펜하겐, 덴마크
	Island Life, 쇠네르윌란쿤스트뮤지엄, 토네르, 덴마크
	Match Race, 노르윌란쿤스트뮤지엄, 올보르그, 덴마크
	Objet Trouvé, 코이누르, 코펜하겐, 덴마크

2008	Live Painting, 리퀴드룸, 도쿄, 일본
	Diesel New Art 2006, 갤러리에디션, 코펜하겐, 덴마크
	Long Island Icetea, +라보라토리움, 코펜하겐, 덴마크
	The Modest Tree, 로스킬데 페스티벌, 덴마크
	Dunk iDurup, 두로프울드다이어리, 두로프, 덴마크
2006	FabrikSelvsving, 더팩토리포아트앤디자인, 아마게르, 덴마크
	Or are you just lost...?, 갤러리 우덴가르, 오르후스, 덴마크
	3d wonders 2, 전시공간 둉크, 아마게르, 덴마크

2007	Salon #1, 라우리츠쿤스트랄, 코펜하겐, 덴마크
	Island Life, 쇠네르윌란쿤스트뮤지엄, 토네르, 덴마크
	Match Race, 노르윌란쿤스트뮤지엄, 올보르그, 덴마크
	Objet Trouvé, 코이누르, 코펜하겐, 덴마크
2006	Live Painting, 리퀴드룸, 도쿄, 일본
	Diesel New Art 2006, 갤러리에디션, 코펜하겐, 덴마크
	Long Island Icetea, +라보라토리움, 코펜하겐, 덴마크
	The Modest Tree, 로스킬데 페스티벌, 덴마크
	Dunk iDurup, 두로프울드다이어리, 두로프, 덴마크

2006	FabrikSelvsving, 더팩토리포아트앤디자인, 아마게르, 덴마크
	Or are you just lost...?, 갤러리 우덴가르, 오르후스, 덴마크
	3d wonders 2, 전시공간 둉크, 아마게르, 덴마크
	레지던시
2013	ISCP, 뉴욕, 미국

2012	여성예술가 멘토링, 위니펙, 캐나다
2011	루드비그 프레츠만 - 아게르홀름 부부 재단, 파리, 프랑스
2010	레지던시
2013	ISCP, 뉴욕, 미국
2012	여성예술가 멘토링, 위니펙, 캐나다
2011	루드비그 프레츠만 - 아게르홀름 부부 재단, 파리, 프랑스

Annesofie Sandal

1977	born in Seoul, lives and works in Copenhagen, Denmark
2005	MFA, The Royal Danish Academy of Fine Art, Copenhagen, Denmark
	<u>Selected Solo Exhibitions</u>
2014	Loss Of Memory, Loss Of Power, Rooster Gallery, New York, USA
	Everything Fades, Format Art Space, Copenhagen, Denmark
	KBH Kunsthall, Krabbesholm, Skive, Denmark
2013	Dying Slowly Inside Out, Ace Art Gallery, Winnipeg, Canada
	Open Studios, ISCP, New York, USA

2012	Every Body is an Island, MorsøKunstforening, Mors, Denmark
2011	Even in my Dreams it's a Battlefield, WAS, Copenhagen, Denmark
2009	Digging for Diamonds, ArtWox, Copenhagen, Denmark
2008	Safari, Raca, Copenhagen, Denmark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4	Jonas' Julekort, Atelier September, Copenhagen, Denmark
	Silent Review, MMCA Residency Changdong, Seoul
	Still Waters Run Deep, Odense Sculpture Triennial, Odense, Denmark
	Virgin Production, Udengaard Project, Aarhus, Denmark
2013	Paper, Munch Gallery, New York, USA
	BetroetTvivl, VejenKunstmuseum, Vejen, Denmark
	Jonas' Julekort, Atelier September, Copenhagen, Denmark
	Fall Salon, Valerie Galer, Copenhagen, Denmark
	The Time Ils Now, Museumsbygningen, Copenhagen, Denmark
	Beers 4, ByensKro, Copenhagen, Denmark
	Miss Baltazar's Laboratory, Science Friction, Copenhagen, Denmark
2012	Tunnel Vision, PortalensGalleri, Greve, Denmark
	Exquisite Corpse, Møstings Hus, Copenhagen, Denmark
	Callous Hands, Ufo Projects, Berlin, Germany
	3rd Party, Beaver Projects, Copenhagen, Denmark
	Absolut Bar, Roskilde Festival, Roskilde, Denmark
	Orgy, Traneudstillingen, Gentofte, Denmark
	Those who fold loose, BackYard Gallery, Copenhagen, Denmark
	A Flag For Every Occasion, WAS, Copenhagen, Denmark
	Bland Selv!, GalerieWolfsen, Aalborg, Denmark
	Blind Caravan, Rundetårn Copenhagen, Denmark
2009	Rialto, Wonderland Art Space, Copenhagen, Denmark
	In a Basement Black as Coal, TeaterFår 302, Copenhagen, Denmark
	Settlers, Copenhagen Business School, Copenhagen, Denmark
	Welcome to the Garage, Dunk, Valby, Denmark
2008	Darkness Exhibited, Wonderland Art Space, Copenhagen, Denmark
	Political Theater – Give to the rich, take from the poor, Raca, Copenhagen, Denmark

2007	Blink, GalleriUdengaard, Århus, Denmark
	Echo Park, Toldkammeret, Helsingør, Denmark
	Funk, Charlotte Fogh Gallery, Århus, Denmark
	Sideshow, Art Center Silkeborg Bad, Silkeborg, Denmark
	Salon #1, LauritzKunsthal, Copenhagen, Denmark
	Island Life, Sønderjyllands Kunstmuseum, Tønder, Denmark
	Match Race, Nordjyllands Kunstmuseum, Aalborg, Denmark
	Objet Trouvé, Koh I Noor, Copenhagen, Denmark
2006	Live Painting, Liquid Room, Tokyo, Japan
	Diesel New Art 2006, Galerie Edition, Copenhagen, Denmark
	Long Island Icetea, +Laboratorium, Copenhagen, Denmark
	The Modest Tree, Roskilde Festival, Roskilde, Denmark
	Dunk iDurup, Durup Old Dairy, Durup, Denmark
	FabrikSelvsving, The Factory for Art and Design, Amager, Denmark
	Or are you just lost...?, GalleriUdengaard, Århus, Denmark
	3d wonders 2, Exhibition place Dunk, Amager, Denmark

Residencies

2013	ISCP - International Studio & Curatorial Programme, New York, USA
2012	MAWA - Mentoring Artists for Womens Art, Winnipeg, Canada
2011	LudvigPreetzmann-Aggerholm and Wifes Foundation, Paris, France

헬홀트 & 마이방**by 비베케 마이방**

1999	아티스트 그룹 헬홀트 & 마이방 결성, 코펜하겐에서 거주 및 활동
2006	덴마크 왕립예술학교 순수예술석사
2005	노르웨이 베르겐국립예술대학 수학
2000	덴마크 푸넨미술아카데미 수학
	<u>주요 전시</u>
2014	Little Blonde Girl, 살롯포그갤러리, 오르후스, 덴마크
	Pomp and Ceremony - Shades of Skin, 투르쿠미술관, 투르쿠, 핀란드
	Hunger for Aggression, 오슬로쿤스트포레닝, 오슬로, 노르웨이
	Armed Response, 노르텔리에쿤스트홀, 노르텔리에, 스웨덴

2013 New Waves in the Hood, 담스 쿤스트뷔로, 오르후스, 덴마크
Hunger for Aggression, V1갤러리, 코펜하겐, 덴마크

2012 The Dark Passenger, SKMU - 솔랑데스미술관, 크리스티안산, 노르웨이

2011 Mörkersyn, 벡세쿤스트홀, 벡세, 스웨덴

2009 Daily Life in the Eye of the Hurricane, FB69갤러리, 니콜라이스타인하터, 뮌스터, 독일
The Perfect Storm, V1갤러리, 코펜하겐, 덴마크
Tornado Nearby, 살롯포그갤러리 프리뷰, 베를린, 독일

주요 단체전

2014 Other Forms of Relations,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Silent Review,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한국
Drømmeland, 쿤스텐 올보르 현대미술관, 올보르, 덴마크

2013 Common Tales, 스코네예술협회, 말뫼, 스웨덴

2012 Unfinished Journeys, 코펜하겐아트페스티벌, 감멜 스트란, 코펜하겐, 덴마크
I'm like a bird, 요하네스라르센미술관, 캐르테미네, 덴마크

2011 ENTER, 브란츠미술관, 오덴세, 덴마크
I'm like a bird, 스코브가드미술관, 비보르, 덴마크
WHAT'S HE BUILDING IN THERE?, 퓨즈갤러리, 뉴욕, 미국

2010 Socle du Monde, HEART - 헤르닝현대미술관, 덴마크
Party and Lost, 덴프리컨템포러리아트센터, 코펜하겐, 덴마크
노르딕아트 트리엔날레, 에스킬스투나미술관, 에스킬스투나, 스웨덴

2008 The Destruction of Atlantis, 유니온갤러리, 런던, 영국
Socle du Monde, HEART-헤르닝현대미술관, 덴마크

2007 SPEAK UP, 덴프리컨템포러리아트센터, 코펜하겐, 덴마크
Homecoming, 벤시셀미술관, 예링, 덴마크

2006 아트퍼레이드, 코펜하겐, 덴마크
EXIT06, 덴마크왕립예술학교 출업전시, 덴마크왕립예술학교 쿤스포레닝겐 감멜 스트란, 코펜하겐, 덴마크
Arbejde Arbejde Arbejde, 오버가든-현대미술관, 코펜하겐, 덴마크

수상

2014 블릭스재단상
베케트재단상
덴마크, 핀란드 문화재단 잉게르, 오게 널슨상
2011 덴마크예술재단 장학금
2010 올레 하스룬드 아티스트재단상
2008 덴마크예술재단 바리케이드상
2004 잉어골드만재단상

**Hesselholdt & Mejlvang
by Vibeke Mejlvang**

1999 initiated artist group Hesselholdt & Mejlvang, lives and works in Copenhagen, Denmark

2006 MFA The Royal Danish Academy of Fine Arts, Copenhagen, Denmark

2005 Bergen National Academy of the Arts, Bergen, Norway

2000 The Funen Academy of Fine Arts, Odense, Denmark

Selected Separate Exhibitions

2014 Little Blonde Girl, Charlotte Fogh Gallery, Århus, Denmark
Pomp and Ceremony - Shades of Skin, Turku Art Museum, Turku, Finland
Hunger for Aggression, Oslo Kunstforening, Oslo, Norway
Armed Response, Norrtälje Konsthall, Norrtälje, Sweden

2013 New Waves in the Hood, Das Kunstabüro, Århus, Denmark
Hunger for Aggression, V1 Gallery, Copenhagen, Denmark

2012 The Dark Passenger, SKMU-Sørlandets Kunstmuseum, Kristiansand, Norway

2011 Mörkersyn, Växjö Konsthall, Växjö, Sweden

2009 Daily Life in the Eye of the Hurricane, FB69 Galerie Kolja Steinrötter, Münster, Germany
The Perfect Storm, V1 Gallery, Copenhagen, Denmark
Tornado Nearby, Charlotte Fogh Gallery, Berlin, Germany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4 Other Forms of Relations, MMCA Residency Changdong, Seoul
Silent Review, MMCA Residency Changdong, Seoul, Korea
Drømmeland, KUNSTEN Museum of Modern Art Aalborg, Denmark

2013 Common Tales, Skånes Konstförening, Malmö, Sweden

2012 Unfinished Journeys, Copenhagen Art Festival, Gl. Strand, Copenhagen, Denmark
I'm like a bird, Johannes Larsen Museum, Kerteminde, Denmark

2011 ENTER, Kunsthallen Brandts, Odense, Denmark
I'm like a bird, Skovgaard Museum, Viborg, Denmark
WHAT'S HE BUILDING IN THERE?, FUSE Gallery, New York, USA

2010 Socle du Monde, HEART - Herning Museum of Contemporary Art and Lost, Den Frie Centre of Contemporary Art, Copenhagen, Denmark
Nordic Art Triennial, Eskilstuna Art Museum, Eskilstuna, Sweden

2008 The Destruction of Atlantis, Union Gallery, London, Denmark
Socle du Monde, HEART - Herning Museum of Contemporary Art, Denmark

2007 SPEAK UP, Den Frie Centre of Contemporary Art, Copenhagen, Denmark
Homecoming, Vendsyssel Museum of Art, Hjørring, Denmark

2006 Parade, art parade in the streets of Copenhagen, Denmark
EXIT06, Graduate Show, The Royal Danish Academy of Fine Arts, Kunstforeningen, Gl. Strand, Copenhagen, Denmark
Arbejde Arbejde Arbejde, Overgaden -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Copenhagen, Denmark

Awards

2014 Blix Foundation grant, Beckett Foundation Grant
The Danish-Finnish Cultural Foundation, Inger and Aage Nielsens grant

2011 The Danish Arts Foundation stipend

2010 Ole Haslund's Artist Foundation

2008 Award for Barrikade, The Danish Arts Foundation

2004 Inger Goldmanns Foundation

마르게리타 모스카르디니

1981 이탈리아 출생
2007 이탈리아 안토니오라티시각예술재단 상급자과정 이수
2006 이탈리아 예술아카데미 문화인류학 학사

주요 개인전

2014 To San Rocco with Love (with Jo Thomas), 컨템포러리로커스06, 베르가모, 이탈리아

2013 Istanbul City Hills - On the Natural History of Dispersion and State of Aggregation, 이스탄불이탈리아문화원, 터키
Annexe-1XUnknown, Ex Eletrofonica, Rome, Italy

2012 1xUnknown, MACRO Museum of Contemporary Art, Rome, Italy

2011 A project for the Ancient Bath, 아트투데이현대미술센터, 플로브디, 불가리아
studio per un'erosione, Fondazione La Quadriennale, Rome, Italy

주요 단체전

2014 We have never been modern,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VAF Foundation Prize, 사우베르크재단, 슈투트가르트슈타트갤러리, 독일
Landscape is a Social System, Ex Eletrofonica for Curator's view, 아트브뤼셀, 벨기에
Premio Terna 04, 하드리아노신전, 로마, 이탈리아
2011 Ariane de Rothschild Prize, 팔라초 레알레, 밀라노, 이탈리아
Emerging Talents, CCCS, 팔라초 스트로지 재단, 피렌체, 이탈리아
JUMP CUT dialectic dream, 더바벌샵, 리스본, 포르투갈
2010 Col·lecció Art Foundation Mallorca, CCA안드라초, 마요르카, 스페인
In full Bloom, 라코엘 라코르테제갤러리, 칼레이도스코프 프로젝트스페이스, 밀라노, 이탈리아

레지던시

2015 ISCP, 뉴욕, 미국
2012 파스티피치오 체레레 재단, 로마, 이탈리아
파리국제예술공동체, 파리, 프랑스

수상

2014 뉴욕프라이즈, 콜롬비아대학교, 뉴욕, 미국
2008 피나코테카 지오반니와 마렐라 아넬리상, 토리노, 이탈리아

Margherita Moscardini

1981 born in Italy
2007 Advanced Course Visual Arts, Fondazione Ratti, Como, Italy
2006 BA Cultural Anthropology, Academy Fine Arts, Bologna, Italy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4 To San Rocco with Love (with Jo Thomas), Contemporary Locus 06, Bergamo, Italy

2013 Istanbul City Hills - On the Natural History of Dispersion and State of Aggregation, Italian Institute of Culture of Istanbul, Turkey
Annexe-1XUnknown, Ex Eletrofonica, Rome, Italy

2012 1xUnknown, MACRO Museum of Contemporary Art, Rome, Italy

2011 A project for the Ancient Bath, ArtToday Center for Contemporary Art, Plovdiv, Bulgaria
studio per un'erosione, Fondazione La Quadriennale, Rome, Italy

<u>Selected Group Exhibitions</u>	
2014	We have never been modern, SongEun ArtSpace, Seoul
	VAF Foundation Prize, Schauwerk Foundation, Stuttgart and Staedtgalerie Kiel, Germany
	Landscape is a Social System, Ex Elettrofonica for Curator's view, ArtBrussels, Belgium
2012	Premio Terna 04, Tempio di Adriano, Rome, Italy
2011	Ariane de Rothschild Prize, Palazzo Reale, Milan, Italy
	Emerging Talents, CCCS, Palazzo Strozzi Foundation, Florence, Italy
	JUMP CUT dialectic dream, the Barber Shop, Lisbon, Portugal
2010	Collecció Art Foundation Mallorca, CCA Andratx, Mallorca, Spain
	In full Bloom, Galleria Raffaella Cortese c/o kaleidoscope project space, Milan, Italy
<u>Residencies</u>	
2015	ISCP - International Studio & Curatorial Program, New York, USA
2012	Pastificio Cerere Foundation, Rome, Italy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Paris, France
<u>Awards</u>	
2014	New York Prize (fellowship by Italian Foreign Affairs Ministry), Italian Institute of Culture, The Italian Academy -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USA
2008	Pinacoteca Giovanni e Marella Agnelli Prize, 1st edition, Torino, Italy

발레리오 로코 오를란도

1978	밀라노 출생, 뉴욕에 거주 및 작업
2003	영국 퀸메리대학교 필름디렉팅 석사
2001	이탈리아 가톨릭대학교 드라마투르기 학사
2000	이탈리아 파울로글라시극단학교 연극연출과정 이수
<u>주요 개인전</u>	
2015	What Education for Mars?, 마리오마리니미술관, 피렌체, 이탈리아
	The Sphere of the Between, 한국국제교류재단, 서울
2013	The Reverse Grand Tour, 로마국립현대미술관, 이탈리아
	¿Qué Educación para Marte?, 빌라 에 콜레지오네 판차, 바레세, 이탈리아
2011	Quale Educazione per Marte?, 노마스재단, 로마, 이탈리아
	Lover's Discourse, Careof DOCVA, 파쁘리카델바포레, 밀라노, 이탈리아

2010	Lover's Discourse, 모멘타아트, 뉴욕, 미국
	Coexistence, 티지아나 디 카로 갤러리, 살레르노, 이탈리아
2008	Niendorf (The Damaged Piano), 메이즈갤러리, 튜린, 이탈리아
	Valerio Rocco Orlando, 루시퐁텐, 밀라노, 이탈리아
	Niendorf (The Damaged Piano), 레지오극장, 파르마, 이탈리아
	Niendorf (The Damaged Piano), 브롤레토궁전, 노바라, 이탈리아
2007	The Sentimental Glance, 메이즈갤러리, 튜린, 이탈리아
2006	Video Invitational#3, 비아파리니, 밀라노, 이탈리아
2005	Behind the Moon, 포르테짜 다 바소, 피렌체, 이탈리아
	Eva, 스파지오리마, 밀라노, 이탈리아
2004	Le Vertige, 갤러리 인, 서울

주요 단체전

2014	Other Forms of Relations,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World Cultures, 아트선자센터, 서울
	Social Photography, 에밀리하비재단, 뉴욕, 미국
	Glitch. Interferenze tra arte e cinema, 밀라노현대미술관, 이탈리아
	Diamanti, Careof DOCVA, 파쁘리카델바포레, 밀라노, 이탈리아
	We Have Never Been Modern,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One Shot, Centrale Fotografa, 로카 말라테스티아나, 파노, 이탈리아
	L'atlante, 알토가르다미술관, 트렌토, 이탈리아
2013	PremioTerna 05, 하드리아노신전, 로마, 이탈리아
	Non è un Paese per vecchi?, 두칼레궁전, 제노바, 이탈리아
	The 338 Hour Cineclub, 산드레토 레 레바우덴고 재단, 토리노, 이탈리아
	Un'Opera per il Castello, 산텔모성, 나폴리, 이탈리아
	Workshop, Workshop! Workshop, 로마현대미술관, 이탈리아
	Different Pulses, 무형예술축제, 치비달레델프리울리, 이탈리아
	Premio MARETTI, PAN 팔라초델아티나폴리, 나폴리, 이탈리아
2012	제11회 하바나비엔날레, 위프레도랩현대미술센터, 하바나, 쿠바
	Neon. La materia luminosa dell'arte, 로마현대미술관, 이탈리아
	Re-generation, 로마현대미술관, 이탈리아
	Estate, 마리안 보에스키 갤러리, 뉴욕, 미국
	The Suburbans: Never before a girl done so much with so little, 더서브어반, 시카고, 미국

2013	Spazi Aperti X, 루마니아아카데미, 로마, 이탈리아
	Pay attention, please!, 쿤스트하우스SYB, 비초테르바크, 네덜란드
	Nessuno e niente scompaia, 갤러리 1/9 우노수노베, 로마, 이탈리아
	Talent Prize, 로마현대미술관, 이탈리아
	Io, tu, noi e gli altri Fotografia Europea 012, 파니치도서관, 레지오 에밀리아, 이탈리아
	Entourage, 루시퐁텐, 밀라노, 이탈리아
2010	Voglio Soltanto Essere Amato, EX3, 피렌체, 이탈리아
	Social Photography, 캐리지트레이드, 뉴욕, 미국
	Voglio Soltanto Essere Amato, 갈라라테미술관, 이탈리아
	Nurture Art, 첼시미술관, 뉴욕, 미국
	Perché ti amo non so, 코다룽가, 비토리오 베네토, 이탈리아
	Momenta Art, 로레타하워드갤러리, 뉴욕, 미국
2008	Tuttocchi, Castello d'Albertis, 세계문화박물관, 제노바, 이탈리아
	Io non ho mani che mi accarezzino il volto, 몰레 반비텔리아나, 안코나, 이탈리아
	My Name is..., [Box] 비디오아트프로젝트스페이스, 밀라노, 이탈리아
	Education Lab, Fabbrica del Vapore, 밀라노, 이탈리아
	Pure Water Vision, 오디토리엄 델라 콘실리아지오네, 로마, 이탈리아
2007	SOMETHING: Random, Unexpected, Desired, Imagined, Risky, 프랫맨하워드갤러리, 뉴욕, 미국
2006	videoREPORT ITALIA: 08_09, GC.AC 몬팔코네시립현대미술관, MAN미술관, 칼리아리, 이탈리아
2005	Pagine Bianche d'Autore, 시트, 튜린, 이탈리아
	L'arpa Magica, 루시퐁텐, 밀라노, 이탈리아
	BYOA, XI이니셔티브, 뉴욕, 미술
	Los Ninos, 리사이클아트, 브뤼셀, 벨기에
	Studio Program Mixer, 스맥엘론, 뉴욕, 미국
2014	<u>Selected Group Exhibitions</u>
	Other Forms of Relations, MMCA Residency Changdong, Seoul
	World Cultures, Art Sonje Center, Seoul
	Social Photography, Emily Harvey Foundation, New York, USA
	Glitch. Interferenze tra arte e cinema, PAC Padiglione d'Arte Contemporanea, Milan, Italy
	Diamanti, Careof DOCVA, Fabbrica del Vapore, Milan, Italy
	We Have Never Been Modern, SongEun ArtSpace, Seoul
	One Shot, Centrale Fotografa, Rocca Malatestiana, Fano, Italy
	L'atlante, MAG Museo Alto Garda, Trento, Italy
2013	PremioTerna 05, Tempio di Adriano, Rome, Italy
	Non è un Paese per vecchi?, Palazzo Ducale, Genoa, Italy
	The 338 Hour Cineclub, Fondazione Sandretto Re Rebaudengo, Turin, Italy
	Un'Opera per il Castello, Castel Sant'Elmo, Naples, Italy
	Workshop, Workshop! Workshop, MACRO Museo d'Arte Contemporanea Roma, Rome, Italy
	Different Pulses, Festival delle Arti Immateriale, Cividale del Friuli, Italy
	Premio MARETTI, PAN Palazzo delle Arti di Napoli, Naples, Italy
<u>Valerio Rocco Orlando</u>	
1978	born in Milan, Italy, lives and works in New York, USA
2003	MA Film Directing, Queen Mary College, London, Great Britain
2001	BA Dramaturgy, Università Cattolica, Milan, Italy
2000	Diploma in Theatre Direction, Milano Teatro Scuola Paolo Grassi, Milan, Italy
<u>Selected Solo Exhibitions</u>	
2015	What Education for Mars?, Museo Marino Marini, Florence, Italy
	The Sphere of the Between, Korea Foundation,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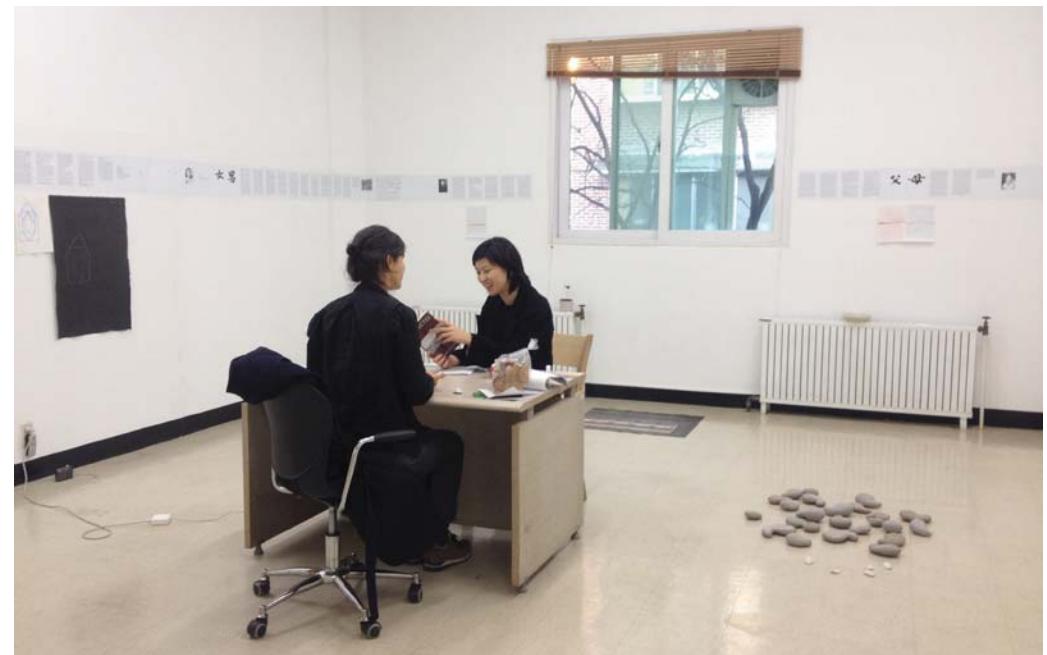
2012 XI Bienal de La Habana, Centro de Arte Contemporáneo Wifredo Lam, La Habana, Cuba
 Neon. La materia luminosa dell'arte, MACRO Museo d'Arte Contemporanea Roma, Rome, Italy
 Re-generation, MACRO Museo d'Arte Contemporanea Roma, Rome, Italy
 Estate, Marianne Boesky Gallery, New York, USA
 The Suburbans: Never before a girl done so much with so little, The Suburban, Chicago, USA
 Spazi Aperti X, Accademia di Romania, Rome, Italy
 Pay attention, please!, Kunsthuis SYB, Beetsterzwaag, Netherlands
 Nessuno e niente scompaia, Galleria 1/9 unosunove, Rome, Italy
 Talent Prize, MACRO Museo d'Arte Contemporanea Roma, Rome, Italy
 Io, tu, noi e gli altri | Fotografia Europea 012, Biblioteca Panizzi, Reggio Emilia, Italy
 Entourage, Lucie Fontaine, Milan, Italy
 Voglio Soltanto Essere Amato, EX3, Florence, Italy

2011 Social Photography, Carriage Trade, New York, USA
 Voglio Soltanto Essere Amato, MAGA Museo Arte Gallarate, Gallarate, Italy
 Nurture Art, Chelsea Art Museum, New York, USA
 Perché ti amo non so, Codalunga, Vittorio Veneto, Italy
 Momenta Art, Loretta Howard Gallery, New York, USA
 Tuttocchi, Castello d'Albertis, Museo delle Culture del Mondo, Genova, Italy
 Io non ho mani che mi accarezzino il volto, Mole Vanvitelliana, Ancona, Italy
 My Name is..., [Box] Videoart Project Space, Milan, Italy
 Education Lab, Fabbrica del Vapore, Milan, Italy
 Pure Water Vision, Auditorium della Conciliazione, Rome, Italy

2010 SOMETHING: Random, Unexpected, Desired, Imagined, Risky, Pratt Manhattan Gallery, New York, USA
 videoREPORT ITALIA: 08_09, GC.AC Galleria Comunale d'Arte Contemporanea, Monfalcone, Italy
 Pagine Bianche d'Autore, Seat, Turin, Italy
 L'arpa Magica, Lucie Fontaine, Milan, Italy
 BYOA, X Initiative, New York, USA
 Los Ninos, Recyclart, Bruxelles, Belgium
 Studio Program Mixer, Smack Mellon, New York, USA









THE DANISH ARTS FOUNDATION



Istituto Italiano di Cultura - Seoul
주한이탈리아문화원
Italian Cultural Institute - Seoul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MMCA Residency Changdong

132-919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257
257 Deongneung-ro, Dobong-gu, Seoul,
132-919 Korea
Tel 02-995-0995
Fax 02-995-2638
mmcachangdong@gmail.com
www.mmca.go.kr

발행처 국립현대미술관
기획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1실
매니저 박희정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박예슬
시설 김만호
인턴 윤세영, 이상미
스텝 권경아
번역 채선이
발행일 2015년 5월 19일
디자인 일상의실천
인쇄 퍼스트경일

©국립현대미술관, 2015

이 책에 수록된 도판 및 저작권은 해당 작가와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를 사용하려면 미리 저작권자의 사용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32-919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257
02-995-0995
www.mmca.go.kr

Publisher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Organizer The Curatorial Department 1 at the
MMCA, Korea
Manager Park Heejung
Program Coordinator Park Ye Sul
Facility management & Technical support
KIM Manho
Intern Yoon Seyeong, Lee Sangmi
Staff KWEON Kyung-Ah
Translation Sunnie Chae
Published Date 19 May, 2015
Design Everyday Practice
Printing First Kyungil Printing

©2015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manner
without the prior writing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s.

257 Deongneong-ro, Dobong-gu, Seoul,
132-919, Korea
+ 82 (0)2 995 0995
www.mmca.go.kr